

반산 스님(쌍계사승가대학장)
고정 관념 버리고
세상의 법문에 귀 기울여야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1일) · 주간

제1053호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화엄경〉
누구라도 가장 높은 이를 뵙고
성불하려는 마음 굳으면
부처님의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찬란한 백제불교문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미륵사지 등 백제유적 8곳, 4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등재지역은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총 8곳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등재지역에서는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등 불교유적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먼저 익산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등재과정에서 평가받았다.

백제 말기 신도읍지로 구상되던 익산에 자리한 미륵사는 백제 무왕 2년인 601년에 창건됐다. 불심으로 나라를 중흥하고자 하는 무왕의 의지가 섞여 있다. 여기에는 무왕(武王)과 선화공주(善花公主)의 미륵삼존 설화가 전해진다. 미래를 뜻하는 미륵삼존의 상징으로 3탑 3금당의 양식으로 구성된 가람구조는 독특하다.

이와 함께 등재된 익산 왕궁리 유적도 백제 왕실의 별궁터지만 불교사상이 반영돼있다. 한국식 정원 경관과 조경기술 속에 불교사상이 녹아있는 정원과 중국식과 일본식 양식이 혼성돼 있다.



7월 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 정림사지 5층석탑.

韓 총 12곳 유산 등재 '쾌거'
동아시아 문명의 절정 평가
백제 문화 재조명 기회될 것

등재지인 부여 정림사지도 사비도성 내 유일하게 석탑이 남아있는 사찰터라는 점과 당시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정림사는 1탑 1금당식 양식을 띄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고대 사찰인 시텐노지(四天王寺)와 같은 양식으로 백제의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웅진시기 백제 왕릉군인 공주 송산리고분군도 불교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송산리고분 중에는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과 달리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무덤으로 연꽃 문양을 쓴 벽돌이 사용됐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선정결과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해당지자체가 보존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신심과 원력이 만들어낸 절경… 동티베트 '야칭스'

야칭스는 중국 쓰촨성 고산 지대인 바이위현에 있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공동체이다. 이 같은 야칭스의 전경 사진이 불교 언론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칭스는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가 이곳에 사원을 세우자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마을이라고는 해도 한국의 6.25 동란 당시 피난촌을 연상시키는 판자집들이 이어져있으며, 비구 · 비구니 1만여 명이 수행과 교학 공부를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손에 염주를 놓치 않고 수행을 하는 이들의 신심과 원력이 티베트 불교의 힘을 보여준다.

중국 쓰촨= 신성민 기자 〈관련 연재 12면〉

"이웃종교 타산지석 삼아 불교 발전 도모"

조계종 불교사회硏, 〈타종교 현황 기초 조사 보고서〉 발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7월 7일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을 정리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초조사보고서는 먼저 출간된 340쪽 분량의 〈상세종합자료집〉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슈를 선정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본법제 △운영구조 △일반조사통계 △종교별 공식통계 △재정 및 자원관리 △사목 · 선교 · 교화 △가톨릭의 성직자 양성 및 인사 제도 △개신교의 교계 제도 및 교직 구조 △원불교의 교직 및 교계제도 △성직자의 기본생활과 노후보장 제도 △신자 · 신도 · 교도 · 사회교리와 대사회활동 구조 및 주요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종단 근간 종헌, 교리 반영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이웃종교의 경우 각 종교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법〉〈교회법전〉, 개신교 〈교회헌법〉, 원불교 〈교헌〉의 경우에는 교단의 구성원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가톨릭 교회법의 경우 성서에 입각해 20년간의 공의수렴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

윤남진 NGO리서치 연구소장은 "조계종의 종헌은 대부분이 사회법에 따라 종단 기구와 운영체계 구성

가톨릭 · 원불교 교단 재정
철저한 심의기구 거쳐 사용
신부들 월급여 책정하는 등
복지 지원… 사망 시 환입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헌에 대한 개정도 이웃종교에 비해 잦다. 불교교리에 기반해 불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법으로 종헌이 자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웃종교 재정 투명화 어떻게

이와 함께 불교계가 이웃종교가 재정관리에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가톨릭의 경우 재정관리 규정이 교구별 본당에 갖춰져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교구별 교육비, 자선복지비, 사제공제회비, 각종 기금 등을 적시해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예산 편성과정도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본당 재정관리위, 사목평의회 상임위, 본당 주임신부 재가, 교구 재무평의회 검토, 교구장 심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다.

가톨릭의 경우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을 두고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장기적인 보존, 관리 등의 전략을 수립한 것도 특징이다.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교도들의 헌공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가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자체적으로 산업 · 농원 · 의원을 설립해 그 소득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그 예산은 교정원장 편성과 중앙교의회 결의, 수위단회 승인 등을 얻도록 되어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개별 운영체계인 개신교의 경우 각 교회 재정과 회계 규정을 담아 정관에 명기해야 함에도 실태를 보면 상당수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여 투명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웃종교 성직자 노후 보장 '눈길'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각 종교의 성직자 노후보장 제도에 대해 다뤘다. 가톨릭 사제는 본당별 월급여가 책정되고 노후는 〈사제평의회공제회〉에서 관리된다. 특히 30평 이하의 아파트와 2억원 이하의 지원이 되고, 모든 지원이 사망시 교구재산에 환입되도록 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월급여에서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고 교회가 일정비율을 부담해 노후를 보장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교구공동체 자치를 목표로 하는 불교의 경우 개신교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펴낸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20여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종단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현황을 조사해 종단의 장기적 데이터로 축적하고 향후 종책사업에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서를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보고서의 주제별 조사파일을 논문, 문서자료, 웹자료 등으로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서 '종헌' 개정안 인준

7월 8일 만장일치 통과…원로회의 인준권 강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가 '종헌' 개정안을 7월 8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그동안 세차례나 부결된 끝에 통과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헌 제9조 3항인 종단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의 강제성이 강화됐으며 총림 방장 연임 금지 및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원로회의 인준 등이 포함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7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49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호의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종무보고에 이어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원로회의의 권한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로 스님은 "방장 추대에 대해 원로회의는 발언권이 없다"며 "방장 문제는 종회를 거치되 결정은 원로회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 "'종헌'에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로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원로회의에서는 총림 방장 자격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또 중앙종회가 가진 방장 추대권도 원로회의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원로회의는 멸빈 징계를 받은 의현 스님이 '공권정지 3년' 감형 판결을 받은 것과 선학원과의 법인법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노덕현 기자

허위 유인물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2013년 12월 23일 약 100여 통의 허위 유인물(동화사 주지 선출에 S스님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 동화사 주지 S스님과 M스님의 허위 성스캔들 내용)을 만들어서 1차(2013. 12.23.), 2차(2013. 12. 25.), 3차(2014.1.2.경)에 걸쳐서 조계종 총무원, 각 본사, 선원, 교계신문, 한국일보 방송국에 허위사실을 배포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유인물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유인물 유포자 이윤○은 불순한 배후 세력의 꼬임에 빠져서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동화사 교구에 큰 분란을 일으킨 죄로 2014년 10월 2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대구 봉덕동 효성타운에 살고 있는 나이 48세 이윤○으로 밝혀졌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우체국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익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인물 봉투에 묻은 지문하나로 범죄자를 밝히고 구속영장청구까지 하면서 배후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단과 검사 분들의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일을 계기로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유인물 피해자 명인 배상

바른불교모임 "해인사 사태는 공업"

5일 해인사 방장 스님에게 정상화 요청문 전달

주지 직대에 학성 스님 임명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이하 바른불교)가 7월 5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해인총림 정상화를 촉구하는 요청문을 전달했다.

바른불교는 이날 요청문 전달에 앞서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인사는 성철 스님의 엄격한 수행 가풍에 근거한 선수행의 상징이며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라며 "최근 방장 선출과정이 불미스런 선거로 치러졌고, 이 과정에 돈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법보종찰 해인사 뿐만 아닌 사부대중 모두의 막대한 죄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보종찰 해인사'가 세상으로부터 '방장 주지 직인을 탐하는 탐욕종찰 직인사'라는 비웃음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인사 사부대중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어서 빨리 자자와 포살로 해인총림의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성 스님(만불회 회주)을 해인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6월 17일부터 주지직무대행을 맡았던 혜일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과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어 종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주지직무대행 임기는 3개월로 임기 중 차기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

한편, 만불회는 7월 2일 총무원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다. **노덕현 기자**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가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정상화 촉구 요청문을 전달하고 있다.

선학원 "현 집행부와 대화할 수 없다"

7월 3일 조계종 측 대화제의 거절

선학원이 조계종 측이 제의한 대화를 거절했다. 선학원은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 측에 자승 스님이 제안한 '선학원 이사 초청 간담회' 회신 공문을 보내 "법인관리법과 종헌 9조 3항에 대해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학원 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선학원과 조계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인식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이미 멸빈을 시켜놓고 조계종도로 자격을 상실했는데, 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학원 측은 "총무원장 스님이 2014년 10월 23일 '선학원과의 관계는 끝난 사안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 2014년 11월 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16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워크숍에서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겨냥해 만든 법'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선학원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법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이번 대화제의의 본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학원의 대화제의 거절로 인해 법인관리법 유예조치가 끝나는 7월 31일까지의 조계종 측 대응에 관심을 모이고 있다. 선학원은 지난 4월 조계종과 별도로 구족계 수계산림을 연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을 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조직적' 해외포교 나섰다

포교원, 6월 20일~7월 6일 미주전법순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내 사찰 간 자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포교원과 교구 간 연계를 통해 조직적·세계적 포교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미국·캐나다 지역 전법순례를 다녀왔다. 포교원은 이번 순례를 통해 신도층 고령화, 어린이 포교 침체 등 해외지역 포교 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전법네트워크 확립에 나선다.

포교원은 "이번 순례를 통해 해외 신도층 고령화와 어린이 포교 침체 등 여러 문제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위해 "국내 포교 프로그램 전수 및 어린이·청소년 불교지도자 양성, 미동부교구어린이 불교캠프 등 다양한 방편을 구상 중"이라 밝혔다.

특히 포교원은 해외 포교사 역량 증대와 디지털대학 교육 서버 개설을 핵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미국에는 한국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해외 포교사 활동이 활발했지만 현재는 많이 미비하다. 국내 포교사 양성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도입해 역량 증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디지털대학교육 서버 개설은 해외 신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종단 포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화에 발맞춘 디지털 신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해외 신도들에게도

신도 고령화 등 포교 문제 파악
포교사 역할 중요… 양성 집중
디지털 대학통한 신도교육 추진
美 어린이 불교 캠프 등 계획도

국내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어 미국은 사찰이 종교법인법을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사찰별 연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정도 교구 사찰 스님들이 포교 방안을 의논 및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스님들 간 유대감을 조성해 의사소통을 이끌어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전법단, 미동부해외특별교구로 구성된 '해외포교네트워크구축 전법순례단'은 6월 20일~7월 6일 미국, 캐나다 지역 순례를 진행했다.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미동부전법순례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도 및 사찰 스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지 포교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포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순례단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국제전법단 사무처장 정범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포교원 박성수 전법팀장 등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미국 시카고 불타사·뉴욕 불광선원·보스톤 문수사와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벤쿠버 서광사·캘거리 서미사 등을 순회하며 △미주 지역 사찰 간담회 개최 △국제전법단 지도법사 위촉 △해외포교 우수사찰 감사패 전달 등을 진행했다.

한편, 포교원 순례단은 시카고 불타사 현성 스님, 뉴욕 불광선원 휘광 스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불타사 주지 성향 스님과 불광선원 총무국장 문종 스님을 국제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개혁 정신 후퇴 용납할 수 없다"

의현 스님 감형 논란
출재가 비판의 목소리
특별법 제정 촉구도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 대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공권정지 3년 판결을 두고 출재가 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개혁을 주도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중앙종무기관 재가 종무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7월 8일 장성 백양사 인근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 전면 무효화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를 위해 다른 불교계 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과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상임대표 퇴휴 스님을 비롯해 20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오후 6시 30분 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종헌종법을 수호하지 못한 점과 94년 종단개혁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참회 △의현 前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 전면 무효화 △재심호계원장 자광 스님과 재심호계위원 참회 및 전원사퇴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징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94년 종단개혁 계승하는 출재가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결의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7월 8일 장성 백양사 인근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 결정 전면 무효화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한 출재가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재가단체들이 구성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측과의 연대 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재가단체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14개 재가단체로 구성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가 7월 9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비대위는 의현 스님에 대한 복권 반대를 명확히 밝히고 조계종 집행부의 복권절차 진행 중단 및 중앙종회의 재심호계위원 불신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의현 스님에 대한 교단의 엄벌은 다시금 어용불교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물질만능주의의 세속화 물결 속에 투명한 교단을 만들자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종단 사상 이렇게 많은 대중의 공의가 모여 엄벌을 결의한 사례는 없었음에도 재심호계원은 아무런 대중공의 수렴 없이 밀실에서 복권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94년 개혁정신과 대중공의, 조계종 종헌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재심호계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중앙종회는 재심호계위원들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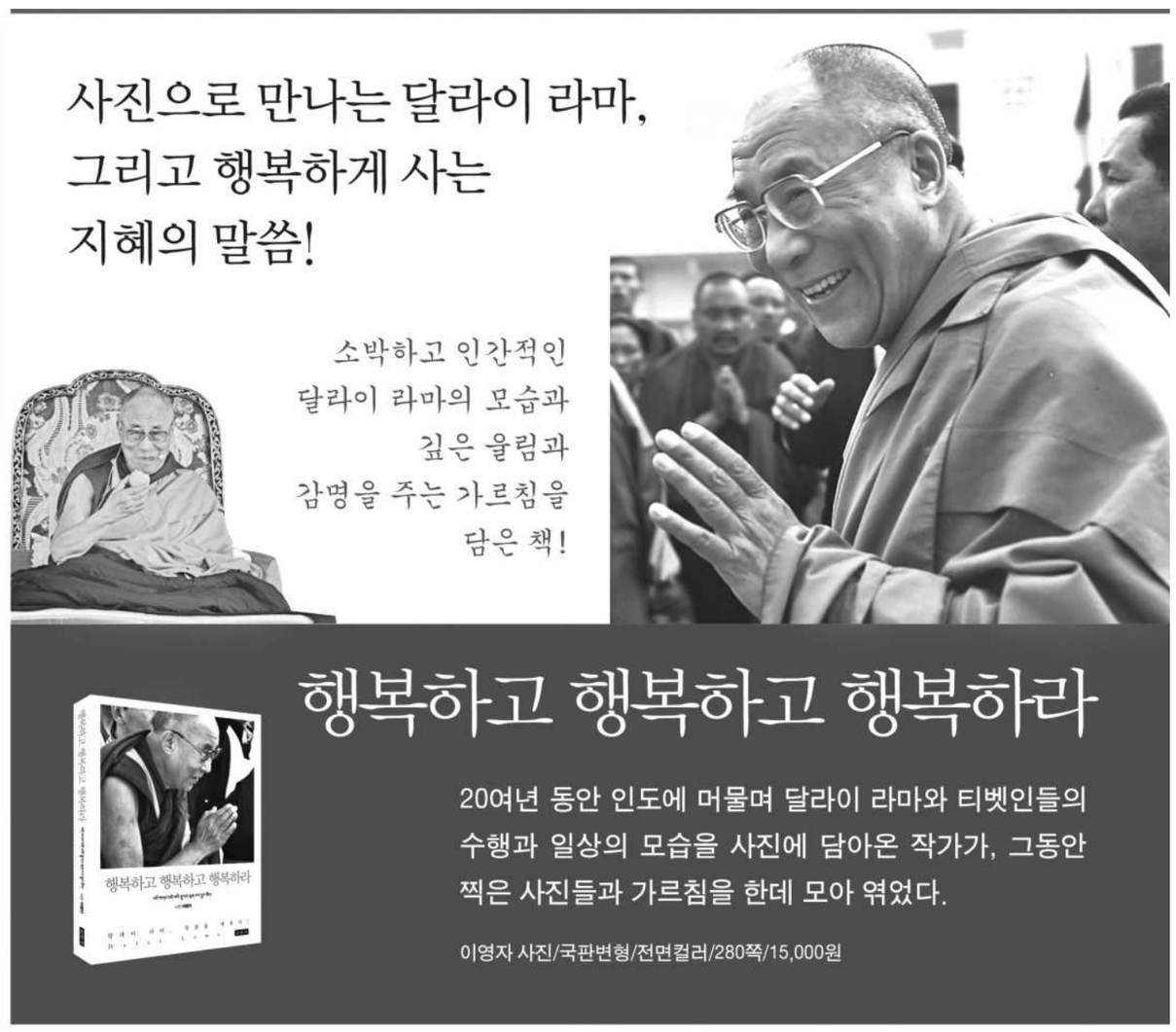
조계종 종무원 조합도 재심호계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은 7월 8일 성명을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종무원 조합은 토론회를 열고 판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7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지현)에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 명의 공문을 통해 심판 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7월 29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에서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스타케미칼 노사 최종 합의 환영”

조계종 노동위, 7일 성명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7월 7일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 노사 합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는 “스타케미칼은 모기업 스타플렉스 흑자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일방적 폐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회사방침에 따라 노동자 29명이 강제 해고당했다”며 “자본 공장은 공장을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소중한 가족,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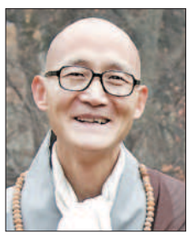
이어 노동위는 “스타케미칼 뿐만 아니라 콜트콜택, 기륭전자 등도 공장과 설비를 이익에 따라 팔아치우고 고용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다”며 “공장을 정리는 과정서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방해자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몇 년이고 길거리에서 고용보장과 ‘먹튀자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책망했다.

아울러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서는 “406일의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공장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싸운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노동자는 자본이 필요할 때만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린 커다란 계기”라고 환영했다. **박아름 기자**

아베 비판 지식인, ‘2015 만해대상’ 받는다

만해선양회, 7월 5일 만해 대상 수상자 발표


알렉시스 더든 교수


청천 스님


무지개 공동회(천노엘 신부)


황병기 교수


신영복 교수


정현종 시인

위안부 문제 비판한 더든 교수 평화 부문
실천 부문에는 청천 스님, 무지개 공동회
문예 부문 신영복, 황병기, 정현종 선정돼
오는 8월 12일 만해 축전 기간 중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7월 5일 제19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미국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등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만해평화대상에는 알렉시스 더든 교수가, 만해실천대상에는 히말라야 빈민구제활동가인 청전 스님과 발달장애인 공동체 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가 각각 선정됐다.

만해문예대상은 가야금 명인 황병기 씨와 정현종 시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 3명이 받는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46,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2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질타하는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데 이어 5월에도 세계 역사학자 187명의 집단성명을 모아 내는 등 동북아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더든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에 얽힌 역사적 실체와 국제조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청전 스님(62, 히말라야 구호가)은 20여 년간 매년 히말라야 오지를 다니며 빈민에게 약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해주는 봉사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53년 전북 김제시에서 태어난 스님은 처음에는 교사가 되려 교육대학(전주교대)에 다녔다. 그러나 10월 유신에 연류돼 12월 자퇴하고 1973년에는 가톨릭 신부가 되려 대건신학대를 다녔다. 가톨릭신부 수업을 받던 중 인생에 대한 의문이 생겨 송광사로 출가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에게 1978년 사미계를, 197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생긴 것은 1987년 5월엔 동남아시아로 불교 순례길에서였다. 인도에서 가톨릭 테레사 수녀를 만난데 이어 그 해 8월 1일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당시 35살이었던 그는 히말라야 기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제자가 되어 인도에 정착한 이후 그곳에서만 27년간 수행해오고 있다.

그는 조계종 소속 승려이고, 달라이 라마의 제자로서 티베트불교 수행자이지만, 히말라야 오지인들에겐 ‘산타 멍크’(산타클로스 스님)로 불리고 있다.

실천대상 수상단체인 무지개공동회는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가 만든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광주 시내 아파트 6곳에 위치한 그룹홈과 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공동회 대표인 천 신부는 장애인을 위해 한 일로 상을 받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다.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나는 그들과 친구”라며 수상을 거부했다. 2014년 포스코청암상도 무지개공동회 이름으로 받았다.

문예대상에 선정된 신영복 교수(74,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 인간과 생명, 평화와 공존의 참 의미를 전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책이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황병기(79, 이화여대 명예교수) 교수는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가야금을 필생의 업(業)으로 삼아 명인의 경지에 이른 우리 창작음악의 1세대다.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다가 2001년 정년퇴임했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지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정현종(76)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50년 동안 한국 시의 사유와 감각에 신생의 탄력을 부여해온 한국 문단의 대표적 시인이다. 정헌종 시인은 그 특유의 철학적 사색과 섬세한 감각으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시상식은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오후 2시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역’ 개신교 딴죽 결국 무위로 마무리

서울지법 5일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 대한 개신교계의 역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7월 5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면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본다 해도 결론은 같다”며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보호관찰자 힐링 도와

문화사업단 · 법무부 업무협약
“재범 방지 모범 사례 기대”
법주사도 충남교육청과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법무부는 7월 9일 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템플스테이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신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7월 9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 회복을 도모하고 심신 치유에 기여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키로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법무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템플스테이를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가족 템플스테이로 전환, 전국 단위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부처와 종교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모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심성순화에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간직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속리산 법주사(주지 현조)도 충북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지친 교직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교직원 행복 힐링 연수 업무협약(MOU)’을 7월 9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는 앞으로 충북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선과 108배, 예불체험, 숲길 걷기, 차담 문화체험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법주사 힐링 프로그램이 무너지는 교권 침해 등으로 상처 입은 교사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발원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일본인 사찰?”

숭정전 ‘일본인 사찰 조계사에 매각’ 안내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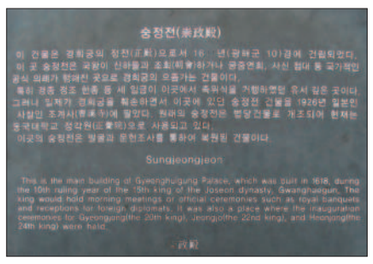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하면서 1926년 숭정전 건물을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曹溪寺)에 팔았는데 현재는 동국대 정각원으로 남아있다. 현 위치 숭정전은 복원된 것이다’

서울 경희궁 숭정전의 안내판과 책자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를 친일사찰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쓰여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은 7월 8일 원로회의에서 “새로 지어진 경희궁 숭정전의 안내책자에 현재 조계사를 친일사찰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쓰여 문제”라며 해당문구의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상황에서 안내판과 책자를 내외국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다는 것. 안내판의 문구 또한 당시 일본인 사찰인 남산 조계사는 ‘曹谿寺’임에도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희궁 숭정전은 1618년 광해군 10년에 건립돼 주로 국왕이 조회를 하고, 사신 접대 등 공식행사를 했던 곳이다.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하며 당시 남산에 자리했던 일본 조동종의 조계사 법당으로 쓰이기 위해 옮겨졌다. 현재의 종로구에 위치한


숭정전(崇政殿)

이 건물은 경희궁의 정전(正殿)으로서 16…년(광해군 10)경에 건립되었다. 이 곳 숭정전은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朝會)하거나 관경연회, 사신 접대 등 국가적인 중요 의례가 행해진 곳으로 경희궁의 으뜸가는 건물이다.

특히 경종 정조 헌종 등 세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나 일제가 경복궁을 훼손하면서, 이곳에 있던 숭정전 건물을 1926년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曹溪寺)에 팔았다. 현재의 숭정전은 법당건물로 개조되어 현재는 동국대학교 정각원(正覺院)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의 숭정전은 정문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복원된 건물이다.

Sungjeongjeon

This is the main building of Gyeonghigung Palace, which was built in 1618, during the 10th ruling year of the 15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Gwanghaegun. The king would hold morning meetings or official ceremonies such as royal banquets and receptions for foreign diplomats. It was also a place where the inauguration ceremonies for Gyeongjungjithe 20th king), Jeongjothe 22nd king), and Hwanjongjithe 24th king) were held.

숭정전 현재 안내판. 당시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는 조계사(曹谿寺)임에도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로 명시돼있어 조계종 조계사가 친일사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계사는 당시 각황사로 불렸다.

동국대 정각원 관련 논문을 쓴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조동종의 조계사(曹谿寺)와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의 오류와 함께 한문을 잘 쓰지 않는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 조동종의 조계사라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본다. 〈동국대 70년사〉 등에도 이와 비슷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전국 사찰의 유사사례 등을 찾아 문화재청을 통해 즉각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의 혁명가 틱낫한이 전하는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지혜의 빛을 비추며 뜨거운 감동을 준 화제작 ★★★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 본래 모습 그대로 반짝이며 살라”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화제의 신간
틱낫한 | 유향란 옮김
286쪽 | 12,000원

오늘도 두려움 없이 7쇄
틱낫한 | 진우기 옮김
224쪽 | 12,000원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보라”



아무도 당신의 두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다.
오직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라.

죽음의 문제부터 일상의 두려움까지, 삶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틱낫한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인생의 가르침. 죽음이 두려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겁이 나는가?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이는가? 매일매일 삶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도록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틱낫한의 불꽃 같은 말씀.

김영사
TEL.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사람에 있습니다.

마음꽃을 줍다 송광사 승가대학장 덕조스님이 불일암에서 띄운 작고도 섬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덕조스님 지음 | 232쪽 | 12,900원

그런 깨달음은 없다 이 시대의 수행풍토에 일침을 주는 전설적인 마스터의 귀환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 김훈 옮김 | 344쪽 | 13,8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당대唐代 최고 지성인 배휴 거사와 황벽 선사가 마음에 대해 묻고 답한 진리의 문답
수불스님 지음 | 604쪽 | 25,000원

이것이 깨달음이다 구도의 안개 길에서 목도한 가장 뜨거운 질문과 소낙비같이 명쾌한 해답
백창우 지음 | 800쪽 | 28,000원

수트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을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불교의 바이블
비구 범일 지음 | 508쪽 | 27,000원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구름과 달과 더불어 만나는 고요한 찻자리
원학스님 지음 | 284쪽 | 18,000원



일 주 문



호국금강사 위령대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6월 25일 포천 육군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호국위령대법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32년째 위령재를 열고 있다.



교직원행복힐링 업무협약

현조 법주사 주지 스님은 7월 9일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법주사에서 '교직원 행복 힐링 연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비선사 템플스테이관 현판식

지운 성주 자비선사 주지 스님은 7월 17일 자비선사에서 템플스테이 전용 숙소 '호선당' 상량식 및 현판식을 봉행한다.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효경 대전 비구니청림회장 스님은 7월 18일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연다.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8월 7~8일 강화 전등사에서 한국불교학회 2015년도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명상과 리더쉽 특강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7월 16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부시장 및 부군수를 대상으로 명상과 리더쉽 특강을 한다.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김창겸 신라사학회 학회장은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제146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인사〉 이병두 진흥원 신임 사무국장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사진〉이 7월 1일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이병두 진흥원 신임 사무국장은 1955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불교담당 종무관 등을 역임했다.

화촉 윤창화 민족사 대표 영애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영애 효진양이 7월 18일 오후 6시 서울 잠원동 프라디아 예식장에서 화촉을 올린다. (010)5226-2149

"사찰음식으로 광주의 맛을 세계에"

광주U대회서 사찰음식 만찬 개최한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



대표단에 40종 사찰음식 선뵈
선수촌 내 불교종교관도 운영
"서구 육식문화 개선 계기로"

7월 6일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국 대표단이 증심사를 찾았다. 바로 사찰음식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스님이 있었다. 바로 만찬을 준비한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었다.

연광 스님은 "빛고을 광주를 찾아주신 많은 외국 체육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오랜 전통문화이자, 생활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은 200여 국가의 체육인들을 비롯해 통역을 포함해 300여 명이 모여 '세계야단법석'이 됐다.

이날 행사서 연광 스님은 참가국 대표단에게 전통사찰음식 40여 가지를 선보였다. 오이초밥, 야채쌈밥, 포교버섯튀김 고추장 소스 조림, 인삼매실 간장조림, 연근감귤조림, 야채장아찌, 김부각, 우엉튀김조림, 연잎유미죽, 사찰김치 등 종류가 다양했다.

연광 스님은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을 만들어 갔다"며 "특히 음식문화는 미래 인류의 가장 적합한 식단을 오랜 기간 보존하고 이어온 것은 또 하나의 인류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사찰음식 만찬에서 자연식을 접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전통과 함께 사찰음식을 전했으면 한다"며 "육식문화인 서구 사회에서 채식문화인 한국의 멋이 제대로 알리지길 바란다"고말했다.

스님은 "사찰음식 특징인 원재료를 담백하게 조리하고, 환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음식문화가 더욱 많은 세계인들에게 보급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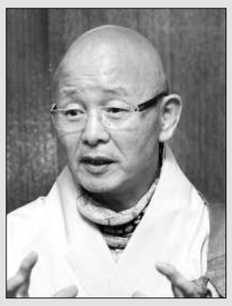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연광 스님은 "이번 대회는 광주에서 처음 치르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 외국인들에게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광주지역 불교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선수촌 내에 불교종교관을 운영해 매일 전통차, 명상, 연꽃만들기, 단주만들기, 지화연등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특히 주말을 이용해 무등산과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통사찰을 알릴 수 있는 영문책자와 홍보물을 구비해 불교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뜻에서 증심사는 광주시의 명승지 1호로써 이번 대회를 위해 영문으로 된 홍보영상을 만들어 유투브 등에 게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 스님 뜻 계승해 널리 알릴 것"

대각회 신임 이사장 혜총 스님… 임기 3년간



재단법인 대각회 신임 이사장에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선출됐다. 대각회는 7월 1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제232회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을 신임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각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혜총 스님의 임기는 오는 9월 12일부터 3년간이다. 혜총스님은 이사장 선출 직후 "이사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용성 조사의 수행 가풍을 현대 사회에 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1953년 통도사에서 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 범어사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으로 어린이청소년포교중심도량 인증제 도입, 신도교육 및 조직화, 전법단 출범 등 지역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교전략으로 종단 포교종책을 진일보시켰다.

현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 영세 농가 감자 전량 구입

관음종 복지재단 7월 9일 메르스 피해 농가 돕기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7월 9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소재 감자를 경작하는 영세 농가를 찾아 수확중인 감자 전량을 구입하는 등 농촌 사랑을 실천했다. 이 농가는 냉장저장 시설을 갖추지 못해 출하시기를 놓칠 경우 수확한 농작물을 전량 폐기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 자리에서 홍파 스님은 감자수확으로 땀 흘리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었다.

홍파 스님은 "메르스가 끼친 경제적 영향은 영세상인과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가뭄 등으로 인하여 수요부족을 겪고 있는 농산물 분야다. 불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왼쪽서 두번째)이 7월 9일 충남 서산의 영세농가를 찾아 농산물을 구입하며 농촌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구입한 감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등에게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관음종은 전국 사찰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 특별참회기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농촌돕기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울산 등룡사 승가교육기금 기탁



울산 등룡사 주지 본명 스님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실에서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승가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명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금강경 야부송 대강설



서울 봉은사는 7월 5일 주지 원학 스님이 펼치는 '금강경 야부송 대강설'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부회장 이경규 씨, 불자 개그맨 이윤석 씨 등 10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원학 스님은 "행복은 지혜의 공덕을 쌓을 때 생긴다"며 "〈금강경〉을 한번 한번 소리내서 읽을 때마다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공경심과 '못 깨치면 죽는다'고 하는 일념으로 하게 되면 기도 발원대로 각 가정의 행복이 절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교원 보직자 임명장 수여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7월 3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한의대 및 의대 학장 · 부학장 보직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의대 학장에는 박용기 교수, 부학장에는 김호준 교수가 임명됐다.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에는 남경수 교수,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문일수 교수, 교육부학장 이해원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에는 서정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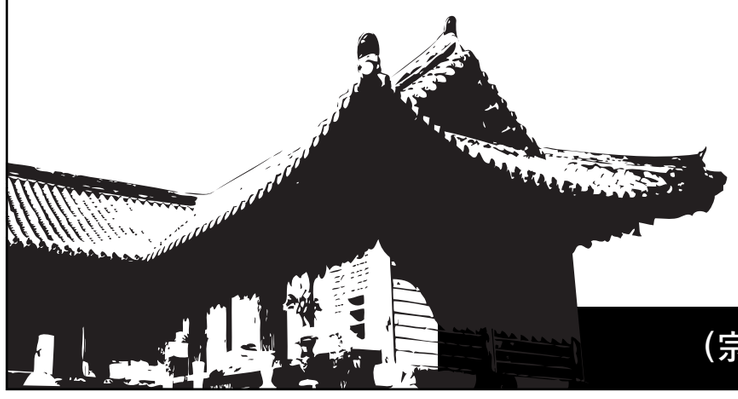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백제불심 되살려 불교문화 꽃 피우자”

공주·부여·익산 사암련 연계 “포교 프로그램 모색”
개발계획 추진 이면에 ‘보존 중시’ 목소리도 높아

한국에서 12번째로 세계유산 반열에 오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 한중일의 교류와 발전, 그리고 백제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백제불교 문화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에는 공주 · 부여 · 익산의 백제유적지 8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사찰은 공주 30여 곳, 부여 50여 곳, 익산 50여 곳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불심이 되살아 나기를 바라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는 등재 권고 보고서에 ‘보존관리계획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종합계획을 포함시키고 실행해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무엇보다 당시 백제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존과 복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륵사지 2017년 복원추진 지역 반발도

익산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이번 등재과정에서 평가받았다. 백제 무왕은 익산을 국가의 새 중심지로 낙점해 백제 중흥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학계에서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주춧돌 등을 미뤄 경주 황룡사 보다 큰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195억원을 투입, 석탑 시멘트 제거, 해체 및 발굴 조사, 보수 정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2월 6층까지 석탑 조립공사 완료가 결정된 가운데, 미륵사지 수리 및 복원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993년 미륵사지석탑 건너편에 세운 동탑은 하얀 화강암을 기계로 깎는 바람에 기존 석탑과 부조화가 심하고 현대에 만들어진 석탑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실패한 복원’ 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는 무너진 서탑의 복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초에 9층 석탑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6층만 남아있던 이 서탑을 주민들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9층으로 완전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행식 마한백제문화유적복원 추진단장은 “익산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시민들이 9층 복원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문화재위원인 회일 스님(참좋은우리절 주지)도 “백제가 패망의 역사이다보니 미륵사지 석탑 또한 무너진 모습으로 남아있다. 무너진 폐허의 모습으로 된다면 미륵사지 석탑은 천년만년 패배의식을 재생산하는 상징물만이 될 것”이라며 9층 복원을 주장했다.하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은 9층 복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용 학예사는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복원 수리 전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복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맡은 이코모스(ICOMOS)가 문화재청이 제시한 6층 부분복원안에 기반해 등재를 결정했기에 정부의 부분복원 계획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몰려오는 관광객, 석탑 보존 영향은?

백제 가람의 표본으로 평가 받는 부여 정림사지는 1탑 1금당식 양식으로 같은 양식이 시텐노지(四天王寺) 등 일본 고대사찰에 쓰여 백제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상징하는 곳이다.

현재 정림사지에는 오층석탑과 석불좌상 만이 원위치를 지키고 있다.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사비도성 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석탑이라는 점과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림사지 석탑은 한때 기단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지고 석탑 자체가 뒤틀렸다는 지적이 나와 문화재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일이 있다.

2014년 8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수조사에서도 특별조치가 필요한 4등급 이하에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와 안동하회마을 등은 관람객이 2~3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학자 홍재선 씨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경우 두 돌로 이뤄진 지붕돌받침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양쪽으로 쳐져 있다. 작은 충격에도 4층 옥개석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네스코가 ‘적정한 관광객’ 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 수익을 통한 보존의 원할함과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존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원을 위해 해체된 익산 미륵사지 전경. 왼쪽 상단에 서탑의 모습이 보인다. 140 여 지역사찰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불심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2017년 복원 완료 예정인 익산 미륵사지 동탑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개별유적이 아닌 백제라는 왕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부각하는 작업도 함께 과 함께 문화재 보존 복원에 대한 철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52년 설립된 이래 일본 고대 도성 나라(奈良)의 연구 복원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한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예로 들면서 “유산의 원형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에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불교계 “불심 일으킬 기회” 반색

지역불교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불심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륵사지와 관련되 익산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복원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 지역 불자들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가기로 했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림 스님(관음사 주지)은 “호남 지역은 불심이 약하다는 평이 있어왔는데 이번 등재를 계기로 호남지역 불심이 활활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림 스님은 현재 매일 관음사에서 미륵사지 복원 완료시까지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덕림 스님은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인 미륵사지 동탑 복원을 알리는 준공식에 맞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며 “미륵사지 사리장엄박물관과 지역 사찰, 수도권 사찰의 성지순례 연계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도 “이미 미륵사지와 능산리 고분군 방문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교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불교계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템플스테이 사찰이 부여지역에도 나오기를 기대했다. 부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동국 스님(금지암 주지)은 “아직 부여지역에는 템플스테이 사찰이 없다. 본사인 마곡사 등과 연계해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부여읍내의 사찰들이 매달 1회씩 정림사지에서 공양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의 움직임과 불교계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중하 스님(신원사 주지)도 “그동안에 사암련합회가 등재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기원 및 발원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온 결과”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등재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관광벨트 계획 등이 수립되면 지역불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해당지자체와 문화재청은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해당지자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2016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덕현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사찰은?

익산 사자암

〈삼국유사〉에는 ‘무왕은 선화비와 함께 용화산 ‘사자사’ 의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 이라는 기록이 있다. 사자암(주지 향봉)은 미륵사지의 뒤편인 미륵산에 위치하고 있는 절로 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師子寺)’ 라고 쓰여진 기와가 발견됐다. 암자 바로 밑 석굴에는 많은 소동불(小銅佛)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익산 석불사

석불사(주지 휴암)는 한국불교화엄종 본산으로 창건연대는 백제무왕 7세기 전반에 미륵사 창건에 앞서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불사 석불좌상은 얼굴 부분이 파손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칼로 얼굴을 내리쳤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익산 숭림사

숭림사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眞表) 대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보광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탔지만 1697년(숙종 23)과 1819년(순조 19), 1892년(고종 29) 각각 전각을 중수했다. 보물 제825호로 지정된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부여 고란사

백제고찰로 1028년 현종 19년에 중창됐다. 절의 뒤뜰 커다란 바위틈에는 고란초가 촘촘히 돋아나 있고, 왕이 마셨다는 고란수의 고란샘터가 있고, 주위에는 낙화암 · 조룡대 · 사비성 등이 있다.

궁중 내불전 이라는 설과 함께 고려시대 백제 후예들이 중창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부여 대조사

부여 성흥산 자락에 위치한 대조사는 백제 성왕 때 담혜 스님이 창건했다. 부여읍지에는 겸익이 세운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 노승이 바위 아래서 수도하다 잠들었는데 관음조를 보고 잠에서 깨니 바위가 미륵보살상으로 변해있었다고 하여 대조사로 이름붙여졌다.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보물 217호이다.

부여 미암사

백제시대 지어진 암자형 사찰로 백제무왕 4년 관륵 스님이 창건했다. 미암사 초입에는 196개 금불상이 모셔진 33층의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다. 경내 쌀바위 때문에 미암사라 이름붙여졌다.

절벽을 이룬 암벽에서 쌀이 나온다고 전해진다.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 308쪽 | 15,000원 | 민족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패널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족사 02.732.2403~4





지난 7월 7일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서울 구로구 미래초등학교를 찾아 '사찰음식과 학교 급식의 만남'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재 스님이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



7월 8일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체육관에는 1~4학년 학생 4백여 명이 모여 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급식에 앞서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처님 올바른 식습관 '학교로' 가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서울시 10개 초등학교서 사찰음식 '포교'

사찰음식 통해 식문화 개선 나서
어린이 뮤지컬 · 학부모 강연 '맞춤'
"편식 부모 탓… 음식이 인성 좌우"

아이들에게 사찰음식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하는 한편 생명존중 사상까지 한 번에 포교하는 곳이 있다. '사찰음식과 학교 급식의 만남'이다.

사찰음식은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채식단으로 구성돼 '생명존중사상'이라는 불교적 가치가 내포돼 있다.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은 사찰음식의 이 철학적 의미를 교육해 식문화를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대상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을 이끌고 있다. 어린이 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를 위한 음식은 생명' 강연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선재 스님은 "아이의 건강은 바로 우리의 미래다.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편식과 음식남기기가 습관인 아이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가르쳐 '자연과 내가 곧 하나'라는 것을 일깨우는 데서 출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토양이 오염되면 땅에서 자라는 생명이 오염되고, 결국 그 채소를 먹는 사람이 오염되는 '공생 공존'의 순리를 가르친다. 이로써 스스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8일에는 서울시 노원구 노일초등학교서 사찰음식과 학교급식 다섯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학부모 강연서 선재 스님은 "육류와 파 · 마늘 등 오신채(五辛菜)는 자극이 강해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에 불가에서 금한 음식이다. 음식이 성품을 만드는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체육관에서는 1~4학년 400여 명 대상으로 뮤지컬을 선보였다. 선재 스님이 직접 극본을 쓴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은 〈서유기〉 주인공 삼장법사 · 손오공 · 사오정 · 저팔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편식, 잔반남기기 등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동시에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뮤지컬 관람 후 3학년 이예서 학생은 "농부 아저씨들의 고생을 생각하며 밥 한 톨 남기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엄기윤 학생은 "채소를 싫어했는데 이제 시금치랑 김치도 잘 먹을 것"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특히 뮤지컬 관람 후에는 전교생 점심 급식으로 사찰음식을 제공한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연구원이 각 학교 급식실에 파견돼 영양사들에게 레시피를 직접 전수한다. 채소 섭취가 적은 요즘 어린이들을 위해 두부채소볶음밥, 참외무침, 된장표고버섯튀김, 버섯야채잡채, 양배추흑임자무침 등 어린이 맞춤 식단으로 구성했다.

앞서 7월 7일 점심급식으로 사찰음식을 제공한 구로구 미래초등학교 김선화 영양사는 "평소와 달리 고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터라 남기지 않고 잘 먹었다"며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는 건강과 함께 인성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에 가까운 사찰음식을 자주 접해 밝은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이번 사업을 공동 주최한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김선희 주무관은 "음식이 생명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사찰음식을 하나의 전통음식문화로 보고 아이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전하고자 했다. 학교마다 반응이 뜨거워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은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관을 비롯해 강남구 법룡사, 수원 봉녕사, 화성 신흥사 등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사찰이 아닌 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전미영 사무국장은 "부처님의 음식철학을 일반 학교서 포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찰음식은 불교의 생명존중 교훈과 함께 식생활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 교계가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재 스님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희망도 내비쳤다. 선재 스님은 "여력이 된다면 '사찰음식 체험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불교의 생명관을 더욱 심도 있게 가르쳐 아이들에게 올바른 음식문화를 포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월 9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서울시 10개 학교서 진행하는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은 △친환경식재료 70%이상 사용 △가급적 전통장류 사용 △학교 자체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참선의 경지를 한 단계 UP… 한국문화연수원 '여름참선심화과정'

8월 13~16일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지도

한국문화연수원이 2015년 여름 참선심화과정인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개설한다.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연수원장 구과 스님)은 8월 13~16일 3박 4일 동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여름 참선심화과정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운영한다.

시민선원 등에서 참선을 경험하거나 입문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참선심화과정은 첫날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발심법문을 시작으로 화두정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혜국 스님은 발심을 독려하고 참선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의 소참법문과 참선위촉교수인 박희승 교수의 특강, 백범명상길에서 진행하는 행선과 중간면담의 시간 등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문화연수원은 2010년부터 총 15기수의 500여 참선입문수료자를 배출했다. 참선입문과정은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국문화연수원 측은 "참선프로그램은 불교의 수행프로그램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본향을 찾는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교원인증 인성프로그램 공모

홍보 · 운영 관한 자문 지원 혜택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인성프로그램 종단 인증제를 시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3일~8월 12일 포교원인증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사찰 · 단체 · 기관 등에서 운영 혹은 운영 예정 중인 인성프로그램에 대한 종단 인증제 시행이다.

포교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된다. 리플릿 등 홍보물에 '포교원 인증 프로그램'이 명시될 뿐 아니라 포교원 발간 〈청소년인성인증프로그램 가이드북〉 게재, 포교원 주관 · 주최 행사에 해당 프로그램 정보 제공, 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포교원과 공동 사업 전개 등 특전이 주어진다.

포교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개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성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운영 표준화를 마련키 위함"이라며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종단 인증 심의를 시행하고 포교원 회의 부의를 거쳐 인증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을 밝혔다.

참가신청서 등 접수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등기 우편 또는 메일(koseulki@buddhism.or.kr)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011-1911

박아름 기자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당선작 발표

대상, 영석고2 박세원 · 서일여고3 이혜원 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주최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당선 결과가 발표됐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지난 4월 27일~6월 26일 개최한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박세원(영석고 · 2학년)양, 봉축위원장상 이혜원(서일여고 · 3학년)양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불교신문, 한국청소년협의회 후원으로 파라미타가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은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34개 단체 작품 중 4백여 점이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특선 10명 △ 장려상 10명 △입선 30명 등 총 60여 작품이 당선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과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이 나섰다.

김경호 심사위원장은 "오타나 탈자, 그림이 주가 돼 주객이 전도된 작품은 엄격히 제외했으며 서체의 창작과 개성, 회화와 경문 내용의 일치를 수상기준으로 삼았다"며 "해가 거듭되며 더욱 다양한 우수작품들이 출품되는 것을 보며 사경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려시대 선조들의 빛나는 위업과 전통이 오늘날 재창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들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원어민과 사찰서 뛰어 노는 어린이캠프

비로자나국제선원, 8월 1일~4일 화엄사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심성개발 여름캠프가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이하 국제선원)은 전남 구례 화엄사서 8월 1일~4일 자우 스님과 함께하는 제9회 신나는 영어담마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We are One! 우리는 하나'이다. 어린이들에게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지시켜 자주 · 협동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다.

자우 스님은 "요즘 어린이들은 학업 또는 스마트폰, 게임기에 빠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회성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며 "아름다운 사찰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하는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아의 소중함, 나아가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어캠프답게 영어 이색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노래 'Three poisons'과 함께하는 마음청소 콘테스트 △영어 일기 쓰기 △영어로 부모님을 소개하는 '엄마, 아빠가 짱!' △영어 미션 보물찾기 등이 마련돼 있다.

박아름 기자

국외유출 범어사 칠성도
환수를 축하합니다.



환수된 범어사 칠성도(1861년 제작)

회장 수진

상임부회장 원범

부회장 범산, 지현, 정현, 화랑, 상화, 정산, 심산, 혜성, 유정, 진효, 호법, 혜도

감사 진수

사무총장 목종 교육원장 하림 포교원장 범천
사무국장 정관 기획국장 인해 교육국장 도명
포교국장 보연 사회국장 석산 호법국장 일철
문화국장 주석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부산 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7(거제동) 전화_ 051)501-7554 팩스_ 051)501-9333

공 고

(사)국제불교승가회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활동, 이 · 취임 또는 임명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본 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의 동의 또는 인정, 승인 없이는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아 래 –

1 단체 명칭 사용 (유사 명칭 포함)
2 수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3 창시자 동암스님과 관련된 모든 사항
4 법계수여, 임명, 이 · 취임 (종단지부 등 또는 회원가입)의 관련된 모든 업무

2015년 7월 6일

(사)국제불교승가회 이 사 장 송애자
부이사장 윤병권
이 사 이 황 外 7인

"소원을 말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행,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 위시박스 눈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해의 강수민(11세 · 가명) 양은 할머니와 맛있는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평상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사진작가가 꿈인 대구의 박지현(16세 · 가명) 양 역시 카메라를 갖고 싶었지만 시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가정 형편상 꿈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서 실시하는 '위시박스'의 도움을 받은 결과였다. 외식상품권을 받고 할머니와 즐거운 외식을 한 강수민 양은 동행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보내주었고 박지현 양 역시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뜻을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 중인 '위시박스' 신청이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으로 시작된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원을 신청 받아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은 "청소년들의 자기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자신의 꿈에 한발 짝 다가가고자하는 전국 청소년들의 신청이 약 150여 건 접수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청 품목도 다양하다. 자전거, 축구화, 한복, 재봉틀, 책가방 등을 착한 선물로 지원했으며, 접수된 사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청자들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금연주가가 꿈인 서울 은평구 박가연(19세 · 가명)양은 지난 5월 위시박스에 선정되어 한복을 선물 받았다. 가연 양은 1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해금을 배우며 정서적 위안을 받았다.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대회에 나가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한복, 카메라, 자전거, 축구화 등 품목 신청하면 선별해 선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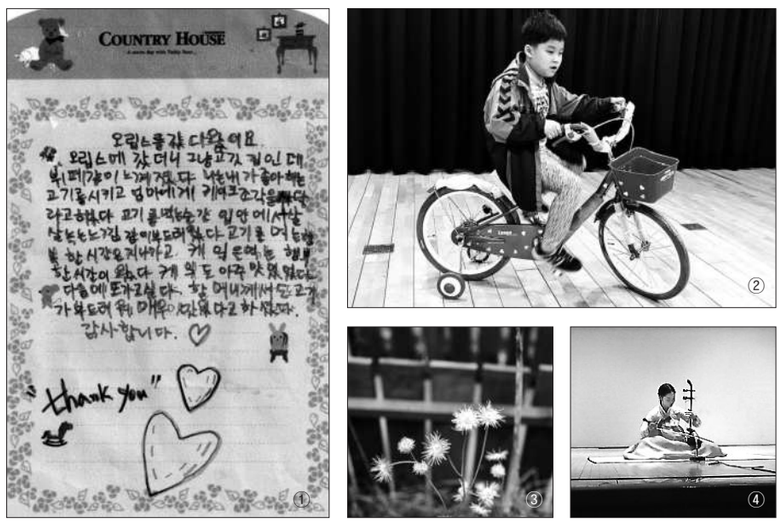
300여 명 몰리며 뜨거운 관심

박가연 양은 "그동안 대회에 입고 나갈 한복이 없어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을 입고 대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선물 받은 예쁜 한복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준 희망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힐튼스포츠(대표 최진규)에서 1천만원 상당의 자전거 50대를 지원 받아 불교계 아동 · 청소년 시설 9곳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설물 받은 서울 노원구 이민우(18세) 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머니께 자전거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다. 이제는 자전거로 등하교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매월 위시박스 신청자가 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신청자에 비해 많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아쉽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착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모자가정 지원 캠페인 '위시박스'는 한평생 홀로 삼남매를 키워 온 여성 기부자가 3천만 원의 유산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자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유언에 따라 선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매달 말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자는 다음 달 1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02)737-952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아름다운 동행의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원을 신청 받아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①은 외식상품권을 받은 학생이 보낸 감사의 손편지, 사진②는 자전거를 선물 받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의 회원, 사진③은 사진작가가 꿈인 학생이 카메라를 선물 받고 보내온 사진, 사진 ④는 해금연주가가 꿈인 학생이 한복을 선물 받고 공연하는 장면.

지구촌공생회, 메마른 캄보디아에 감로수를

상반기 타페임면에 우물 36기 신규 건립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36기를 건립하면서 2015 상반기 식수사업을 마무리했다.

캄보디아 타페임면의 주요 수자원인 빗물, 연못, 하천, 재래식 우물의 물은 건기에는 부족하고 타 단체에서 지원받은 핸드펌프 중 90%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36기의 우물을 건립한 지구촌공생회는 "이번 우물 건립으로 2천7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수질 환경이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1년의 절반 이상이 우기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비소 함유로 마실 수 있는 물은 부족하다.

그래서 캄보디아 80%인구가 거주하는 시골 지역 인구 절반은 안전하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오염된 물로 수인성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800명 이상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그동안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우물들은 사후관리가 부족해 우물이 폐쇄되고 지하수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우물 건립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 철저하고 꾸준한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물 사용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하반기에는 12개 마을에 38기의 우물을 건립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전해줄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 따께오주 타페임면 21개 마을에 36기의 우물을 완공한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2천204 기의 우물을 건립에 이르게 되었다.

정혜숙 기자



지구촌공생회는 올 상반기 캄보디아 따께오주 타페임면 21개 마을에 36기의 우물을 완공했다.

생명나눔,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발대식

의대생들로 구성, 자살 예방 캠페인 펼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 발대식을 7월 5일 진행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7월 5일 생명나눔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사무총장 미수 스님을 비롯한 따숨 회원 7명이 참석했다.

'따숨'은 '따뜻한 숨결'이라는 의미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활동가 모임이다. 따숨 1기 회원 8명 모두는 의과대학 학생들로,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 의대생 연합모임 메디키퍼(Medikeeper) 소속이다.

도연수 지원팀장의 개회사 선언으로 시작된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회장 김동욱 학생과 부회장 강민수 학생의 선서식으로 마무리 됐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웃음치료 전문강사 윤경필 교수의 '웃음과 건강, 그리고 힐링' 강연이 이어졌다.

따숨 1기는 앞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 후, 약 5개월 간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동영상 제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미수 스님은 "따숨 학생들이 단체명을 스스로 정하고 로고도 직접 만드는 등 시작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정혜숙 기자**

영통복지관 반달도서관 인문학 강좌 진행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3년 연속 선정된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학수) 반달어린이도서관이 '다산 정약용'에 관한 강연을 비롯해 관련 현장체험 탐방 등의 시간을 마련한다.

1차 길 위의 인문학은 7월 30일부터 시작하며, 가족단위의 행사로 진행된다. 한국음악학 박사 김세종 교수와 함께하는 '아학'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수원화성과 다산생가를 탐방하게 된다.

2차 길 위의 인문학은 10월 29일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 읍성에서 만나는 다산의 유배문학'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단위로 모집하며, 2차 참가신청은 10월 1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031)201-8350

정혜숙 기자

대인관계 중요성 배우며 심신 단련

목동청소년수련관 '엄친아' 7월 30일부터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2015년 친구관계향상 프로그램 '엄.친.아(엄청 친해지고 싶은 아이)'를 7월 30일~8월 22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자아형성과 대인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심신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친구관계'라는 발달과업을 돕기 위한 하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특히, '나를 알고, 너를 알기'와 같은 프로그램 회기를 만들어 학교생활 및 친구사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성격유형검사인 MBTI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간단한 심리상담 및 게임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고 타인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교양교육, 인성교육, 신체활동, 공동과제 등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친구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 1인 만원이며, 수련관 홈페이지(www.wawa.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2642-1318 **정혜숙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고정 관념 버리고 세상의 법문에 귀 기울여야”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

반산 스님(쌍계총림 쌍계사승가대학장)

〈화엄경〉의 입법계품에는 진리를 찾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 법문을 듣는 과정이 담겨 있다. 쌍계사승가대학장 반산 스님은 7월 5일 법왕사 백고좌법회에서 세 선지식을 소개하면서 불교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향을 다룰 줄 알았던 육향 장자, 뱃사공 일을 했던 바시라 선사, 세상에서 지혜를 닦아 경지에 이른 무상승 장자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배워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내가 가진 생각이 최고라거나 나의 가진 것이 제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고정관념을 버려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큰스님들께서 산에 살다 뱀을 만나면 ‘대방광불화엄경’ 일곱 번을 하면서 ‘인도환생(人道還生)’ 즉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축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입법계품이란 ‘부처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 는 뜻으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 친설이 아니고 대부분 보살들이 대신 설하고, 입법계품 한 품에서 53분의 선지식이 돌아가면서 설법을 합니다. 삼귀의 입정하고 설법을 하지요. 문수보살이 선재동자를 만나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갖 분들에게 배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결국 팔방미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입법계품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선지식 만나는 과정 담겨

이것을 ‘만행성불(萬行成佛) 공덕성불(功德成佛)’ 이라 합니다. 세상에 살다보면 돈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 가족 편안하게 하면 잘 사는 것이라 하겠지만 불교집안에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최고라거나 나의 가진 것이 제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탁발승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중중 까까중’ 하고 놀리고, 어떤 애는 돌 던지고 하는데 저는 저만치서 저애들이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탁발승이 저를 부르시더니 종이에 무엇을 써서 주는 거에요. 이렇게 펼쳐보니까 ‘나무묘법연화경’ 일곱 글자였어요. 이 글자를 자꾸 외우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출가하기 몇 년 전에는 ‘남묘호랭게교’ 하는 니치렌종에 인연이 되어서 거기 몇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 계기로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를 만났어요.

입법계품에는 수많은 선지식이 출현하는데 스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이 아주 넓지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동 곧 행원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두려움이 없지만 코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속이나 절집이나 지혜와 복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또 하나의 화신입니다. 선재동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날 태어납니다. 그러니 복덩이가 태어난 거지요. 대승불교 경전 특히 화엄경을 만나려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야 해요.

저는 열차사고를 당해서 발을 다치면서 출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세속적으로 근심 없이 돈벌고 살다가 IMF를 만나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절에 출가행자도 많았습니다. 그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처님 만나는 인연일 뿐이지요.

잠시 ‘제14,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을 보겠습니다. 합장 하시고 읽겠습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 받으면서[寧受地獄苦]/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得聞諸佛名]/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不受無量樂]/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而不聞佛名]”

화엄경은 입법계품 많은 부처님의 능력을 골고루 전해주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오늘 법문에서는 53선지식 중에서 ‘육향 장자’ , 바시라 선사, 무상승 장자 이렇게 세 명의 선지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육향 장자와 바시라 선사

스물두번째 선지식 육향 장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은 좋은 향기를 풍기죠. 땀 냄새 속에 그 사람 업이 들어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세상을 아는 장자가 육향 장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사는데 땀 냄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힘든 땀이 ‘식은 땀’ 이지요,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건강한 땀’ 과는 다릅니다. 스님 옷에는 법당의 향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향을 파는 육향 장자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알고, 또한 모든 향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서 온갖 지혜를 내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선재 동자의 질문에 대해 육향 장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알며, 모든 향을 조화하여 만드는 법(調和香法)을 아노니, 이른바 모든 향 · 모든 사르는 향 · 모든 바르는 향 · 모든 가루향이며, 이런 향이 나는 곳도 아노라.…이런 향의 형상과 생기는 일과 나타나고 성취함과 청정하고 편안함과 방편과 경계와 위덕과 작용과 근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달하노라.”

그 다음으로 바시라 선사는 배를 젓는 뱃사공입니다. 이 언덕에서 사는 중생을 저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실어다 주는 일을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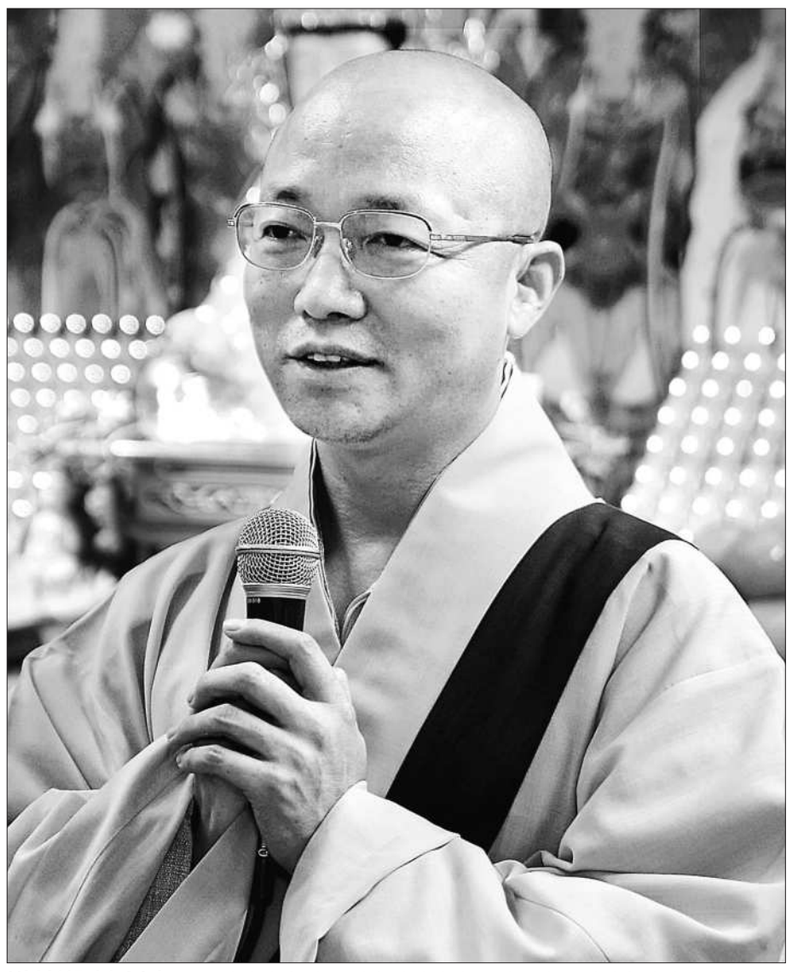
세조대왕이 한 때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를 만나서 등을 밀어 달라고 했을 때 동자에게 “너는 이곳에서 왕의 등을 밀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자가 세조대왕을 보고 말하기를

> **향을 모두 통달한 ‘육향 장자’**
> **불법 바다에 이른 ‘바시라 선사’**
> **세상서 지혜 닦은 ‘무상승장자’**
> **“여러 선지식 만나는 경험 통해**
> **불법 지혜 만나는 계기 마련해야”**

“대왕이시여, 혹시 누가 묻거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절법이 엄했는데, 세속에서 왕이지만 절에서 공양을 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공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벼슬이 높고 부귀영화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절에 들어와서 불교 진리를 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건강할 때는 자신의 목숨 엄청 아끼지요. 그런데 그 아까운 목숨을 자신이 열 받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알아서 버리지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구차스럽게 살면 고생만 할텐데 좀 먼저 죽는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세속적인 생각이고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멸론이에요. 내생을 믿지 않으니까요.

바시라는 ‘자재’ 라 번역하는데 이른바 부처님 법의 바다에 이미 잘 통달하여 나고 죽음의 바다에 능히 잘 건너다니고 온갖 법에 깊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로 ‘자재’ 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누각성에



반산(盤山)스님은 … 해인강원 및 중앙승가대학과 조계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을 졸업했고,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강사를 거쳐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봉선사 교무국장, 교육원 역경위원, 행자교육원 교수사 등을 지냈다. 현재 양산 원각사 주지, 쌍계사승가대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경청량소〉 〈재미있는 금강경강의〉 〈재미있는 화엄경〉 등이 있다.

있는 것은 불괴회향(不壞廻向, 굳은 믿음을 중생에게 돌려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의미)로 ‘보리심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의지해서 특출하게 뛰어났습니다.

바시라는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을 크게 가엾이 여기는 ‘당기의 행’ 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염부제에 있는 빈궁한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이익 되게 하려고 보살의 행을 닦으며,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케 했습니다.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환희케 하며,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늘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보리의 원을 깨끗하게 하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단단하게 해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해 모든 중생을 거두고, 모든 공덕을 닦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법을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게 하여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갖가지 일을 끊어버리다

스물 네번째 선지식 ‘무상승 장자’ (無上勝 長者)는 부처님의 십호 가운데 여래 응공정변지 ‘무상사’ 가 있지요 무상승 장자도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닦아 최고가 되신 분입니다. 선재동자는 성의 동쪽 크게 장엄한 당기 근심 없는 숲(大莊嚴幢無憂林)에서 무상승 장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량없는 상인들과 백천 거사들이 무상승 장자를 둘러쌌는데 인간의 갖가지 일을 끊어 버리는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을 아주 뽑고 나와 내 것을 여의게 하며, 쌓아 둔 것을 버리고 간탐한 때를 없애며, 마음이 청정하여 흐리고 더러움을 없애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 장자는 선재동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至一切處修菩薩行淸淨法門인 無依無作神通之力)’ 을 성취하였노라. 착한 남자여, 어떤 것을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하는 문(至一切處修菩薩行門)이라 하는가? 착한 남자여, 나는 이 3천 대천세계의 욕심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으로 이른바 모든 33천 · 모든 수야마천 · 모든 도솔타천 하늘과, 마을과 성중과 도시의 모든 곳에 있는 중생들 가운데서 법을 말하노라.”

무상승 장자의 법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른 법을 버리고 △다툼을 쉬고 △싸움을 제하고 △성냄을 그치고 △원수를 풀고 △속박을 벗고 △옥에서 나와 공포를 없애고 △살생을 끊으며 △삿된 소견과 나쁜 짓과 하지 못할 일을 모두 금하게 하며 △모든 착한 법을 순종하여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닦아 익히어 모든 세간에서 이익을 짓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갖가지 언론을 분별하여 환희심을 내고 점점 성숙하게 하며 △외도를 따라서 훌륭한 지혜를 말하며 △모든 소견을 끊고 불법에 들어오게 하며 △형상 세계의 모든 범천에서도 그들에게 훌륭한 법을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착한 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이 수행하는 청정한 법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한 힘을 알거니와, 저 보살 마하살들이 모든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추고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이르며, 넓은 눈의 지위를 얻어 모든 음성과 말을 들으며, 모든 법에 들어가 지혜가 자재하며, 지혜의 몸이 광대하여 세상에 두루 들어가며, 경계가 끝이 없어 허공과 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박사가 많지만 박사란 자기가 연구한 분야만 넓게 아는 분입니다. 메르스에는 의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진 사람은 가진 자랑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 부처님 팔아서 법당 지어놓고 법당 옆에서 고스톱 치다가 걸려서 망신당하고 구속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법시대에는 불자님들이 좋은 도량인가 아닌가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선지식이고 정말로 포교에 전심전력 하는지 아닌지를 가려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자신 있는 법문은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법문을 듣고 나서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고집부리지 않아야 발전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다보면 어려운 화엄경도 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속담 한번 읽어볼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위에 뫼이로다!/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법왕사 좋은 도량에서 대구 신도분들 불법과 인연 맺어주시려고 실상 주지스님 이렇게 애쓰시는데, 다음에는 오실 때 많은 친구분들 모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포교사가 되시기 바라면서 법문을 마칩니다.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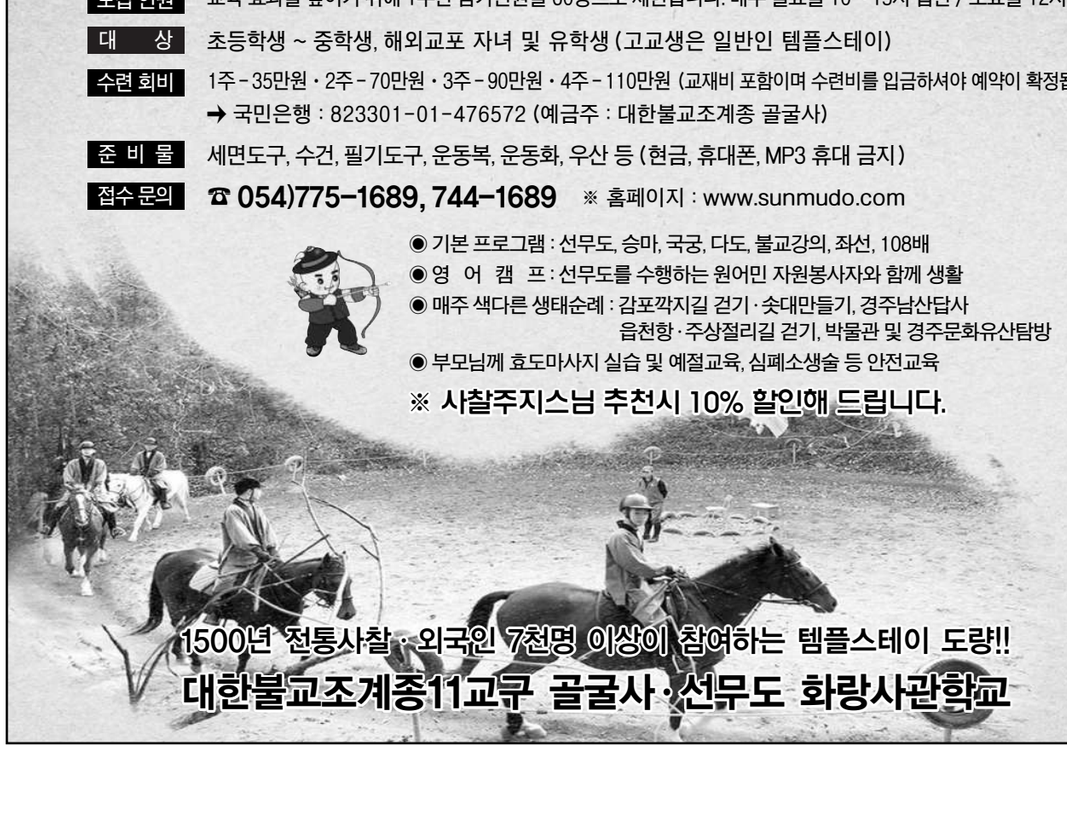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7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5년 7월 26일 ~ 8월 22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해외교포 자녀 및 유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사찰주지스님 추천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7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계율 제정 참의미 알려면 빨리 율장을 보라"

전재성 회장, 우리말 〈빅쿠 · 빅쿠니비방가〉 펴내

불교에서는 승려가 오신채(五辛菜) 중 하나인 마늘을 먹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부처님 당시 언어인 빨리어로 된 계율에는 비구와 비구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 승단에 한 농부가 밭에서 나는 마늘을 보시했다. 농부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이 마늘밭에 있는 마늘을 모조리 가져갔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농부가 수확할 마늘이 없으니 마늘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또 하루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위해 법회를 열었다. 법회 한 쪽에서 입안에 마늘을 씹고 있는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 마늘 향기에 대중들이 설법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마늘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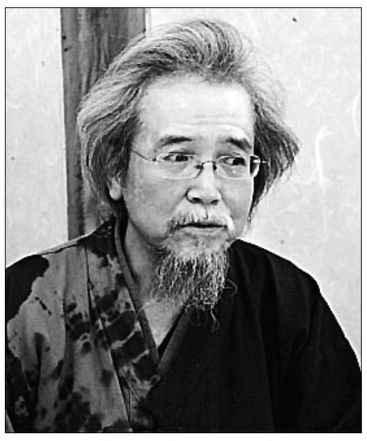
이 두 일화는 각기 보시받은 물품을 과도히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과 법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대중들을 배려하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율에는 비구와 비구니는 모두 마늘을 먹지 말라는 짧은 내용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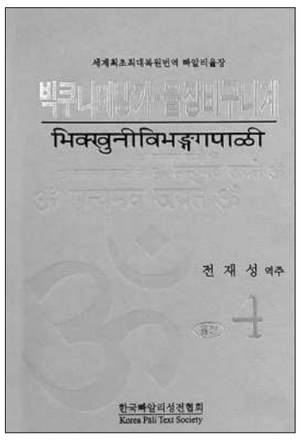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오롯이 담은 빨리 율장이 최초로 완전 복원 번역됐다.

전재성 한국빨리성전협회 회장은 7월 7일 종로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빅쿠 비방가-율장 비구계〉와 〈빅쿠니 비방가-율장 비구니계〉 등 2권의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부처님 당시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 2백 27가지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3백 11가지를 한글로 번역돼 담겼다. 전재성 회장은 지난 2014년 빨리 율장 1권 〈마하박가-율장대품〉과 2권 〈쫄라박가-율장소품〉을 펴낸데 이어 1년간의 작업으로 빨리 율장을 완역했다.

부처님 상황따른 개차법 전해
현대 율장 오해 소지 많아
"계율, 2500년 승단유지 큰 역할"





전재성 회장은 빨리 율장 번역본 출간에 대해 부처님 당시 율법이 나오게 된 전후과정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전 회장이 펴낸 〈빅쿠니비방가〉.

전 회장은 "빨리 율장은 엄격성뿐 아니라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 불교 승단이 2천 500년 넘게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에 따르면 계율에는 상황에 맞는 유연성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 한 마을에는 아이들만이 남아 출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승려들이 수행과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부처님은 15세 미만 아이는 출가를 금지하는 계율을 남겼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함께 '까마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챙길 수 있는 아이들은 출가를 허락했다.

전 회장은 계율은 딱딱한 규칙이 아닌 상황에 맞춰 발전했다고 말한다. 처벌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계율에서 초범인 경우 심각한 중대 범죄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로 처리하도록 했고, 스스로 죄를 크게 뉘우쳐도 무죄로 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회장은 "계율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빨리 율장은 인류 최고의 민주적 헌법이라 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현대 불교계에서의 율법은 너무 어렵기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 계율이 아닌 사회법에 기반한 종법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빨리 율장을 읽고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뢰야식은 DNA로 볼 수 있는가?

불교평론, 7월 열린 논단서 '생명과학과 불교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열린논단 7월 모임이 7월 16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DNA와 아뢰야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린논단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논사로 나선다.

유식에서 8식인 아뢰야식은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식으로 장식(藏識)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생명의 근원인 DNA와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불교학계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다.

우희종 교수는 이러한 연구에 반해 DNA가 제7식인 말라식과 가깝다고 밝힌다. 말라식은 심층의 자아의식으로 제6식인 의식의 발현에 개입한다. 우희종 교수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로서 생명현상은 이 유전자의 표현형식이라는데 착안한다.

우희종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이에 관한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교평론 측은 "성급한 추론이지만 'DNA와 아뢰야식은 유사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부를 더 깊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세종 우수도서에 불서 4종… 1400곳 배포

2015년 선정결과, 총류 1종, 종교 2종, 역사 1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6월 26일 선정 발표한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에 불교관련 도서가 총 4종이 포함됐다.

세종도서는 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판 출간된 3851종의 도서 중 10개 분야 320종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도서는 종당 1000만원 이내 도서가 구입돼 전국 공공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1400여 곳에 배포된다.

우수도서에 선정된 불교관련 도서는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유부현, 시간의물레)(총류분야)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정준영 외 7인, 도서출판 운주사)(종교분야)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김광식, 도서출판 선인)(종교분야) △〈삼국유사 1~3〉, (일연 · 최광식 · 박대재, 고려대학교출판부)(역사 · 지리 · 관광 1종) 등 4종이다.

노덕현 기자

故김상현교수 추모 국제석학 강연회 열린다

7월 28일 日이시이 코세이 · 노르웨이 박노자 박사 등 나서

불교사학계를 이끌었던 故김상현 교수〈사진〉를 추모하는 국제석학 초청 강연회가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7월 28일 개최된다. 김상현 교수는 2013년 2월에 동국대 사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 해 7월에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당시 김상현 교수의 갑작스런 죽음에 동료학자들과 제자들은 추모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학술대회와 추모강연회 및 유고집 · 논문집의 출판을 계획한 바 있다.

초청 강연회에는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의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 교수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가 참여한다.

이시이 교수는 '신라 화엄종에 있어서 악(惡)의 문제 - 〈화엄경문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화엄경문답〉은 1985년 이시이 교수가 중국 법장의 저술이 아니라 신라 의상의 저술이라고 주장했고, 김상현 교수가 이시이 교수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한일 간 학계 교류의 물꼬를 튼 주제다. 김상현 교수는 타계 직전인 2013년 5월 번역서인 〈교감 화엄경문답〉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이시이 교수의 강연은 그러한 김상현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신라 화엄종의 악(惡)에 대한 관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노자 교수는 '만해불교, 그리고 화엄학'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김상현 교수의 스승이었던 효당 최범술 스님과 함께 불교계의 독립운동단체였던 만당(卍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김상현 교수도 만해 한용운을 추모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02년에는 '조선청년에게 고함'이라는 만해 한용운의 어록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박노자 교수의 강연은 그러한 김상현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만해 한용운의 화엄사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 기업경영철학의 기반 제공해야"

유필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학연구회 워크샵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는 자본주의 흐름 상 피할 수 없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해석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사진〉는 7월 10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2015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샵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불교와 기업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유 교수는 불교와 기업의 상호소통이 필요하며 이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한 중생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업은 중생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취업, 고용, 실직 등을 비롯해 기업내 경쟁과 활동은 보람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업경영의 본질은 의사결정이며 여기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노사관계의 기본은 사측은 근로자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고 임금과 휴가와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회사를 명예롭게 하고 정성껏 일해야 함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연기관계에 있다는 공동체 정신의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사측은 기업 철학을 먼저 모든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불교계가 기업경영철학의 기반사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경영에서 불교의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템플스테이 또는 명상강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불교계의 불교적 경영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통도사 지속운영 결실, 2013년 불교학계 우수 학술지로도 꼽혀

양산 통도사가 운영하는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지준)의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이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

〈불교미술사학〉은 2001년 불교미술사학회 설립과 함께 창간됐으며 최근 19호까지 발간했다. 통도사 〈불교미술사학〉은 201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심사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불교학계 최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 16종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불교미술사학회는 통도사성보박물관의 학예연구사들을 비롯한 경남지역 소장학자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학회로 지역문화와 불교미술 연구를 담당해왔다. 현재 통도사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총 25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연간 2차례(4월, 10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등재 심사평을 통해 "불교미술사학 학술지가 다양한 시각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과 학술적 가치와 차별성이 뛰어난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불교미술사학회는 많은 학승을 배출한 통도사의 가풍을 잇는 중요한 학회"라며 "이번 등재지 선정을 계기로 지역 및 불교문화 연구에 위상을 떨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혜의 향기로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모과나무
mogwabooks@hanmail.net | 02-725-7011

信心銘 신심명 몰록 깨달음의 노래

혜국 스님 강설 | 324쪽 | 하장본 | 값 22,000원

이 시대의 선승, 혜국 스님 최초의 저서 — 종교 베스트

선방수좌들이 극찬한 책! 수행과 체험으로 강설한 깨달음의 언어!

매일 새벽에 직접 볼펜을 꾹꾹 눌러 써 연재한 것을 다시 수정해 책으로 냈다. 그만큼 그에게 각별한 책이다. - 조선일보

공부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1400년 전의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충실하게 담고 있다. - 한국경제

공부와 체험을 바탕으로 풍부하게 해설함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한 것이다. - 세계일보



夢幻空華 何勞把捉 몽환공화 하로파착
꿈속의 허깨비와 헛꽃을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남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며 내 자신을 던져버리거나, 가슴에 상처로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꿈도 그렇고,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사로잡혀 아파하고 있는 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그냥 놓아 버리면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기억일 뿐이요,
미래란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 본문 중에서



“한국 사찰음식은 천 년 역사 담은 밥상”

광주유니버시아드 각국 대표단 7월 6일 증심사서 만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 6일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 대웅전 마당에서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끌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과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 참가국 대표단을 비롯해 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증심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이날 만찬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불교연합회가 후원으로 맛의 고장 광주와 1200년 사찰의 전통을 각국 대표단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시작은 불교문화 시연으로 시작됐다. 사물 중 하나인 범종과 법고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기념식과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에 앞서 끌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줘 고맙다”며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한 연광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에게 선물을 건넸다.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도 FISU와 역대 한국에서 개최된 U대회 엠블럼을 담은 핸드메이드 팬던트를 선물했다. 이에 연광스님은 이들에게 발우를 건네며 화답했다.

이날 대표단들은 생소한 사찰음식이지만 만찬 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음식을 즐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한 연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천년고찰 증심사에서 준비한 오늘 자리는 증심사가 간직한 천년의 역사를

연잎죽, 죽순냉채 등 40종 선뵈

‘3소식’ 네팔돕기 캠페인도 진행

대회기간 불교문화 체험도 열려

담은 밥상”이라며 “이 음식을 통해 대표단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에서 소개된 사찰음식은 빛고을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의 유지원 원장의 지도로 연잎 유미죽과 죽순 겨자냉채, 사찰김치와 나물두부강정, 콩고기 산적 등 40종이 선보였고, 황차와 연꽃차, 연잎차 등 각종 차류 등이 더해져 대표단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7월 6일 광주 증심사서 열린 사찰음식만찬에서 각국 대표단은 불교문화가 담긴 음식을 맛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각국 대표단들과 참석자들은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笑食),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고(小食),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한다(蔬食)’는 내용의 ‘3소식’ 캠페인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불교활동도 펼쳐졌다. 짜장스님으로 알려진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재건을 위해 광주U대회 주경기장 북문에 부스를 마련하고 ‘스님짜장 · 유네스코가 함께하는 네팔 학교 재건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운천 스님은 운동장을 찾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500인분을 제공하고 헤라 체험행사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학교의 참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네팔상황을 알렸다.

이와 함께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도 7월 8일 스리랑카 선수와 임원 20명을 초청해 다과와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우뚱’ 옥천 용암사 석탑 옛 모습 되찾아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보물 제1338호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 쌍삼층석탑(龍岩寺 雙三層石塔)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옥천군은 7월 2일 지난해 5월부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석탑을 완전히 해체한 뒤 기울어진 탑신과 기단부를 바로잡아 다시 세우는 복원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석탑은 2012년 구조 안전진단 결과 하부 지반 암반층의 불균형으로 동탑은 동쪽으로 87㎜, 서탑은 동쪽으로 196㎜ 각각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 관계자는 “해체과정에서 사리공과 직물류 등 유물이 발견돼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축조된 이 석탑은 대웅전 북쪽 봉우리에 1.7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다. 높이는 동탑 4.3m, 서탑 4.1m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002년 보물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고창군다문화가족協, 지역발전 업무협약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과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회장 김현수)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7월 7일 복지관 1층 관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 김현수 회장, 김홍준 부회장, 김형태 부회장, 신성일 부회장, 김주현 운영위원, 정재우 고창지회장, 김주진 고수면지회장, 김상현 상하지회장, 유동근 신림지회장, 김혁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향후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 외에 복지관과 지역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홍준 부회장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천일염 1,000kg(20kg 50포)를 고창푸드마켓에 전달했다.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는 앞으로도 김장철 등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은 “평소 지역 후원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에 항상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복지관과 협의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7월 6일 개금불사 회향법회에서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지역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 천룡사 대세지보살 봉안 및 개금불사 회향

광주 천룡사(주지 무등)가 사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세지보살 봉안 및 개금불사를 회향했다. 광주 동구 용연동에 위치한 천룡사는 7월 6일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지역 포교도량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원일 스님(백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을 비롯해 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무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법당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신도회를 위한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창건하신 벽상스님의 유지와 신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더욱 더 정진할 것이며, 지역 포교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룡사는 조계종 18교구 백양사 말사로 1976년 벽상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전계사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오계를 내리는 연비를 하고 있다.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종립 정광학원 7월 9일 백양사서 수계식 봉행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원일, 백양사 주지) 정광중학생들의 수계식이 7월 9일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전체 554명의 중학교 2,3학년이 참여한 가운데 276명의 학생들이 이날 삼귀의계와 오계수계를 받았다.

전계사 원일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는 자신과 남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규칙으로, 늘 유념해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계식이 이어 백양사 박물관 견학, 산사체험 등을 진행했다. 정광중학교 학교측은 “이번 수계식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생활의 규범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만암 대종사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선암사, 대흥사 등 5개 사찰의 출연과 협조하에 대중포교와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46년 10월 10일 설립된 70년 전통의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 명문 사학이다. 현재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중 · 고등학교에서는 54개 학급 2,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인 서봉사지서 고려시대 강당지 확인



용인시는 7월 8일 광교산 자락에 있는 고려시대 서봉사지(瑞峰寺址)에 대한 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조사기관인 한백문화재연구원은 이날 발굴 현장에서 고려시대 강당지로 보이는 대형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길이는 18m, 너비는 6.8m이다. 정면에 마당을 포함하는 구조로 전면에는 계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 등은 명문기와 어골문, 평기와, 대형 맷돌 등 고려시대 유물 100여점이 함께 출토된 점과 건물지 규모 등을 토대로 이곳에 고려시대 서봉사의 강당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 2차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 등 조선시대 건물지만 발견돼 고려시대 건물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봉사지는 고려 명종 15년(1185년)에 세워진 대규모 사찰이나 현재 현오국사탑비(玄悟國師塔碑. 보물 제9호)만 남아있을 뿐 조선후기 폐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시굴조사와 1, 2차 발굴조사를 통해 현오국사탑비가 위치한 중원지역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석탑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시작된 3차 발굴조사는 오는 20일 완료 예정이지만 시 등은 추가 발굴을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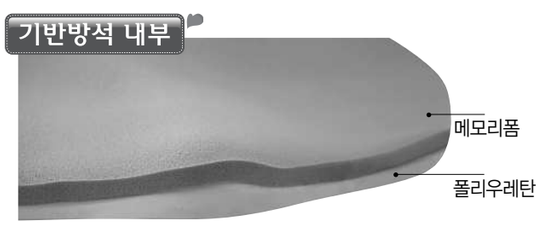
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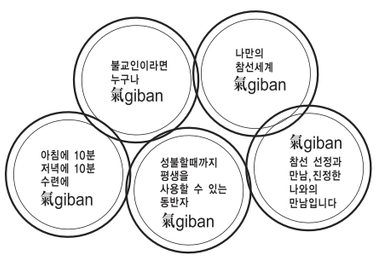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어르신 돌보며 봉사의 기쁨 나눠요”

창립 20년 맞은 금강봉사회… 창립멤버 12명 꾸준히 활동

불자들의 봉사모임 금강봉사회(회장 김정이)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故진철 스님(前통도사자비원장)의 권유로 1995년 도반 12명이 함께 뜻을 모아 창단한 이래 20여 년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금강봉사회 회원들을 7월 7일 울산 미타암에서 만났다.

신행활동을 병행하며 자비봉사를 펼치고 있는 금강봉사회는 이날도 도반들과 함께 미타암에서 기도를 마쳤다고 했다. 지금까지 통도사자비원과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성우원, 천마재활원, 성분도 어버이집 등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펼쳐왔다.

현재는 25명의 정기회원이 활동 중이며 창립 멤버인 12명의 회원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온 사실이다.

한영옥 초대회장은 20년 동안 봉사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통도사 자비원장이었던 진철 스님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금련사 산하 유치원 개원식 자리에서 처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직접 통도사로 찾아가게 되었죠. 스님은 가정과 사회에 배운 바를 실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셨어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스님의 법문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강봉사회는 현재 통도사 자비원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을 찾아 목욕봉사와 무료 급식 등의 자비 봉사를 펼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어르신들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 금강봉사회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은 통도사 자비원에서 50여 어르신에게 목욕봉사를, 셋째 주 화요일에는 용호종합복지관을 찾아 140여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하인자 회원은 “몸으로 하는 봉사이다 보니 피곤할 법도 한데 봉사를 다녀오면 마음이 더욱 환해진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

故진철 스님 권유로 95년 창립

통도사 자비원 목욕 봉사로 시작

용호복지관 급식 등 자비나눔 실천

“이웃 사랑, 가족 행복으로 이어져”

이 자연스럽게 배려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지니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것 같다”며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밖에도 가장 보람된 봉사를 찾으라고 하면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조손가정의 자녀들을 5년 동안 돌본 것이다. 김정이 회장은 “할머니랑 살고 있는 남매였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경제활동을 거의하지 못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5년 동안 빠짐없이 반찬과 쌀 김치 등을 5년 동안 보내주었는데 큰아이는 어려웠던 형편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감회를 전했다. 또한 회원들 각자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보시금을 내 기금을 조성, 어버이날 연말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의 대중공양 및 보시금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1995년 창립한 금강봉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호복지관 급식 봉사 후 기념 촬영 장면.

이런 활동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강봉사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봉사대상, 통도사 자비원장상, 용호종합복지관 감사표창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금강봉사회는 각 봉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도 주요덕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매년 창립기념식에는 가족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박민례 회원은 “이런 자리를 가지니 봉사하러 간다고 하면 신랑과 가족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더욱 잘해준다.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듣는다”고 전한다. 또한 안명석 회원은 “봉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남을 배려하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더욱 뿌듯해한다”며 봉사의 보람을 말한다.

금강봉사회는 “앞으로 진철 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 공부 회향은 생명나눔 실천으로”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졸업생 장기기증 약속

부산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1기 졸업생 42명 중 36명이 졸업을 기념해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하며 생명나눔실천에 동참했다. 한 단체의 85%가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암사(주지 원범)는 6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효불교학당 1기 졸업식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원범 스님은 “불교 공부의 회향은 나눔 실천일 것”이라며 생명나눔실천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은 직접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하며 동참했다.

앞으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각 사찰의 불교대학, 불교단체의 행사장을 방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은행과 연계해 온라인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행복한 은행’에 접속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선정한 난치병 환자에게 쾌유를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응원 댓글 1회당 1000원의 기부금이 환자에게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졸업생 85%가 졸업식과 함께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부산박물관 강좌 ‘불교미술을 바라보다’

범어사 특별기획전 연계해 진행

부산시립박물관은 범어사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와 연계해 7월 21일~24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역사문화강좌, 가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제31기 역사문화강좌로 진행되는 ‘불교미술을 바라보다’는 △불교미술의 흐름 △한국 불교공예의 아름다움과 의미 △통일신라의 불교조각 △불교미술의 정수, 고려불화 △고려불상의 미 △조선불화 엿보기 △조선후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등으로 나뉘어 강좌가 진행된다. 접수는 7월 13일~17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00명이며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부산박물관에서는 다가올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15년 여름방학 가족박물관교실 ‘나는 박물관 명탐정-범어사를 찾아라’를 부산박물관 교육실에서 연다. 기간은 8월 4일~13일 동안 매주 화 · 수 · 목이며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부산박물관은 범어사 불교 유물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부산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하고 7월 29일 오후 6시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를 진행한다. 큐레이터와의 역사 나들이는 ‘부산박물관에서 만나는 금정산 범어사’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한편,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전시회 개막식은 7월 20일 오후 4시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1시 30분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범어사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초청강연회도 열린다. 전시는 9월 13일까지다. (051)610-7141 하성미 기자

표충사 삼층석탑 진신사리 420년 만에 제자리로

7월 3일, 이운식 봉행

임진왜란의 침입을 피해 이운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진신사리가 420년 만에 밀양 표충사로 돌아왔다.

표충사(주지 정산)는 7월 3일 진주 두방사에서 표충사 경내로 진신사리 6과를 이운하고 이운식을 가졌다. 표충사 경내로 돌아온 진신 사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입을 피해 승병이 주둔했던 진주 법륜사로 옮겨졌다. 그 뒤 법륜사 폐사 후 두방사에서 진신사리를 이운해 보존해왔다.

이날 이운식은 표충사 주지 정산 스님, 총무 자허 스님을 비롯해 표충사 사부대중 100여명이 일주문에서 진신사리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두방사 주지 대정 스님과 신도 50여명이 함께 옮겨온 진신사리를 건네받은 주지 정산 스님과 사부대중은 표충사 삼층석탑을 돌며 이운을 축하했다.

현재 표충사 대웅전에 봉안된 사리는 당분간 대웅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표충사 주지 정산 스님은 “표충사 석탑을 해체 보수했을 때 찾은 백자사리함에는 사리가 없었다”며 “그동안 빈 사리함의 석탑에 예불을 올리면서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두방사의 협조로 금년에 이렇게 다시 재 봉안하게 되어 호국성지가 적멸보궁으로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앞으로 표충사는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리를 삼층석탑에 봉안하고 법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신라시대 조성됐던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은 1995년 해체보수 당시 비어있는 백자 사리함만 발견됐으나 최근 진주 월아산 두방사 탑에서 발견된 사리 23과가 표충사 사리로 밝혀졌다. 두방사 탑에서 함께 발견된 연기문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영정사(표충사의 옛 사명) 3층탑에 모셔진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자 말사였던 진주 월아산 동쪽 법륜사에 옮겨 모셨으나 진주까지 왜군이 밀려들자 월아산 남쪽 두방사로 다시 숨겨 모셨다’ 라고 적혀있다. 그동안 표충사 사리에 대해 왜군의 도굴에 대비해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성미 기자


임진왜란 당시 진주 두방사로 옮겨졌던 표충사 삼층석탑의 진신사리가 4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진은 이운식 장면

불지사, 7월 9일 만불점안식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가 ‘만불점안식’을 봉행했다. 불지사는 7월 9일 불지사 만불전에서 미타암 주지 산웅 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상진 스님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을 진행했다.

사부대중은 자신이 올린 부처님의 명호를 확인하며 환희심에 기뻐했다. 아울러 만불전 안에 조성되어 있는 약사전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중에 자신이 원하는 전각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수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불지사는 만불전 개원도 함께 진행했다. 만불전은 300여 평으로 지난 2014년 3월 착공을 시작해 작년 연말에 완공했다.

앞으로 불지사는 “도심 포교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며 기도 수행 공간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본문 중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말끔!
(본문 중에서)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본문 중에서)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정가 10,000원 (포켓북)
저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 기혈수배법 / 기적의 파스요법 / 수족온욕법 / 대반야경 外 다수
약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김해시 안만 치료재활 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몽골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치의과대학교 의학박사
방영
MBC 화제집중 / 놀라운 세상 / 여성교양강좌 / SBS 호기심천국 / 모닝와이드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

하늘과 맞닿는 곳 절절한 佛心 만나다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①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이 7월 6일 야칭스의 빠드마삼바바 불상 앞에서 한국 불교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종단 공식 순례단이 야칭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발 3000여 고지, 하늘과는 조금 더 가까운 곳. 그곳에는 쪽빛을 잔뜩 머금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유유자적하게 흐른다. 만년설을 품은 바위산과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고 있을라면 '모든 것에는 불성(佛性)있다' 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는 땅, 중국 쓰촨의 동티베트에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수행공동체인 '오명불학원'과 '야칭스' 와 수많은 사찰들이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며 존재한다. 이곳에 60여 한국 스님들의 청아한 독송이 울려퍼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동안 '동티베트 불교 유적 순례' 를 진행했다. 정우 스님(군종교구장)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순례에는 비구 · 비구니 스님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종단 공식 순례단이 티베트 불교 최대 수행 공동체인 오명불학원과 야칭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수행공동체 '야칭스'

순례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티베트불교 종파 중 닝미파(홍모파라고 불림)에 속하는 승려들의 수행공동체인 '야칭스' 다. 1985년 라마야추 린포체가 이곳에서 사원을 세우자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촌이 형성됐다. 지금은 비구니 7000여 명, 비구 3000여 명 등 1만 여 명이 모여 산다. 그래서 야칭스는 비구, 비구니 거주지와 사원으로 구분돼 이뤄져 있다.

그들의 개인 수행처는 대규모 난민촌을 연상시킨다. 3~4평 남짓한 판자집으로 이뤄진 이들의 수행처는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거주지를 야룽강(雅 砻江)이 둘러싸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수행자들은 철저한 수행과 교학 공부를 한다. 새벽 4시 30분부터 참선이 진행되며 7시부터는 오전 교학 강의가 이뤄진다.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방장 스님의 강의가 있고 오후부터는 법회와 오전 강의 복습, 수행이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동티베트를 대표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인 야칭스를 조계종 순례단이 찾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입구에서부터 중국 공안은 순례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사진촬영의 경우 원경(遠境)과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제외하면 허락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야칭스에 도착한 조계종 순례단은 이곳을 이끌고 있는 아송 린포체를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은 몸이 아픈 수행자를 위한 지원금 2000위안과 합장주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순례단은 야칭스 중심에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흥시킨 빠드마삼바바의 불상 아래에서 칠정례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등 한국불교 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의 주도로 염불과 참선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순례단 대중은 이번 순례에서 얻은 발원의 씨앗을 한국에서 여러 모습으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계종 순례단은 발원문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심장 박동소리는 쉼없이 뛰고 있으며 그 박동소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화장세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화장세계에서 피어난 모든 부처님들은 홀씨되어 중생이 원하고 머무는 곳마다 당신의 힘을 응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순례자 모두는 짧은 여정 속에 많은 것을 얻어간다"면서 "이 순례길에서 얻은 씨앗들은 고향으로 품고 가서 개개인의 처소에서 수행과 정진, 신심, 회향으로 승화시킬 것을 발원한다"고 발원했다.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 '오명불학원'

야칭스와 마찬가지로 중국 쓰촨 서북부 고산지대에 위치한 '오명불학원' 은 티베트 승려들의 수행공동체다. 1980년대 릭메푼촉 린포체가 32명의 제자를 이끌고 이 지역으로 강의와 설법을 시작한 것이 모태가 돼 지금은 7000여 스님들이 수행 정진과 교학을 공부하는 불교 학원 도시로 변모했다.

3000여m 고지 숨겨진 수행공동체
오명불학원 · 야칭스, 종단 최초 순례
고산병 · 날씨도 막지 못한 '구도열'
최대 불학원 오명불학원과 교류행사
열악한 환경 야칭스… "점검 기회돼"
곳곳이 사찰, 佛心 넘치는 티베트인
힘겨운 삶 속 체화된 신앙심에 '처연'
감시 · 통제… 中 관제 불교 현실 목도

오명불학원 입구에서부터 교학 강의와 수행이 이뤄지는 큰 법당들과 이를 중심으로 통나무로 지어진 스님들의 개인 수행처가 펼쳐진다. 이곳 스님들은 장족(티베트인)과 한족 등 전국에서 모인 수행자들이다. 장족 언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시험을 본 후 합격된 스님들만 이곳에 들어와 공부를 할 수 있다.

조계종 순례단은 7월 4일 오명불학원을 찾아 참배했으며, 이역만리의 길을 넘어온 한국 스님들을 주지와 학장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환대했다.

환영 행사에서 오명불학원 웬조우 주지 스님은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로 오래 전부터 양국 불교는 선(禪)을 중심으로 모든 방면에서 교류해 왔다"면서 "오명불학원에도 1992년 한 한국 스님이 오셔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기도 했다. 다시 한국 스님들을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명불학원은 아난에서 달마로, 네팔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법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밀교와 선종의 수행방식대로 정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티베트 불교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중국 본토의 수행승이 이곳에 와서 수학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야칭스 중심에 있는 빠드마삼바바 상 아래 한국 의식을 진행 중인 순례단.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 오명불학원의 전경. 7000여 명의 스님들이 교학을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고 있다.



7월 4일 오명불학원을 찾은 순례단 스님들이 주지와 학장 스님들을 만나기 위해 접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지도법사 정우 스님(군종교구장)은 환대에 감사와 티베트 스님들의 높은 구도열에 경의를 표했다. 정우 스님은 "이곳은 법화세계, 화장찰해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렇게 불가사의한 곳을 목도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 에서 대해 말하고 있는데 평소 번역해 보는 것이 아닌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면서 "창립자인 릭메푼촉 린포체의 정신이 자 · 비 · 희 · 사의 사무량심으로 화현해 오명불학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후 순례단은 오명불학원 측에 지원금 2000위안과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합장주, 108염주, 학용품을 전달했으며, 오명불학원은 불상과 탕카 등을 순례단에 선물하며 화답했다.

현지 불자 "한국 스님 독경에 감동"

조계종 순례단의 9박 10일 일정은 중국과 동티베트 현지 불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특히 60여 스님들이 보여주는 장엄한 독송에 현지 불자들은 감동과 환희심에 젖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3일 랑탕 지역의 지흠사에서 열린 입재식이었다.

조계종 순례단은 지흠사 중심에 있는 빠드마삼바바의 불상 아래에서 칠정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이 자리에는 많은 티베트, 중국 불자들이 합장하고 스님들의 독경을 들었다.

한국 스님들의 정연한 모습은 현지 불자들에게 감동을 사기 충분했다. 실제 지흠사에 참배를 온 중국 불자 쓰위탄(45, 절강성 소주) 씨는 한국 스님들이 의식을 하는 동안 내내 합장한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쓰위탄 씨는 "6월 21일부터 이곳에 와서 참배하고 법문을 듣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멀리 이곳까지 와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냈다"면서 "너무 감동스러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먹물옷의 무게감을 느꼈다"

동티베트 지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像 事事佛供)' 이 그대로 화현된 곳이다. 마을마다 중심에는 사찰이 형성돼 있고, 곳곳에 불경을 담은 오색 천을 대나무에 묶어 있는 시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나무에 달린 불경 오색천은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에 나부끼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들만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불심과 원력이 오명불학원과 야칭스라는 수행공동체를 있게 했다.

순례단 스님들도 티베트인 불심에 감탄하며, 현재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안 스님(장안사 주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불교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새로운 원력과 발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은 "사실 고산병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오명불학원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수행과 교학 공부에 오롯이 매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새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먹물옷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례에는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한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수행과 교화를 하셨다"면서 "거기에 비하면 고생이라고 할 수 없다. 고행도 곧 수행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불교 관제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았다.

상덕 스님(화방사 지역자활센터장)은 "중국불교가 어떻게 종교를 관제화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를 중국 정부가 감시와 통제로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 것을 목도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도유 스님은 "5~6년 전 태국에서 열린 샤카디타 대회에 티베트 스님이 나와서 남과 북이 나눠진 한반도의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며 남북통일과 티베트 독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발원했다"면서 "중국의 감시와 통제의 종교 정책이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알았다. 그들의 불교가 슬프도록 아름답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승 돈각 스님(백령사 주지)은 이번 순례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신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육원 순례는 매년 빠짐없이 오고 있다"면서 "여기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 신도들에게 프로젝트 기기로 설명을 해준다. 이번 순례도 신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또한 나중에는 신도들과 다시 이 길을 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오명불학원, 야칭스 모두 한 명의 스님이 가진 원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스스로 원력과 발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염보리심 처처안락국' 임을 알았다"



순례단 지도법사 정우 스님

"야칭스는 가슴이 떨릴 만큼 감동스러웠고, 오명불학원은 불가사의한 역사가 이뤄진 곳입니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야칭스는 6.25 당시 부산 피난민촌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환희 법열한 티베트 스님들의 기도 모습, 참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티베트 불교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 간 조계종 동티베트 순례단을 이끈 정우 스님은 이번 순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짧게 이야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희와 법열에 젖어 사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되새겼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 목적지는 야칭스와 오명불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기간 들렸던 마을들을 보면 주택 옥상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중심에

온갖 악재에도 신앙 지켜가는
티베트 불교는 행복 그 자체

는 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순례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 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이룬다면 매순간, 모든 곳은 극락입니다."

순례 진행 상의 안타까움도 표하기도 했다. 60여 명의 대중 스님들이 함께 있다보니 자유도가 떨어지고 한 차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이동 중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에게 여행 혹은 순례는 어떤 의미이냐고, 망설임없이 스님은 '인생' 이라고 답했다.

"인생과 여행은 둘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인도와 네팔도 남미, 아프리카도 내가 인연 맺은 사찰을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34년 전 단수 여권으로 인도, 네팔 성지 순례가 지금의 내가 있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여행과 순례가 내 수행과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 순례는 곧 수행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평생을 운문사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동한만큼 가장 인상 깊었던 순례지도 세계 최대 불학원인 오명불학원이었다.

"오명불학원의 환경을 보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명불학원에 들어올 때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들어오고 공양 역시 스스로 운력을 통해 마련합니다. 그 원력과 간절함이 오명불학원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진 스님은 동참한 후학과 비구니 스님들이 동티베트 순례가 자기 점검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평생을 후학 양성을 위한 강사로 살아온 스님에게 동티베트 순례는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고산병을 비롯한 모든 경험들이 수행과 맞닿고 있었다.

여성 수행자 모습에 감동
자기 점검의 계기됐으면

"고산병이 심하지 않지만 살짝 오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를 살폈습니다. 이번 순례는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 순례는 곧 수행입니다."

불탑은 인류문명의 소중한 자산

탑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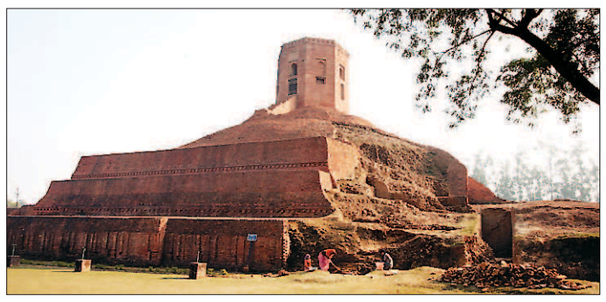
㊵ 불탑신앙의 기원과 종류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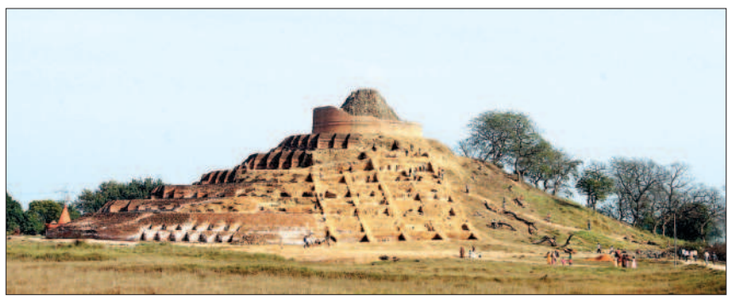
인류문화 활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유형, 무형을 총칭하여 '문화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여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에서 '보물'과 '국보'로 지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재 중 유형 문화재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 불탑과 승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이르며,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탑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가치와 수량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학계에서 불탑에 관한 연구는 건축사나 미술사의 관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불탑의 형식이나 양식의 발전, 그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에만 치우친 면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불탑의 보존 과학적 측면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유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내재 가치보다 조형적 측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연구였다.

40회에 걸친 본 연재에서 필자는 독자들이 불탑을 불교건축물 혹은 예술작품으로만 취급하기보다는 신앙의 대상으로써 불탑을 이해하기를 기대했다. 불탑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가 봉안된 성스러운 '부처님 무덤'을 말한다. 이러한 불탑은 불교의례에 있어 찬탄과 보호의 의미를 포괄하며, 불자들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의 상징으로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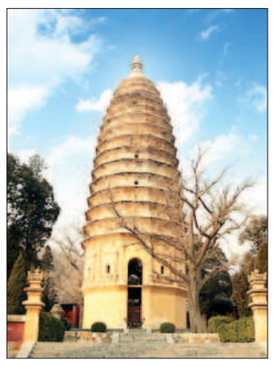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불교 국가에서 불탑은 꾸준히 조성되어 왔는데 이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경전에 근거해 불탑 조성의 공덕 불사를 성취하려는 간절한 신앙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은 시대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 불교 전파의 경로에 따라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남방 국가와 중국, 한국, 일본 등 북방 국가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성돼 왔다. 하지만 형식과 양식의 외형적 다양성 속에는 한결같이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 불탑에 예경하면 현세와 내세에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고, 불탑을 조성하는 자체로도 큰 공덕을 이룰 수 있기에 불탑 신앙은 계속 되어 왔다.


〈사진1〉 차우칸디스투파


〈사진2〉 케사리아스투파


〈사진3〉 산치제2탑


〈사진4〉 숭악사탑


〈사진5〉 법륭사5중탑


〈사진6〉 반야사13층석탑

부처님 공경의 상징으로 출발
불탑신앙에 따라 진화 · 발전
한국전통의 '탑돌이' 문화 계승 과제


〈사진7〉 정림사지5층석탑


〈사진8〉 운주사 란탑

불탑신앙의 기원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이 불탑조성의 시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역사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경전에서는 수 없이 많은 과거불의 열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불의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리불과 목련존자에 대해서도 사리탑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한 '발탑(髮塔)'과 손톱을 봉안한 '조탑(爪塔)' 등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경전에 전해진다.

수자타 여인의 공양을 받은 싯다르타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다고 믿고 태자를 떠난 다섯 비구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태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만남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 탑을 조성한다. 부처님을 크게 환영하였다는 의미의 영불탑〈사진1〉이다. 인도 바라나시에 현존하는 '차우칸디스투파'로 부처님 당시 조성된 탑의 예로 들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발우를 신도들에게 전해주자, 주민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고자 발우탑〈사진2〉을 조성한 인도 비하르주의 '케사리아스투파'도 현존하고 있다. 물론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는 봉안되지 않았지만 후손들이 이 탑을 예경한 이유는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는 듯한 환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탑의 분류(종류)

불탑을 분류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형상(造形上), 조탑 재료, 목적, 배열, 봉안물(奉安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불탑을 조형에 따라 분류하면, 인도의 경우는 산치대탑〈사진3〉과 같은 반구형(半球形)탑과 보드가야대탑 같은 사각다층탑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는 크게 일곱 가지로 불궁사석가탑, 하남성 숭악사탑〈사진4〉 등의 누각식탑(樓閣式塔), 요양백탑, 내몽고 자치구의 대명탑 등 밀첨식탑, 신통사사문탑 등 정각식탑(亭閣式塔), 하북성 광혜사탑, 하북성 경화사탑과 같은 화탑(花塔), 북경 묘응사탑, 서장자치구 백거사탑과 같은 라마식탑, 내몽고자치구 자등사탑과 같은 금강보좌식탑, 강소성 소관탑등과 같은 과가탑(過街塔)으로 분류한다.

일본의 경우는 법륭사5층탑〈사진5〉 등 다중탑(多重塔), 반야사13층탑〈사진6〉과 같은 다층탑(多層塔), 보탑(寶塔), 다보탑(多寶塔), 상륜당(相輪棠) 등 20여 가지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불탑 조성 재료에 근거하여 목탑, 전탑, 석탑으로 분류하고, 형태에 따른 세부 분류는 상용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석탑의 경우는 양식 변천에 따라 미륵사지석탑, 정림사지5층탑〈사진7〉등 시원기(始原期)와 감은사지3층쌍탑, 고선사지3층탑 등 정형기(定型期)를 거쳐 불국사3층탑을 기준으로 전형기(典型期)석탑으로 구분하며, 불국사다보탑, 화엄사4사자탑 등을 이형석탑(異形石塔)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불탑의 조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종탑(鐘塔), 감탑(龕塔), 주탑(柱塔), 안탑(雁塔), 노탑(露塔), 옥탑(屋塔), 무봉탑(無縫塔), 나탑(喇塔), 방탑(方塔), 원탑(圓塔), 난탑(卵塔)〈사진8〉 등으로 나누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층수에 의해 1층탑, 2층탑, 3층탑, 4층탑, 5층탑, 7층탑, 9층탑, 10층탑, 13층탑, 15층탑, 17층탑, 37층탑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탑신의 층수는 절대 다수가 홀수이지만, 짝수 층으로 구성된 불탑도 조성되었다. 2층탑은 중국 북경시 운거사탑, 8층탑은 중국 하북성 남궁시 보동사탑, 우리나라의 산청 대원사 8층석탑이 있으며, 10층탑은 중국 하북성 영우사사리탑, 우리나라의 원각사지 10층탑과, 경천사지10층탑,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8각10층사리탑 등이 있다.

각(角)에 의해서는 원형탑, 4각형탑, 6각형탑, 8각형탑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탑을 조성하는 다양한 재료로써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전탑, 목탑, 석탑이 가장 일반적이나 옥탑(玉塔), 수마노탑(水瑪瑙塔), 금탑(金塔), 은탑(銀塔), 칠보탑, 사탑(沙塔), 니탑(泥塔), 토탑(土塔), 분탑(糞塔), 철탑(鐵塔), 동탑(銅塔), 수정탑(水晶塔), 유리탑(琉璃塔), 향탑(香塔) 등이 있다.

불탑을 조성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구복(救福) 내용에 따라 복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기복탑(祈福塔)과, 부모나 스승, 그리고 삼보의 은혜를 갚고자 세우는 보은탑(報恩塔), 경전인 법보를 봉안한 법신탑(法身塔), 그리고 부모 또는 자신이나 단명한 이의 수명 연장을 발원하기 위해 세우는 수탑(壽塔) 등이 있다.

또한, 조탑 위치로는 고립식탑(孤立式塔), 대립식탑(對立式塔), 배립식탑(排立式塔), 방립식탑(方立式塔), 사문사탑(四門四塔), 공립식탑(拱立式塔), 분립식탑(分立式塔) 등으로 나눈다.

불탑 내의 봉안물(奉安物)로 분류하면 사리탑(舍利塔), 발탑(髮塔), 조탑(爪塔), 아탑(牙塔), 의탑(衣塔), 발탑(鉢塔), 진신탑(眞身塔), 회신탑(灰身塔), 쇄신탑(碎身塔), 병탑(甁塔) 등이 있다.

이처럼 불탑은 지면의 한계가 있는 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불탑 신앙에 따라 진화, 발전하며 조성되어 왔다.

불탑신앙

불교 경전에 "불탑을 대할 때는 곧 여래를 보는 것과 같이하라!"라는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탑 조성을 발원한 불제자들은 조성의 공덕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불탑에 지극한 불심의 표현으로 무한하고도 다양한 예경을 다하였다. 정성어린 공양물의 봉헌 뿐 아니라 부처님을 친견하는 공경의 방법으로 '탑돌이'라는 전통 신앙 문화를 완성하였다.

인도에서부터 유래된 탑돌이는 나라마다 일정한 규범이 있다. 불교의 우주관에 근거하여 태양계의 회전운동에 동조하는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하며, 횟수에도 우요삼탑(右繞三塔) 즉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것이 기본이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하면 77회를 돌면서 다라니를 77번 봉독하라고 설해져 있다.



글 · 우인보
〈끝〉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자신의 길에 방향 세우는 것이 배움의 첫 조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⑧ 손오공 스승 수보리존자를 만나다



그림 · 최주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의 원숭이 왕, 그 뜨거운 구도의 여정 끝에 올바른 스승을 만나네요. 축하, 축하! 그리고 우리 원숭이 왕을 제자로 맞은 수보리 조사님께도 축하, 축하!

우선 우리 삶에 모범이 될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이 없을 큰 복이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배우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에... . 그렇게 보면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열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열망을 가진 눈은 늘 신선한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배울 것이 없다는, 권태롭거나 오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눈은 시커멓게 죽어 있으며, 언제나 짜증스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마련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한 쪽은 나날이 살아 나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쪽은 나날이 죽어 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배우려는 열망을 가진다고 해도, 그 열망이 올바른 지향 없이 아무 거나 무조건 배우려고 날뛰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갈팡질팡 어수선한 이상한 헤매니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주창하는 헤매니즘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이비 헤매니즘에 속지 맙시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헤매니즘은 참아줄 수 있지만, 계속 헤매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헤매니즘은 올바른 머뭄을 위한 전 단계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참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답을 반은 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제대로 잡은 사람은 반 이상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매우 너그러운 선생이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의 입장에 서면 좀 엄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 질문이나 툭툭 던지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기 보다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고 타이르거나 유도를 하죠. 선생에게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한번 쯤 생각을 해보라구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 보고 물음을 던질 때, 선생은 제대로 된 답을 줄 수가 있고, 또 제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잘 소화해 내게 되죠. 이건 그대로 배움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그저 이걸 보면 이걸 배우고 싶고, 저걸 보면 저걸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길에 대해 큰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는 자세가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리멸렬~. 부산한 호기심으로 이 문전 저 문전 기웃거리다 한 세상 다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쓸 데 없이 아는 건 많은데,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그런 사람 되기 쉽죠. 음? 갑자기 제가 켕기는 구석이 있네요. 제 안사람이 저보고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수!"하던데... . 저도 쓸 데 없이 아는 거 많아서 결국 먹고 싶은 것만 많은 사람인가요? 제 병은 너무도 자기 반성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인 것 같네요. 갑자기 좀 힘이 빠져 버리는 기분이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아는 거 많다는 것은 인정받은 셈이고, 또 자기 반성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판이니 다시 힘을 내 보죠. 하하

한마음으로 스승을 찾고, 또 배울 것을 올바르게 배우는 제자의 자세는 지금까지 우리 원숭이 왕이 보여 줬고, 또 앞으로도 보여 줄 참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스승 만나는 얘기는 그만 두고 스승의 입장을 이야기 해 보죠.

"스승을 찾고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자
제자는 지식의 상속자로 자식과 같아
수보리존자 눈에 손오공 구도심 보여
행동거지 하나에 마음 담기기 마련"

스승으로서 훌륭한 제자 만나는 것은 제자가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이상의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자식을 두는 것이죠? 자식이란 자신의 자연적 생명을 잇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자신이 자연적 생명을 바탕으로 성취한 또 다른 생명의 상속자 아니겠어요? 그렁 저렁 한세상 살아서 어떤 탁월한 성취를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을 사람을 찾으려는 열망도 별로 강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자연적 생명을 잇는 자식에게 자신이 삶에서 얻은 것도 적당한 선에서 물려주고, "네 인생 니꺼니까 잘 살아 봐라"하면 되죠. 그런데 자식에게 전하려 해도 마음대로 전해지지 않는, 심성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물려 줄 수 없는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 위해 애를 태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바로 그러한 자질과 심성을 갖추었다면 그 이상의 복이 없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것 같지 않더라구요. 저의 경우만 봐도 제 아들녀석 "아빠 먹는 거 하고 자는 거는 도저히 못따라가겠어요!"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곤, 그것을 계승해 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 같으니. 아! 나는 불행한 아빠~ . 언제나 나는 내 '삼쾌'(三快)를 계승할 제자를 찾을 수 있으려는가!

참! 제가 스스로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고상한 표현으로 배설하는 거는 잘한다 하여 '삼쾌선생'이라 한다는 말씀 드렸던가요? 쾌식, 쾌면, 쾌변의 삼쾌 말입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즘 나이 먹으면서 이 삼쾌가 좀 자신없어졌어요. 스스로 삼쾌선생이라고 했던 것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죠. 하지만, 특별한 건강법 챙기지 않고 이 세가지로 건강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는 그런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건강을 도모하는 여러 비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비법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비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 편법인 경우가 많죠. 건강의 왕도는 무엇이겠어요.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것을 꼽으라면 뭐겠어요? 위에서 말한 세가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세가지를 잘한다는 것은 좀 오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진 그 세가지 잘해서 별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점은 좀 평가해주실만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먹고 자고 싸는 그런 일상적인 것 소홀히 하면서 무슨 보약먹고, 특별한 짓을 해서 건강해지려는 것은 마음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마음에서 건강한 몸이 나올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쾌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사실은 그 세 가지 보다도 좀더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하나 더 있기는 하군요. 무얼까요? 숨쉬기입니다.

숨쉬기가 뭐 어려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군요. 그렇지만 숨 잘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숨 잘쉬는 것이야말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관찰이라는 거 아시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숨을 헤아리는 수식(數息)과 숨을 관찰하여 의식이 숨을 따라가는 수식(隨息)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도교 수행에서는 호흡법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라 할만큼 중요하지요. 그렇게 불교와 도교에서 숨쉬기를 중요시 한다는 것, 괜스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숨쉬기이죠. 물론 심장 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노력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며 쉴 수도 없는 것, 그 가운데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숨쉬기에 마음을 좀 써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유를 드리면서 슬그머니 부탁 하나 드리지요. 제가 예전에 스스로 '삼쾌선생'이라고 했던 것은 오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삼쾌'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스스로 '삼쾌선생'이라고 가끔 자칭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만난 인연으로 다 함께 삼쾌를 달성하고, 나아가 숨쉬기까지 잘하도록 노력해보기로 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더더욱 값진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노사연씨가 부른 노래가 떠오르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의 노랫말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정말 훌륭한 노랫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엔 우리의 바램이라는 필연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을 빛나고도 값진 것으로 만들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본 줄거리에도 정말 값진 만남이 나오는 대목이죠? 수보리존자와 원숭이 왕의 만남입니다. 눈밝은 수보리 조사의 눈에 비친 원숭이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록 인간이 아닌 원숭이의 모습이지만 그 뜨거운 구도심이 환히 보였을 겁니다. 원숭이이기에 잘 생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얼굴과 모습에는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살아온 자취가 담기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40 넘은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죠. 또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도 마음은 담겨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넌 내 마음을 몰라"라든가 "내 마음 나도 몰라!"하는 말 쉽게 하지 맙시다. 얼굴에, 모습에, 행동에, 말씨에 이미 내 마음 환하게 드러나 있다고 믿는 편이 속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구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의젓하고 준수하고 고상합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가끔 좀 썰렁한 농담까지 섞어 가면서 애쓰는 열정적인 모습... .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에 환히 비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열정적이고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마치기로 하지요!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 A (50개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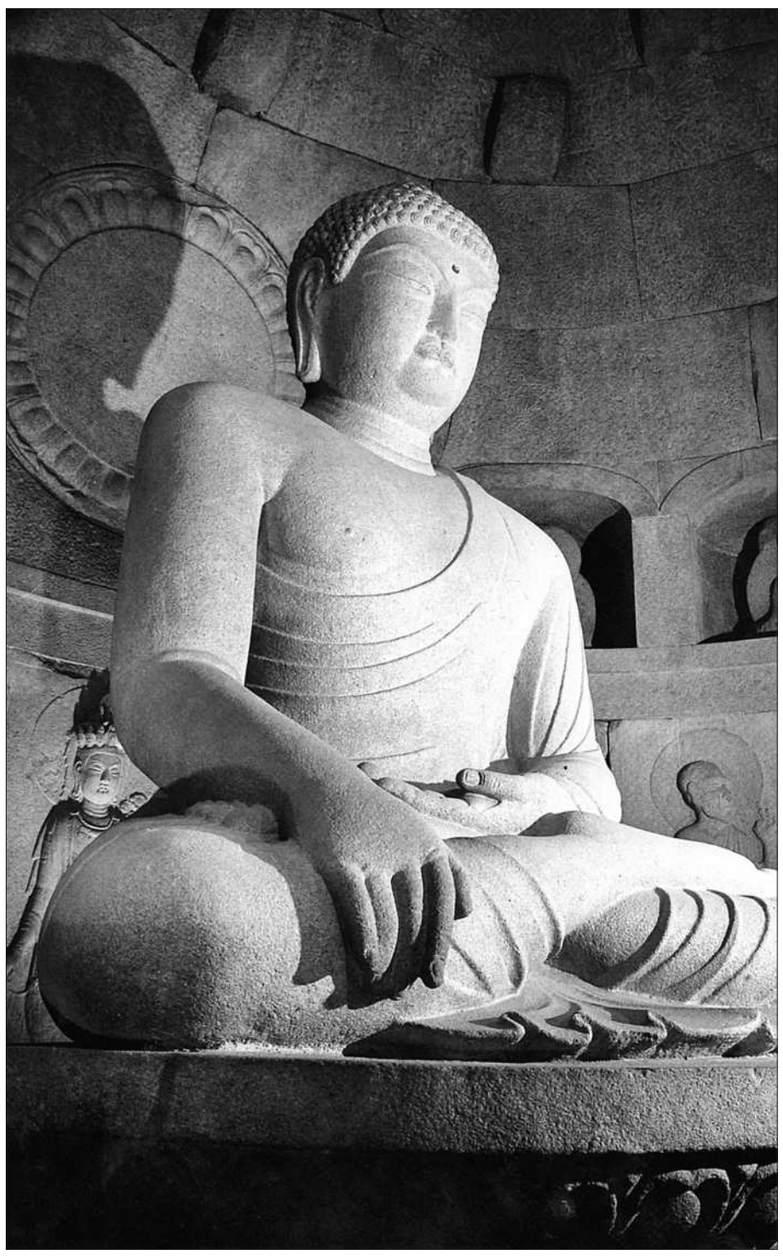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대승불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됐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20. 대승불교(大乘佛敎)에의 길 上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불상은 대승불교 미술의 정점이다. 대승불교는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만들어진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다.

역사적 변천의 사고방식

이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굳게 세워진 이래, 시공간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2,6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도 법의 핵심은 조금도 변천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외부적인 상황은 매우 다양(多樣)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그 변천과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은 후에 이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대승불교(大乘佛敎)라는 큰 물결이 이 가르침 속에서 생기며 소승불교(小乘佛敎)라고 불리어지는 다른 흐름과 현저한 대조(對照)를 보여주게 된 것은 불교의 역사적 변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천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예를 들면 소위 선가(禪家)의 입장과 같은 것이 있다. 방대한 경전, 세밀한 논주(論註)를 앞에 두면서 감히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주장한다. 혹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말하며 어느 때는 직지단전(直指單傳)을 설명한다.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이러한 주장이 생기게 된 사정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시 다른 예를 들면 소위 염불(念佛)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 수행과 목표는 붓다가 가르친 이 지혜의 길이 전통(傳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조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인상까지도 준다. 도대체 어떠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이 이 길 가운데서 생겨난 것일까. 그것의 해석도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점이다.

물론 이때까지의 불교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에 관해서 그 경위를 밝히거나 해석함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역사적인 사정을 정밀히 연구하였으며 그 해석을 여러 관점에서 시도하였기에 더 첨가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 가르침 속에 생겨난 그 사정과 이유에 관해서 말할 때 지금까지의 학설(學說)에는 총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편향(偏向)이 있었다. 즉 그 사정과 이유란, 언제나 특정한 한쪽 편에서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대승불교 쪽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소위 소승불교 쪽의 발언은 거의 전혀 막혀져 있는 점이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은 대승·소승이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다.

대승불교의 대(大)라는 말은 하나의 미칭(美稱)이다. 대승불교 쪽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드는 주장을 스스로 칭하여 대승이라고 하였다. 이것과는 달리 소승불교의 소(小)라는 말은 폄칭(貶稱)이다. 소승불교 쪽의 사람들이 그 받드는 교법을 스스로 소승이라고 폄칭할 리가 없다.

그것은 틀림없이 타칭(他稱)이다. 대승불교 쪽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적하여 폄칭한 타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자들은 이 미칭과 폄칭을 써오면서 오랫동안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취급하여 왔다. 이것은 학자들이 언제나 한쪽 편에서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벌써 그러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에서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들은 불교를 하나의 전체로서 보았으면 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어느 것이 훌륭하며 어느 것이 뒤떨어져 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하나의 전체로서 본 불교 속에 소위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이 발생한 것은 어떠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것인가. 혹은 또 선가(禪家)의 주장이 생겨났다는 것, 또 염불(念佛)의 문류(門流)가 생겨났다는 것에는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요청(要請)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들은 오히려 불교의 역사적 변천의 해석을 이러한 방향에서 새롭게 조명(照明)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불교 교단(敎團)의 계급성

이러한 각도에서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돌이켜보면 먼저 주목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이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역사적 제한(制限)을 걸머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붓다의 교단이 표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개방된 화합평등의 교단이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교단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귀족의 아들들’ 이었다. 경전에서는 자주 그 가르침을 ‘양가(良家)의 청년을 고향의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일처부주(一處不住)의 생활에 들어가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양가의 청년(Kulaputta)’ 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귀족의 아들들’ 을 뜻한다.

물론 붓다의 제자 가운데 고귀한 출신이 아닌 자를 가려내는 일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니타라는 제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비천한 출신이었다. 또 난다라는 제자도 원래는 양(羊)을 치면서 살아가는 천한 목동(牧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제자들 예컨대, 샤알리푸트라(사리불), 목가라나(목건련), 아난다(아난), 아니룻다(아나율) 그리고 야사 등은 대개 바라문이 아니면 크샤트리야의 출신이며 적어도 서민(庶民) 가운데서는 장자(長者)라고 불려지는 부자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노동(勞動)에 종사하며 이마에 땀 흘리면서 생활한 사람의 이름은 비록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였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근본불교 교단이 저절로 형성된 일종의 계급성(階級性)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표방하는 것은 평등이었다. 누구든 그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해서 이 교단에 입단(入團)하는 것이 거부된 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을 형성한 것은 자연스럽게 주로 상층계급의 출신이며 지적(知的)으로 우수한 청년들이었다.

이것은 원시 기독교 교회에 참집(參集)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현저한 대조(對照)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있듯이 “지혜있는 자 많지 않으며, 능력있는 자 많지 않으며, 귀한 자 많지 않으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신분이 천한 지성도 능력도 뒤떨어진 ‘가난한 사람들’ 이 교단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여기 근본불교 교단을 형성한 사람들은 대개가 신분이 높으며, 지성도 능력도 뛰어난 ‘양가(良家)의 자제’ 들이었다. 거기에 일종의 계급적 편향(偏向)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불교 교단의 계급성은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일까.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정구(淨口)의 참 의미

불자들이 〈반야심경〉다음으로 즐겨 염불하는 게 〈천수경〉이 아닐까 싶다. 〈천수경〉은 정구업(淨口業)으로 시작된다. 맑을 정(淨), 입 구(口), 지을 업(業)은 비록 세 자이긴 하나 〈천수경〉 전체의 뜻이 함축된 단어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천수경〉은 본래 ‘천수천안대자대비관세음’ 이라는 꽤 긴 이름표를 달고 있다. 손이 천개, 눈이 천개의 관세음보살이 〈천수경〉의 주인공인 셈이다. 우리나라 불교계엔 천수경강의집이 수두룩하다. 웬만한 불교학자, 교수, 스님들이 앞다투어 천수경 강의집을 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첫 시작부터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업(口業)을 설명하는데 있어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 중의 하나인 입으로 짓는 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業)으로는 탐내고 성질내며 어리석음을 끼어 넣는다. 그 중 입으로 짓는 업(業)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간질과, 험한 욕설과 거짓말과 기만하는 말을 들고 나온다. 하여 구업(口業)을 수행 덕목의 으뜸으로 삼으라는 풀이쯤으로 대개의 천수경 강의집이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코밑의 입만이 입이 아니다. 두 귀는 듣는 입이요, 두 눈은 보는 입이다. 두 개의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모조리 조심하고 길들여야 할 또 다른 입인 것이다. 넓게 보면 털구멍 하나하나가 입이요,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그대로 입이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욕설과 기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코 밑의 입뿐이겠는가. 눈짓으로 말할 수 있고 얼굴 표정, 몸짓, 손짓으로도 얼마든지 긍정도 부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수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이 천 개이고, 눈이 천 개이면, 입도 천 개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부처님 경전 속의 숨은 뜻을 머리를 굴려 헤아리지 말 일이다. 열린 마음이면 뜻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말 한 마디를

“아는 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知者不言), 말을 앞세우는 자는 알지도 못한다(言者不識).”

〈도덕경〉에서 옮겨온 노자(老子)의 말씀이다. 불교에서는, 입을 연 즉 그르친다(開口卽着)는 말이 있다. 입은 모든 재앙의 문(口是禍門)이라는 말도 있다. 파주에 있는 보광사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 보광사 암자 중에는 입조심절(守口庵)이 있었다. 예전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벙어리 3년이 끼어 있었음을 알 것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 등지에서 생활할 때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 중에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린 원숭이 조각품이 있었다.

하여, 〈천수경〉의 첫 시작이, 입을 맑게 하는 정구(淨口)로부터 비롯된다. 아무튼 입은 요술단지이자, 알라딘(Aladin)이 춤을 추는 손오공의 은신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이 탕감되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비수(匕首)되어 원한과 증오를 몰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부싸움 중에는 지켜야 할 성역(聖域)이 있다고 한다. 혼전(婚前) 남녀 관계의 경력을 묻거나, 친정이나 시댁 쪽의 별 볼 일 없는 가문(家門)을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입으로만 업보를 짓는 게 ‘口業’ 아니다
바른 말 한마디 세상 이롭게 한다

부부싸움은 어투의 높낮이에서, 또는 표정의 업-다운에서 휴전(休戰)도 올 수 있고 3차대전으로 확전(廓戰)도 되는 모양이다. 가정의 평화, 부부의 금슬은 주고받는 말씨에서 싹이 돋을 수도, 오그라들 수도 있을 터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떨리듯 더듬거리며 소곤거리듯 하는 사랑 고백. 미안할 때, 혹은 크게 고마울 때,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 마디는 감동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여,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기고 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供養具)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자, 이제부터 미묘한 향의 말 한마디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자. 칭찬은 밑천이 필요 없는 남는 장사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지 않던가.

불교의 보시바라밀에는 애어(愛語)보시(布施)가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에까지 밝게 하는 빛줄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연화제 성역화… 대학불교 변화·발전 기폭제 될 것”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대담

대학불교운동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와 고려대불교학생회교우회(이하 고불회교우회)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월정사서 연화제 50주기를 열고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현 고불회 회장 정원식을 비롯해 고불회 교우회 대표로 법안 스님, 63학번 서상욱, 61학번 이채영 등 11명이 대담자로 참석했다.

대담의 화두는 연화제 역사를 되짚어 한국 대학생 불교 운동의 새로운 변혁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담을 요약 정리했다.

월정사=박아름 기자



고려대불교학생회와 고려대불교학생회교우회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월정사서 연화제 50주기 행사를 열고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여 대학생 불교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자=지금부터 ‘대학불교운동과 연화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1963년 대불련 창립 이후 1년 뒤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가 창설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불교의 주축이었던 고불회가 1965년 7월 월정사 수련대회에 참가 하던 중 상원사 참배를 다녀오다 급류에 쓸려 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를 기려서 매년 추모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50년째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연화제가 고불회 선배님들에 대한 추모 자리로만 유지돼 왔지만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화제를 돌아보고 현대판 청년 불자 운동의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길 바라며, 활발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자=창립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채영=조계사서 대불청 법회에 동참하던 때입니다. 청년회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절을 할 줄도 모르고 법회 수준이 매우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조계사에 있던 대학생들끼리 모여 62년도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서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자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63년 3~4월에 각 대학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이 합치됐습니다. 그 후 8월 6일 자로 불교언론 등에 9월 중 창립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각 대학 불교학생회는 없었고 서울법대 법불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다섯 명이 조계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조금 빨리 불교학생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다고 하니 도선사 청담 스님, 탄허 스님, 불국사 능가 스님, 법주사 추담 스님, 칠보사 석주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열면 큰스님들이 오셔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기꺼이 법회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자=참사 당시 사회적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서상욱=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굉장했었습니다. 조계사에 마지막 시신이 들어설 적에는 경내가 모두 울음바다였고 저명한 분들도 조문을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자=고불회 사건으로 인해 이후 서클 활동이 중단된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희경=1965년 한일협정반대시위로 대학생들이 발길을 돌려 대부분 대학 서클활동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68년 연등회가 재개돼 교우들과 함께 연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 달에 한번 스님들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도 스님인 능가 스님과 함께 지도 법사도 따로 두고 고불회 활동을 펼쳐오다 70년도에 수련대회를 재개했습니다.

△사회자=고불회 지도 법사 중에는 고승대덕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채영=창립 당시는 도선사 청담 스님, 그 다음 탄허 스님, 능가 스님, 무진장 스님, 월주 스님, 종범 스님 등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고불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회자=서상욱 법우는 당시 연화탑추진위원회를 발족하셨는데, 당시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서상욱=7월에 사고가 난 후 제가 9월에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탑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66년도 7월 연화탑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사회자=연화제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식=1970년대 말부터 대학가에 민주화 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려대학 불교학생회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도 모두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더구나 그때까지는 선배님들이 돌아가신 날짜인 7월 7일을 지켜 제를 지내다 보니 평일인 경우 졸업생들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해마다 삼삼오오 아니면 혼자라도 연화제를 올리기 위해 월정사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6년도 입학한 후에는 혼자라도 와서 재를 모신 적도 있습니다. 제사 비용도 그 전에는 재학생들이 모여서 마련했는데 민주화 운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과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드려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지원받아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 매년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7월 7일을 고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공론이 모아져 7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주말에 연화제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자=탄허 스님과 고불회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옥화=탄허 스님께서는 60년대부터 고불회와의 인연으로 월정사 수련대회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허 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출판본을 저희가 교정보기도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고불회가 대강연회를 열면 마다하지 않고 항상 찾아주셨습니다. 원래 탄허 스님이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마다하지 않고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정념 스님은 월정사 주지로 계신 만큼 연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50주기를 맞는 연화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념 스님=저는 출가한 후 80년 초에 월정사에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때 민주화 바람이 불어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했고 15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연화제에 대한 의식이 사중에 크게 미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정사에는 연화탑이 있었습니다. 연화탑을 통해서 고불회 회원들이 수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연화제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연화탑의 존재로 사중 스님들도 항상 연화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재양성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탄허 스님께서 특별히 고불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월정사와 고불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화제를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자=미디어붓다 이학종 대표님은 연화제 30주기 때도 오셔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학종=너무 오래되어 자세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불회와 동문회의 열정과 열기가 다른 대학보다 남달랐다는 것은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30주기 때 참여한 고불회 회원들은 돌아가신 선배님 열 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불교의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사회자=현 고불회 회장 정원식 후배는 50주기에 상주를 맞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원식=연화제에 세 번째 참석하는데 그동안 6-70학번 선배님들이 연화제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며 ‘모든 학교를 통틀어 졸업생 선배들이 행사를 함께 참석하고 애정을 가져주는 동아리가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끌어 오신 50주기에 재학생을 대표해 상주로 참석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재학생들의 뜻을 모아 고불회를 더욱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법안 스님은 고려대 출신으로서 연화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스님=고불회 활동을 한 것은 입학 후 잠깐일 뿐이지만 학생들의 구도 열정이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화제가 연화탑을 중심으로 청년 불교 구도 정신을 이끄는 성지화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살신성인 하신 선배님들을 기리는 것 이상으로 한국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선봉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곳이 월정사입니다. 주지 정념 스님께서도 연화제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추진이 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회자=법안 스님 말씀대로 대학불교, 청년불교의 침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월정사는 대한민국 신행을 받드는 문수성지로서 50년간 고려대를 품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견에 주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념 스님=대학 불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고불련은 대학 불교 운동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월정사는 고불회의 열정과 지극한 원력이 알알이 빛나는 곳입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매해 동문들이 함께 모여 연화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를 넘어 한국 사회 흐름과 전반이 매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 동아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방향성을 새로 수립해야할 때입니다.

이번 50주기 연화제에 참석한 고불회 동문들을 봐도 재학생 보다는 동문들이 더 많습니다. 희생자들과 함께 의로움으로 시대를 헤쳐나가고 여러 활동을 함께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겠지만 이제는 동문회만큼 재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야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며 선배들의 구도 열정을 다시금 새겨 재학생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전하고, 이 시대 대학불교가 나가야할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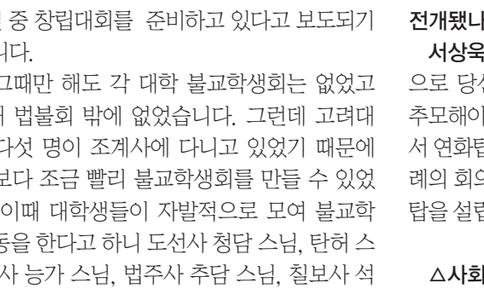
대담 참가자

서상욱(63학번 정외과, 사고당시 수습지원단)/이채영(61학번 상경대)/태고종 법안 스님(경제과 78학번)/최옥화(72학번 국문과)/이영찬(74학번 경영학과)/이동식(76학번 기계공학과)/정원식(현 고불회장 11학번)/이희경(68학번 통계학과)/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월정사 주지 정념 주지스님/사회자=이건식(심리학과 78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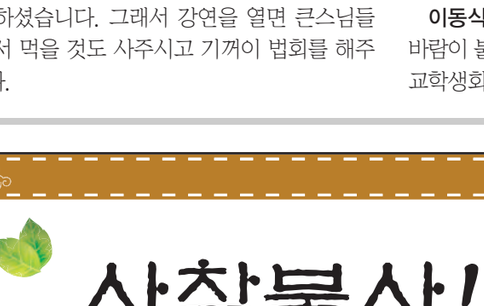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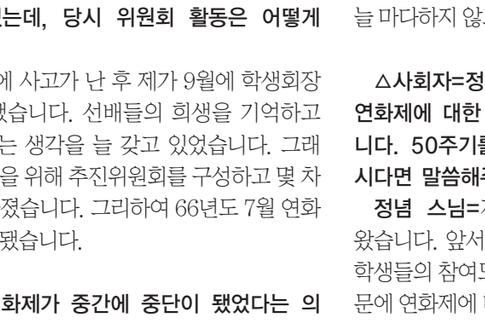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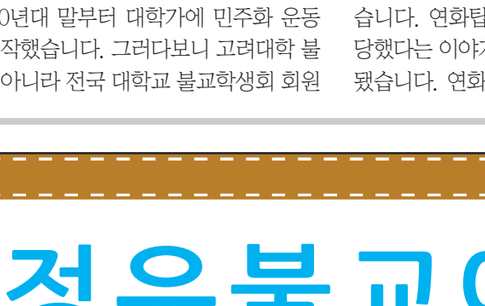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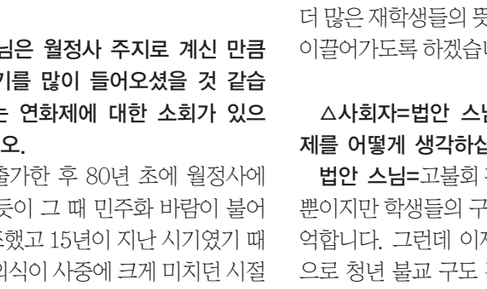


장흥 보림사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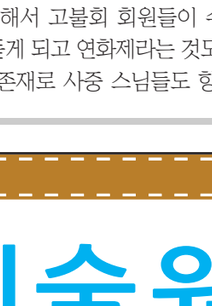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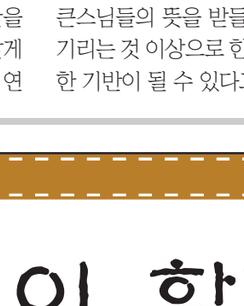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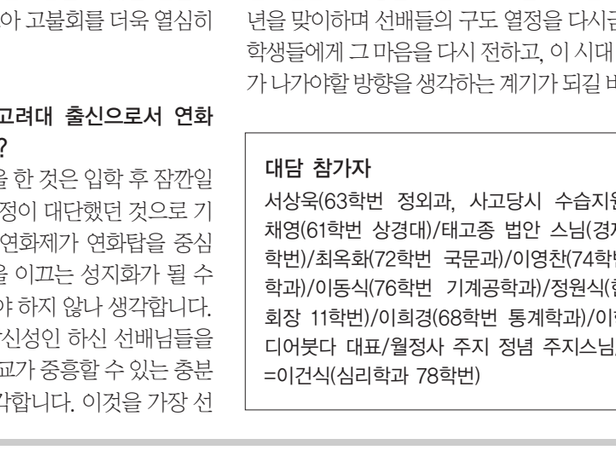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청년붓다’운동… 대불련 포교 대안



7월 5일 월정사 대웅전서 열린 연화제 50주년 추모법회.



추모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제2의 대학생 포교 불사를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세미나

고려대불교학생회가 50주기 연화제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향후 50년을 도모했다. 연화제를 더 이상 고려대만의 추모행사가 아닌 선배들의 구도정신을 잇는 자리로 발전키 위한 초석이다.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와 고려대불교학생회교우회(이하 고불회교우회)는 7월 5일 월정사 대적광전서 연화제를 올리고 연화제 관련 학술세미나, 월정사와 MOU 체결, 연화탑 참배 등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불회 및 고불회교우회 회원, 유가족 대표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고인들의 원력지심을 이어받아 후배 불자들인 고불회와 대불련이 구도 열정을 꽃피울 것”을 당부했다. 법륜전으로 이동해 진행한 연화제 관련 학술세미나는 고려대 조성택 교수와 동국대 김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다음은 세미나를 요약정리 했다. **월정사=박아름 기자**



조성택 교수

‘사람이 부처다: 우리 시대 불타관’

부처님이 33세에 성도하셨을 때 부처님 제자들도 역시 대다수가 20대입니다. 부처님 첫 제자 중에는 부처님보다 한두 살 많은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 2~30대가 주류였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당시 사회를 전적으로 변혁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불교를 전통종교라고 하는데 전통종교 맞습니다. 오래된 종교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 자체는 대단히 젊습니다.

오늘 연화제에서 ‘성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지화의 진정한 의미엔 우리 기억을 과거 50년 전에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희생된 10명의 구도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붓다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10명의 선배님들은 20대였습니다. 그 분들의 젊은 날의 뜻을 이어받아 청년붓다운동으로 승화시켜야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존립 문제입니다. 우리 문명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우리의 시대적 역할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불교를 더 젊게 기억해야합니다. 그 출발점을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열 분의 선배님들의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석가세존께서 통찰하신바 존재의 실상이며 이는 곧 불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하는 자기정체성입니다. 이는 곧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스스로 본래부처라는 자각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래부처는 불교인의 자기정체성으로서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천수행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본래 부처란 부처가 나의 실상임을 자각하고 지금부터 부처로 살아가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불성(因佛性)의 발보리심을 실천하는 가운데 석가세존의 원만극과의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보리심은 진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불성이 미래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갖추어진 현실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자각에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본래 부처’는 스스로가 자유로우며 주체적이며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부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현실에 대한 불교의 책임을 자임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붓다운동을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진흥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불교인들의 역사적 책임의식이 청년붓다운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더욱더 젊어져야하며, 그 젊은 불교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계로 바꾸는 데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식 교수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

대불련은 1963년에 출범되었습니다. 이 50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대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Ⅰ. 1963년~1972년, Ⅱ. 1972년~1980년, Ⅲ. 1981년~1994년 Ⅳ. 1994~현재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1기(1963~1972년) 시대에는 오늘 주제인 연화제 주역인물과 직접적인 관련 시기입니다. 5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열렬한 신심으로 수행을 동반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도자(求道者), 구도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또 수행하고,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2기(1972~1980년)는 대학생들이 신앙과 구도에 개념에서 이탈이 되면서 민족이 우선됩니다. 당시 대불련은 70년대 민중과 민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해를 연구하는 바람이 일었습니다.

12년에 걸친 3기(1982~1994년)는 완전히 민중불교가 고착화되어 요즘말로 ‘운동권불교’가 됐습니다.

4기는 94년도에 조계종단 대변화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던 때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허 스님의 교육 이념과 정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허 교육의 특징은 단순한 지식, 종교적 진리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허 스님에 있어서 구도는 인간의 삶의 근원을 묻고, 그 방향을 찾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생활의 지표를 찾는 것이지요. 또한 탄허는 구도를 전문 수도자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탄허 스님은 종교를 세계관과 우주관의 본질이면서도 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인간 생활의 근원 및 지침, 실천이 수반된 인격완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종교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교육의 핵심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법일기

‘아뿔싸!’

불교방송 TV프로그램을 하나 하기로 PD와 가벼운 마음으로 말빚을 지었는데 방송 시작을 단 두 달 남겨놓고 연락이 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먼저 교재를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45일간의 극락여행이 시작되었다.

눈 뜨면 극락을 생각하며 글 쓰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잘 때까지 극락에 관한 문헌들을 읽고 사유하며 글을 썼다. 오매불망 극락만을 생각하며 탄생한 교재가 바로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다. 2015년 7월 4일 BBS 불교인문학 강의 녹화가 마무리되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불교인문학의 개념들을 살펴보며 불교가 얼마나 훌륭하고 수승한지에 대한 끝없는 자랑이 이어졌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불교 중에서도 극락세계라고 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정토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며 찬탄하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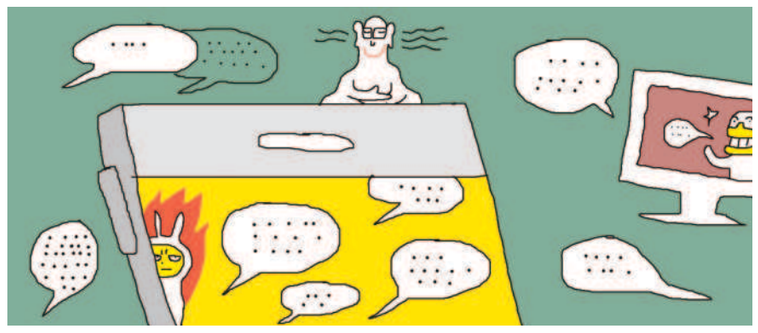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강의 후반부 내내 공부하는 대중들과 입을 모아 합송한 문장이 하나 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나무아미타불!”

죽음의 염라왕이 쫓아오는 그 순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움에 벌벌 떤다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깜짝 놀란 순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엄마야!”를 외치듯 입에 나무아미타불이 습관처럼 붙어 있다면 임종 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에 습관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1일 동안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면 안정되기 시작하며, 100일을 반복하면 그 습관은 완성된다고 한다. 훌륭한 선습善習 하나를 몸에 익히는데 고작 100일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러한 선습 몇 가지만 삶에 이식하면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100일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붓다의 설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이 생겨 큰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 붓다의 담마의 소리로 장엄된 세계가 극락인데, 지금 우리 삶도 이런 담마의 소리들로 장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벨소리, 알람 등 일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로 바꾸는 것이다. 눈을 뜰 때 아미타불의 알람으로 기뻐하며 눈을 뜨고,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되뇐다. 소리를 바꾸는 순간 스마트폰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극락조의 아름다운 염불이 된다.

또한 혼자서 익히기 어려운 습관을 대중의 힘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도 스마트폰 속에 있다. 행복문화연구소에서는 염불습관을 들이고 싶어 하는 대중들을 위해 카카오톡 염불 단체방을 만들고, 하루 6번 정해진 시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실천한다. 한번에 걸리는 시간은 30초, 6번이면 3분이다. 하루 3분 투자해서 100일의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을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극락을 꿈꾼다. 하지만 대개 꿈으로 그치고 마는데 현실화하고 싶다면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하라, 극락세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꿔라, 현실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염불하라, 내 안의 무량광을 깨워내기 위해!



내면의 무량광을 깨워서 행복에 대한 밝은 확신을 준비하는 것, 전법하는 자의 필수적 의무다.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붓다의 딸들 '사캬디따' 공존을 논하다

6월 23~30일 14차 세계불교여성대회 인도네시아서 성료

불교 '여성주의'가 지닌 특유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23~3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는 자비와 사회정의(Compassion and Social justice)를 주제로 제14회 세계불교여성대회 '사캬디따'(회장 뗀진빠모)가 개최됐다. '사캬디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딸이라는 의미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여성 불자의 시각으로 정의 ·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열렸다. 총 40개국으로부터 모인 1천여 명의 불교도와 비불교도들은 승가와 재가 불자들의 경계를 허물고, '주체적 여성'이라는 공공의 대의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연대 방법을 모색했다.

행사는 논문 발제 및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을 비롯해 불교 관련 워크샵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역사 속 불교와 여성관 관련 다양한 논제들을 토의하며 세계 불교도와 연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과거 사회적 합의 구조에서 배제돼 왔던 기존의 여성상을 되짚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여성상 수립"에 모두 동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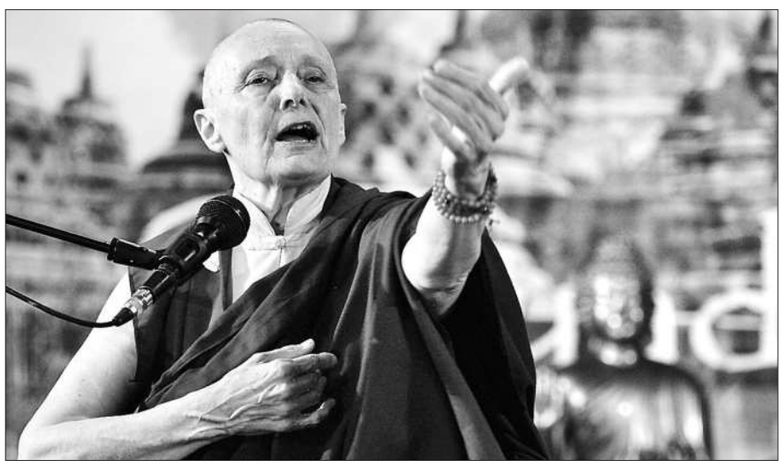
또한 세계적인 명상가 아잔브람은 '현재에 충실한 삶' 주제로 법문을 열었다. 아잔브람은 태국에서 출가한 남방불교 수행자로서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아잔브람은 "이 시대의 승리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신념을 지니고 시대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창조적인 여성, 변화와 유지를 주도하는 주체적 여성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잔브람은 사캬디타에 대해 "각기 다른 맛의 조각 케이크들이 모여 하나의 훌륭한 케이크로 완성된 것"이라고 비유하며 "연민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캬디타라고 하는 한 톨의 씨앗에서 피워낼 수 있는 천 송이의 꽃과 같다"고 사캬디타의 연대를 격려했다.

이밖에도 불교의 세계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춰진 분야의 고초를 토로한 논제도 있었다. 사캬디따 회장 뗀진빠모는 '외국인 출가 수행자가 겪는 수행의 어려움과 승단의 과제'를 발제해 주목을 받았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떠나 미지의 지역서 출가한 승려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다룬 것이다.

뗀진빠모는 소외된 비(非) 히말라야 지역 출신 여성 출가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 세계 스님들을 위한 거처 마련, 교육 증대 편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뗀진빠모는 "비(非) 히말라야 출신 외국인 여성 수행자들이 티베트불교 스승으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뗀진빠모는 잉글랜드 출신 티베트불교 수행자로서 티베트불교 까규빠 종풍을 따르는 인도 북부 돈규가찰링의 사원장이다. 저서로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를 펴냈으며, 티베트불교의 비구니계 수계 제도 확립 관련 오랜 시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14차 세계불교여성대회가 6월 23~3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서 열렸다. 회장 뗀진빠모(사진)는 "여성 불자 특유의 자비와 관용으로 시대적 현안들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승가와 재가 불자 경계 허물어
주체적 · 적극적 여성상 강조
전 세계 비구니 네트워크 구축 제안
한국 여성 불자 50여명 참가

한편 한국도 승려와 재가자로 구성된 총 50여 명의 여성 불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단은 발제 논문으로 △현대 한국 불교 승가의 역할 재편성과 자비 실천의 개인사례(효석 스님) △불교의 보편성에 기반한 사캬디따 승단(조성자) △지율 스님의 환경보호를 둘러싼 법정 여정(리나 콜레이라트) △승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운선사 전설에 나타난 비구니 전쟁 영웅(이향순) △조선 전기 승가와 여성 불자의 소통(소운 스님) △한국의 자기 관리 열풍과 페미니즘의 불편한 관계(강석주) △초기 중국불교에서 비구니 교육(정완 스님)이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 2013년 미국 · 캐나다 · 독일에 이어 사캬디따 한국지부(공동대표 조은수)를 창립한 바 있다.

사캬디따는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4대 달라이라마(뗀진갸초, 80) 제안으로 1987년 인도 보드가야서 출범했다. 수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여성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여성 평등과 인류 행복을 위한 연대로 2015년 사캬디따 결의안을 내놓았다. 차기 세계불교여성대회는 2017년 홍콩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가연숙 객원기자

돈 구걸하는 '가짜 스님' 판친다

스님 행색으로 세계 주요도시서 행인 돈 '갈취'

뉴욕 한 복판 타임스퀘어에는 미키마우스, 슈퍼히어로, 엘비스 프레스리 등 다양한 코스춤(특정 의상)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즐비해있다. 지난해에는 스님 분장을 한 채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발견돼 입방아에 올랐다.

'Lion's Roar'은 6월 30일 세계 각국에서 판치는 '가짜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 주요 도시서 스님 행색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ion's Roar'은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은 남자들이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못살게 주는 한편, 때때로 길을 가로막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퀘어서는 가짜 스님이 골칫거리로 떠올라 '새로운 스퀴즈 맨(squeegee men, 신호 대기 중인 차 앞 유리를 닦아 주고 돈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사람을 지칭)' 또는 '망나니(holy terrors)'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Lion's Roar'는 "홍콩 가짜 스님, 뉴욕 가짜 스님 등을 고발하는 SNS 페이지가 생길 정도로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The New Zealand Herald'는 지난 1월 "가짜 비구니로 훈련받은 여자 증언으로는 배후에 가짜 스님을 만드는 중국인 연합체가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 비구니 복장과 교육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이 그 연합체에 지불해야하는 돈은 약 1,613달러(한화 약 1백 83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비구니 행세로 모은 돈의 일부는 연합체에 줘야 한다.

이에 대해 'Lion's Roar'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라며 "불교는 전통적으로 음식을 보시 받는 탁발 문화는 있으나 돈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스님은 절대 진짜 스님이 아니다"고 충고를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 주요도시서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가짜 스님'이 점점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출처=New York Post

달마라지카 사원, 가난한 이슬람교도에 '자비행'

라마단 기간 중 불우한 이슬람교도에 이프타르 무료 제공
"남아시아 종교계 주목해야 할 종교 화합 실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달마라지카(Dharmarajika) 사원이 이슬람교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글라데시의 한 불교사원이 수백여 명의 이슬람교도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음식을 제공해 화제다.

'Tribune'은 7월 7일 "남아시아 국가에서 불교와 타 종교 간의 사회적 소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달마라지카(Dharmarajika) 사원이 가난한 무슬림에게 이프타르(Iftar)를 제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코란〉에서 신성한 달로 주목한 이슬람력 9번째 달을 말한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해가 지면 금식을 중단하고 일몰 첫 만찬인 '이프타르'를 먹는다.

달마라지카 사원의 숫다난다 마하세로(Suddhananda Mahathero) 스님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자비행"이라며 "단식 후 몸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슬람교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Tribune'에 따르면 7월 5일 저녁에는 3백여 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수도 다카의 바사보 지역에 있는 달마라지카 사원 일주문 앞에 모여 이프타르 시간을 기다렸다.

당시 이슬람교도들의 손에는 젊은 스님들이 나눠준 배식 번호표가 있었고 지역 경찰들은 배식 질서 유지에 힘썼다.

자신의 배식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메나 카툰(Amena Khatun · 70) 씨는 "스님들의 자애로운 봉사로 맛좋은 아프타르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달마라지카 사원에 오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다"고 말했다.

아사드 우짜만(Asad Uzzaman) 경관은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금식하는 이웃 종교인에게 맛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종교 간 분쟁이 빈번한 남아시아 종교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종교 화합의 실례"라며 "달마라지카 사원의 대중 스님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Tribune'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수도 다카에서는 수천여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여 개 사원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의 1억 6천만 인구 중에서 이슬람교도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49년 설립된 달마라지카 사원은 이번 무료 급식 외에도 7백여 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플루스트 '나왕 케촉' 자선 연주회

7월 12일 첫 티베트 불교센터 건립 기념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된 티베트 플루스트 나왕 케촉(Nawang Khechog)이 코네티컷 소도시 레딩(Redding)에 불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Redding Pilot'는 7월 5일 "나왕 케촉이 7월 12일 뉴욕의 한 유니테리언 교회(Unitarian Church)에서 티베트 불교사원 '도 니각 쿤펜 링(Do Ngak Kunphen Ling, 이하 DNKL)'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레딩 지역 사회에서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불교의 교리철학 · 명상 등을 주제로 한 무료 강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 DNKL 건립 추진위와 도서출판 카루나(Karuna)의 후원으로 이번 연주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나왕 케촉을 비롯해 미국의 인기 드라마 '예쁜 거짓말쟁이', '뱀파이어 다이어리' 등의 OST를 맡았던 싱어송 라이터 케이티 코스텔로, 코네티컷주립대학 오케스트라 이사 및 맨해튼 현악 사중주의 리드 바이올리니스트인 에릭 루이스, 시타르 연주자 노 디너스테인 등이 무대에 올랐다.

'Redding Pilot'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일부는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번 연주회에 앞서 나왕 케촉은 콜로라도 비전어리 어워즈(Visionary Awards)에서 올해 최고 음악상(Best Music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法句經 법구경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護法者)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 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 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찬불가, 크로스오버로 무대에 서다

무소의 뿔 정기공연
7월 24일 새천년홀에서

찬불가가 국악, 클래식, 가요 등과 만나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시도한다. 불교음악 공동체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이 7월 24일 저녁 7시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무소의 뿔'은 작곡가 이진구 씨를 총감독으로 수안 스님, 정묵 스님, 권성혜 씨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공동체다. 지난 2012년 음악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위해 미국에서 창단되었으며 미국 뉴욕의 원각사와 불광선원에서 공연했다. 2014년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기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공연 1부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이 작사한 '산사의 새벽 종소리'를 불교 고유의 범패와 서양음악의 크로스오버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대행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들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선불남성합창단과 다워합창단을 비롯한 5개 합창단이 '밀레니엄 아리랑'을 합창하며, 무소의 뿔 정단원이자 케이팝 스타 출신 가수 그레이스 신,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조주선, 소프라노 이현주와 유현주가 함께한다.

특히 정관 스님의 시에 이진구 씨가 곡을 쓴 '산사의 새벽'은 일반인들에게 소외된 범패의 대중화를 꽤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에서 범패의 다양화를 시도



불교음악공동체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이 7월 24일 저녁 7시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공연 장면.

1부는 범패와 서양음악의 만남
한마음선원합창단 음성공양도
2부, 부처님일대기 뮤지컬 중 선별
9년간 준비… 韓 · 英버전 제작

한 작곡가 이진구 씨는 "범패는 3대 성악곡 중 하나로 매우 훌륭한 음악이지만 불교의식이 아니면 듣기가 힘든 곡이다. 불교의 소리를 서양음악 혹은 판소리와 결합해 대중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산사의 새벽은 신범패 운동을 하는 정목 스님과 함께 소프라노 이현주 씨가 참여해 새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연의 절정에 다다른 2부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단원이며 한국해금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정림 해금연주가의 연주로 시작된다. 또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 중인 'Under the Bohi Tree' 중에서 6곡을 선별해 보여준다. 특히 KBS 남자의 자격에서 박칼린 음악감독과 함께 합창단을 지도했던 뮤지컬 배우 최재림을 비롯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방글아, 바리톤 이상준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이진구 씨는 "9년 전부터 준비해온 공연이다. 현재 영어 버전과 한국 버전으로 이원화해 제작을 진행해오고 있다. 내년 즈음 완성해 미국에서 먼저 공연을 갖고 한국 공연에서도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안 스님의 작사에 이진구 씨가 곡을 붙인 '백련' '머물고 싶은 그 곳' '언제나 어디서나' 등은 찬불가에 트로트 발라드 왈츠풍을 더한 곡으로 눈길을 끈다. 수안 스님은 "찬불가지만 불교용어는 넣지 않았다. 다만 가사 안에 불교적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불자 비불자 모두가 함께하며 편하게 듣고 불법의 진리를 배웠으면 한다"며 공연의 의미를 전했다.

제4회 무소의 뿔 정기공연의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으로 무소의 뿔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도 판매된다. (010)4759-05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찬불동요로 천진불에게 음성포교 20년

풍경소리, 40집 앨범 '눈길'



새로 발표된 풍경소리 40집 앨범 표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좋은 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 앨범 '풍경소리 40집'을 발표해 화제다. 1996년 1집을 시작으로 풍경소리는 매년 두 장씩 여름 겨울 불교학교를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발표한 것이 벌써 마흔번째다.

늘 새로운 곡을 작사작곡해 찬불동요 발전에 기여해온 점도 눈길을 끈다.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조계사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곡을 만들게 되었고 1년 정도 준비해 1996년 첫 음반을 내게 되었다. 찬불동요라는 단일음반 시리즈로 40집이 나온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저 보람되고 좋아서 20년 동안 꾸준히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온 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 각종 행사 및 산사음악회와 발표회에서 널리 사용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곡만 600여 곡이며 70여 명의 작곡자들이 참여했다. 카세트테이프로 시작해 현재의 CD 음반으로 변화되며 20여년 변천사를 음반 표지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 실장은 "그간 고비도 많았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는데 특히 10집을 만들 때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사정을 들은 운문사 스님들이 성금 500만원을 모아주어 다시 음반을 낸 사연도 있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 구인사, 진각종 등 곳곳에서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작사, 작곡자, 가수 모두가 무보시로 참여하는 등 풍경소리 음반은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문학가 김종상 선생의 작사부터, 반영규, 황확현, 지금은 타계한 박동원 · 유익상 선생 등 다양한 불자 음악인들의 참여도 풍경소리가 40집까지 나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

1996년부터 꾸준히 음반 발표
11월경 창립 20주년 음악회 예정

이에 풍경소리는 11월경 풍경소리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풍경소리의 취지를 잘 알릴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풍경소리 40집에도 천진불들을 위한 다양한 찬불가들이 담겼다. 부처님을 사랑하고 절을 아끼는 천진불들의 마음을 그린 '우리 절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와 법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나타낸 '행복한 미소', 축제처럼 즐기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난타공양'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을 담아냈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 공모 요강 발표

문인화 부문 확대…8월 2일부터 접수
5회 사진공모전도 개최, 접수는 10월 15일까지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이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과 제5회 불교사진공모전을 갖는다. 원각서예대전은 문인화 부문을 추가 올해부터 '원각서예문인화대전'으로 치러진다. 공모부문은 한글 · 한문 · 국한문 · 소자 · 혼서 · 사경 · 문인화 등 7개 부문이며,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규격은 전지(가로70㎝×세로135㎝), 반절지(가로35㎝×세로135㎝)이며, 사경은 글자수가 200자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 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다. 단 미협, 서협, 서가협 초대작가 이상은 제외다.

△대상(천태종 종정상) 1명에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 △최우수상(천태종 총무원장상) 1명에는 상금 400만원과 상패 △우수상(금강신문사장상) 10명에는 상금 각 100만원과 상패 △장려상 15명에는 상금 각 30만원. 특선과 입선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9월 5일을 전후해 천태종과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작품은 8월 24일~28일(우편 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2동 308호)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 및 수상 작품 전시회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천태종은 또 제5회 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작은 불교를 소재로 한 국내 · 외 미발표작품으로, 작품규격은 디지털 파일 3024×2016픽셀 이상의 JPEG파일(최소 6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이며 작품명 · 성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ggbns@ggbn.co.kr) 또는 CD로 접수(천태종 서울사무소)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22일 금강신문 홈페이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 초 전시회는 12월 2일~8일(7일 휴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금상(천태종 종정상) 1명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 △은상 2명(천태종 총무원장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동상(천태종 종의회의장상) 3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가작 5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30만원 △장려(금강신문사장상) 5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10만원 △입선(총 출품수 20% 이내)에는 상장이 수여된다. (02)723-1559

정혜숙 기자

BTN, 20년 성장 발전 담은 社史 발간

스토리텔링 형식의 7개 테마로 구성



BTN불교TV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역사를 담은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역사를 담은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BTN은 국내 최초 불교영상포교채널로서 1995년 3월 1일 개국 하여 올해 3월 20주년을 맞았다.

이번에 발간한 사사는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 이라는 주제로 제작됐으며, 통사(History)형태가 아닌 , 7개의 주제별 테마로 묶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나다-보다-열다-걷다-울다-품다-날다'로 이루어진 7개의 테마는 부처님의 탄생 첫 일곱 걸음을 뜻하는 것으로 BTN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엮었다.

이번 20년 사사 발간에 대해, 구본일 대표이사는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소중한 사료 · 증언 · 기록물들을 2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 체계적으로 정리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 BTN불교TV가 이번 사사편찬을 통해 반성과 자기성찰, 한국불교대표방송으로 성장한 현재의 모습과 다가올 BTN의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BTN 20년사는 연혁뿐만 아니라 특별인터뷰와 방송제작 에피소드, 인사이드 스토리 등 BTN 임직원들의 24시간 방송제작의 생생한 경험담을 넣어 사실성을 높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본책과 별책(영문요약판)으로 구성된 사사는 각종 불교 단체 및 기관과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빙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벽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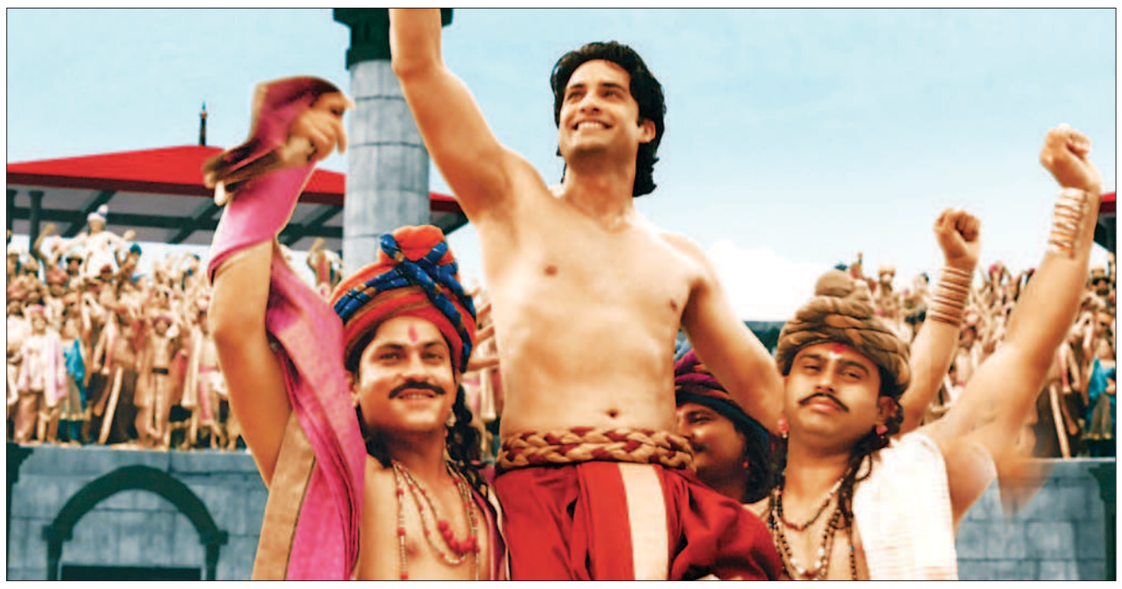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대구) 1899-9532

BTN 드라마 '붓다'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지난 줄거리

끊임없이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왕 자리를 탐내는 드로나단 부부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왕자 싯다르타가 탄생한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왕비 마하마야는 왕자를 낳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숫도다나 왕은 왕자를 용감한 전사로 키우고자 한다. 하지만 어느날 왕 앞에 나타난 아시타 성인은 왕자가 성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를 부정하고 싶은 왕, 하지만 왕자는 자비의 마음을 내며 세상을 대한다. 또한 분노로 가득 찬 사촌 데바닷타와 번번이 갈등을 겪는데…



왕자 싯다르타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왕은 걱정하며 왕자의 스승 카운다냐에게 왕자를 무사로 길러낼 것을 당부한다. 주변의 독려 끝에 검시합에서 승리를 거둔 싯다르타의 모습.



누명을 쓴 고리를 의심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 말하는 싯다르타



형 데바닷타와의 갈등을 피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스승과 명상하는 싯다르타(사진 왼쪽).



십년만에 싯다르타 왕자를 다시 만난 야소다라의 모습

한 남자가 궁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는 왕이 만든 신도시로 옮겨간 백성이었다. "폐하는 저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저희를 다 죽이려 하십니다." 남자의 말에 놀란 왕은 이렇게 되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것은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모두에게 주었다."

"지금 신도시에 곡식이 한 톨도 없어 다 굶어죽어 가고 있으며,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남자는 쓰러지고 만다. 이 광경을 본 싯다르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러지냐고 묻는다.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고 대충 둘러댄 파자파티는 "삶의 어떤 문제는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게 된다"라는 조언을 덧붙인다.

분노를 가누지 못하는 데바닷타
자비의 마음을 내는 싯다르타
대비되는 성격으로 잦은 충돌
성인 싯다르타 야소다라와 재회

이 과정에서 바이샤 고리가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 왕을 사칭해 곡식을 보내지 말라는 고지를 보냈고 그는 이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예전 재판에서 싯다르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착하게 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죄를 짓게 된 고리는 왕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고리는 싯다르타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싯다르타는 고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네"라고.

왕자 싯다르타는 침착성이 대단하고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며 무용도 잘한다. 또한 왕자는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지만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왕은 걱정하며 왕자의 스승 카운다냐에게 왕자를 무사로 길러낼 것을 당부한다.

데바닷타는 불가촉천민 지역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 스승 카운다냐는 이런 데바닷타를 나무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충고한다. 싯다르타는 데바닷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슬픔에 빠져 나무 아래 홀로 명상을 한다. 스승 카운다냐는 왜 여기에 앉아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곳으로 왔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싯다르타와 데바닷타가 등장을 한다. 활 시합에서 데바닷타는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떨어트리며 용맹을 떨친다. 하지만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싯다르타에게 데바닷타는 이렇게 얘기한다.

"전쟁에서는 접시나 공기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아우야.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가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에 싯다르타는 팔찌의 구슬을 하늘 위로 날려 두 동강이를 내면서 뛰어난 활실력을 보여준다.

이후 둘은 검대결을 통해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는 시합을 벌인다. 데바닷타는 이 시합에서 싯다르타를 없애버릴 결심을 한다. 가면을 쓰고 시합에 임하는 경기에서 싯다르타가 붉은 가면을 쓰고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드디어 검 시합이 열리는 날! 데바닷타는 붉은 가면의 무사가 싯다르타임을 확신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었고 이어 싯다르타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싯다르타는 데바닷타를 공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 그리고 왜 피하기만 하냐는 스승과 데바닷타의 비난에 결국 몇 번의 공격을 가하고 데바닷타의 혈자리를 눌러 잠깐 기절 시키는 것으로 시합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 시합을 구경하러 온 야소다라와 싯다르타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TN Buddhist True Network 드라마 '붓다'를 1회부터 12회까지 시청할 수 있는 **붓다데이**를 진행합니다.

7월 15일(수) 밤 9시 · 18일(토) 새벽 1시: 1~3회
7월 16일(목) 밤 9시 · 19일(일) 새벽 1시: 4~6회
7월 22일(수) 밤 9시 · 25일(토) 새벽 1시: 7~9회
7월 23일(목) 밤 9시 · 26일(일) 새벽 1시: 10~12회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전해져

늘 뭔가 헛헛했다. "우리나라는 얼음판의 얼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렇게만 여기다가 김연아라는 걸출한 선수가 나옴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런 소리는 이제 쑥 들어갔다. 비슷한 느낌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다.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예수의 삶과 그 주변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볼 때마다 어찌 이리도 아름답게 그리는지 궁금하고 부러웠다. 부처님 이야기도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흥미진진하게 그릴 수 없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 섞인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인도 드라마 붓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기쁨을 맛보았다.

불교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영된 붓다의 삶은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영화를 넘어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라서 매 회마다 가져야 하는 긴장미를 적정하게 편성한 재미가 있었다. 아니 매회 한 편의 영화였다. 그동안 보아왔던 인도영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영화는 세 얼간이, 조다 악바르, 봄베이, 용감한 자가 신부를 얻는다, 우리가 만났을 때 등 이십여 편을 넘지 않는다. 그것은 할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온 극장가의 흐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 인도영화는 대개 슬기로움을 강조하고, 슬기로움은 존재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불교와 힌두교 등 인도의 사상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거기에다가 경쾌한 노래와 춤들을 삽입하여 쉽게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여배우의 눈빛과 몸매가 관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드라마 붓다에서도 인도영화의 특징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흥미진진한 데바닷타와 싯다르타를 둘러싼 갈등 소재를 잘 다루었다. 특히 데바닷타의 어머니 망갈라와 싯다르타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 파자파티의 갈등구조는 드라마의 전형이다. 아! 숫도다나와 망갈라가 연인사이였다는 사실,마하마야가 죽고 나서 왕비가 된 줄 알았는데 마야의 부탁으로 미리 제2비가 되었다는 것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드라마를 흥미롭게 보게 한다.

인도 영화 특징 살린 드라마
자비의 싯다르타 행보 기대

게다가 마가다, 바이살리 등 16국에 둘러싸여있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크샤트리아로서 당연하게 왕위를 이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숫도다나왕과 그의 동생인 드로다난의 물고 물리는 이야기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심지어는 드로다난과 망갈라의 아들인 데바닷타가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숫도다나의 아들이 태어나서는 곤란하므로 임신한 마하마야왕비의 음식에 독을 넣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발각되어 살패하였지만… 망갈라의 독백이 화면에 지나간다. "싯다르타에게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 싯다르타가 수행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왕위가 데바닷타에게 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싯다르타는 꾸준히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간다. 어린 나이 때부터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게 하려는 숫도다나의 욕심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화살에 맞고 신음하는 백조를 치료해서 목숨을 살리는 모습은 가슴을 울린다. 싯다르타는 쏘아서 죽인 사람이 주인이라는 데바닷타에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말 가운데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의 불교공부에서 나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싯다르타의 존재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드라마의 흥미를 이어갈 지도 관전 포인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동의 소재이지만 숫도다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며, 데바닷다나 망갈라의 입장에서는 싯다르타의 위크포인트(약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2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3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4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6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7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8	지원스님100세건강법	지원스님	고려원북스
9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10	불자로산다는것	도일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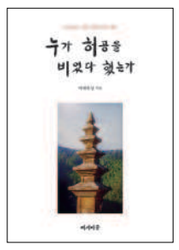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가족·생명·세상 이야기 모두 '불법 속 생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바라밀 일기
이 대원성 지음
여시아문 펴냄
1만 7천원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
이 대원성 지음
여시아문 펴냄
7천원



모범불자의 '佛行' 에세이와 '시심선심' 시집
"내가 나를 버릴 때 더 큰 내가 되었어라"

모범불자, 즉 참 불자는 어떤이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러 기준이 등장하겠지만 불심을 가슴과 머릿속에 넣고 '신해행증(信解行證)' 의 삶을 산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많지 않을 것 이다. 이번에 구도에세이 〈바라밀 일기〉와 선시집인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를 펴낸 이 대원성 '연꽃모임' 회장〈사진〉이 바로 이 기준에 딱 맞는 참불자다. 그 이유는 이 대원성 회장은 칠순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불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67년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에게 대원성이란 법명을 받은 이 회장은 이듬해 율사인 일타 스님께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1977년 신행단체인 '연꽃모임' 을 창립해 10년간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해인사 지족암 공양회장 23년, 군법당 후원회장 16년, 보현봉사회 발족 회장 20년 등 평생 큰 원력을 세워 수행과 자비나눔을 이끌었다.

부산 온천장 좁은 골목길서 살때부터 시도때도 없이 누구나 내 집처럼 찾아와 먹고 자며 마음편히 쉬어가도록 집을 개방했다. 또한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마을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원성 보살의 집은 한마디로 부산 도심의 지대방이었다. 역대 종정 스님, 총장, 교수, 학인 스님 등 이 회장과 인연있는 이들은 한 번씩 두루 거쳐갔다.

은혜사 조실 혜인 스님은 "지금도 이 대원성 회장님의 집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며 담소를 나누고 즐거워 하던 모습이 선하다"고 회고했다.

〈바라밀 일기〉는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이대원성 보살의 삶과 수행이야기를 담은 구도 에세이다. 저자는 책에서 조계종 前 종정 고암 스님과 자운 스님, 일타 스님, 운허 스님, 지관 前 총무원장 스님, 법정 스님,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등 선지식들과의 인연이야기 및 부산불교신도회와 지역 사찰서의 구도와 신행이야기, 가족이란 이름의 도반이야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흥미롭고도 진솔한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불교집안서 자라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다. 저자의 아버지가 부산 신창동 대각사 뒷편서 명초당 한약방을 운영할 때 전국 큰스님들이 날마다 와서 법담을 나누고 또 보약 지을 때면 먼저 스님들께 보시하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새벽마다 아버지와 함께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차츰 불교의 뜻을 이해하고 신심도 증장시켰다. 저자는 1966년 대한불교청년회 대각사지부에 가입해 불교 활동을 시작했다. 해인사서 수련대회를 마치고 前 종정 고암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정옥이란 이름대신 대원성이란 법명으로 다시 태어나, 오로지 불교와 함께 한 삶을 시작했다.

1969년 같은 불교청년회 회원인 노재섭 거사와 결혼 하고 단칸방서부터 작은 부처님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하며 경을 읽고 쓰며 네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 하나 잘못이 있으면 매대신 108배로 단체 벌을 주곤 했다. 새로 지은 밥이면 하루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도 부처님께 절 한 후에 먹게 하는 등 저자의 집은 언제나 부처님을 큰 어른으로 섬기며 살아왔다.

1977년 1월, 저자는 백일기도 회향을 맞아 이웃과 친구들 128명을 모아 연꽃모임을 만들었다. 그 당시는 젊은 아낙네들이 절에 잘 가지 않을 때여서 매달 한번씩 절에 가서 큰스님들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참 불자가 되는 좋은 도반이 되자며 발심의 동기를 열었다. 그로부터 저자의 집에서는 회원들이 모여 매일 점심 식사를 해 먹으면서 부처님 이야기, 절 이야기, 스님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 큰스님들이 오실 때면 자연스레 마을 법회를 하게 되었다. 좁은 집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집을 넘어 절이며 법당이었다. 때로는 지나는 스님들이 골목을 서성이면 이웃 사람들은 곧장 우리 집으로 안내하는 황당한 일도 자주 일어났다. 저자의 집은 수 많은 스님들이 다녀간 거룩한 도량이었다. 지금은 그 집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추억만 남았지만 말이다.

1980년 교육감을 지낸 이윤근 거사가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일 때 저자는 젊은 나이로 부회장직을 맡아 함께 16년을 일했다. 이때 저자는 각종 세미나며 수련회 동참 등으로 미진한 신심을 점검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불자가 되기로 서원했다고 책에서 회고한다.

1986년에는 부산불교합창단을 연꽃모임서 처음 결성했는데, 지금은 사찰마다 단체복을 입은 합창단이 구성된 것을 보면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뜻있는 회원들을 모아 작은 장학회도 만들어 스님과 대학생들에게 보시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뿌듯하다는 저자는 1994년부터 보현봉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작은 관심을 나누고 있다. 같은 해, 군법당후원회도 조직해 지난 2010년까지 16년간 매월 후원금을 보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온통 불교라는 밑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며, 함께 해준 많은 인연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특히, 훌륭한 불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부처님의 품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큰 영광이며 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겸손해 했다.

시집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펴내

이번에 함께 펴낸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는 선시 77편을 묶은 것이다. '시심선심(詩心禪心)' , '삶이 살아있는 시다' 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저자의 삶과 수행이야기를 담은 구도시(求道詩) 모음집이다. 저자는 시집에서 수행담 및 삶에 대한 아름답고도 진솔한 이야기들을 잔잔한 시어(詩語)로 펼쳐낸다.

저자는 '허공이 비었다고 누가 말했나' 란 제목의 시를 보면 "천지 만물을 다 품어 부모의 품과 같은 넉넉함으로 뭍 생명들을 다 살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피와 살과 형제자매와도 같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불자의 삶을 서원하고 있다.

'진실한 삶을 위해' 라는 시에서는 "미움은 내려놓고 사랑은 가슴에 가득 채워라. 고마움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서운함은 날려버려라. 기쁠 때는 이웃을 생각하고 은혜는 내 몸의 피처럼 모셔라"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발원하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을 대신한 '나의 서원' 이란 시에서 "나는 큰 나무이고 싶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주기 위해" 라며 밝히고 있듯이, 가족과 이웃, 생명을 위한 큰 나무이자 넓은 들, 넓은 바다, 큰 산, 높은 하늘, 꽃이고자 하는 일승보살의 큰 원력을 시집에서 공감할 수 있다.

前 국어교사가 저자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시는 '못난이 사과들의 시위' 였다. 분별심을 내는 자체가 속물근성이겠지만 타고르의 시에 필적하는 시편들"이라고 극찬했다.

독자들은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있어 더 큰 내가 되었네"라는 저자의 노래처럼, 시어들 하나가 주옥같은 법문의 단단한 알갱이로 다가온다.

인간이 갖춰야 할 품성이 곧 불교 요체



풀어쓴 티벳 현자의 말씀
싸꺄 빤디따 지음
신상환 옮김
이현주 풀어씀
도서출판b 펴냄
2만 8천원

"외모부터가 일반인들과 다른 출가수행자들은 그 외모로 인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따는 사람들인 반면에 외모 때문에 쉽게 점수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출가수행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언제든 그 점수를 되찾아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도력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해진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름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정하게 살아가는 출가수행자들의 이름은 도박과 음주와 골프와 사음 같은 추문으로만 멍드는 게 아니라 티끌처럼 작은 허물 하나에도 허망하게 무너져버리고 만다. 계와 율로 입과 몸과 뜻을 청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 하나 명심(銘心)할 게송이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티벳 유일의 '빤디따' , 즉 '현자' 란 칭호를 받았던 싸꺄 빤디따가 지은 티벳 운문학의 정수인 〈선설보장론〉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제한 책이다. 티벳어로 '싸꺄 렉쎄(Sa skya legs bshas)' 로 불리는, 예전에는 티벳의 수도 라싸의 포따라 궁에서 관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게송들을 주로 인용하며 담소를 나눴을 정도로 티벳인들의 일상서 통용되는 잠언집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티벳 망명 정부의 각급 학교에서는 이 책을 티벳 운문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선설보장론〉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제
티베트인 일상의 삶서 통용되는 잠언집
티베트 망명 정부 학교 운문학 교재로 사용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역자 신상환은 '타고르 대학' 으로 유명한 인도 비스바 바라띠 대학의 인도-티벳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티벳어 문법과 역사 불교 철학 등을 가르치고 있었고, 해제자 이현수는 '진행성 근이완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티벳인들의 삶에 녹아 있는 잠언들을 오늘날 한국인의 시각으로 풀어보자' 는 뜻이 통한 이 둘은 약 2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인도와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거리를 넘어 매일 하루 한 게송을 원칙으로 450여개에 달하는 게송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책은 티벳 불교를 밀교의 신통방통한 수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 곧 불교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전 스님은 "티벳 유일의 '빤디따' , 즉 '현자' 라는 칭호를 받았던 싸꺄 빤디따가 지은 티벳 운문학의 정수인 이 책을 옮긴 신상환 교수는 역경사(譯經士)의 모범이다.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서 우리말의 섬세함마저 갖추려는 그의 노력을 볼 때마다 무엇이 역경사의 자세인지 반추하게 된다." 며 "그 공덕에 2년여 동안 게송 하나의 의미를 헤아리던 선생의 사경 수행의 공덕이 보태져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신심 깊은 불자인 들돌 선생을 볼 때면 조선의 선비와 같은 올곧은 기품이 느껴진다." 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신심명’은 환희와 발심의 언어

신심명

혜국 스님 강설 | 모과나무 펴냄 | 2만 2천원



〈신심명〉은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僧璨:?-606) 대사가 지은 선어록이다. 여덟 자씩 하면 73구절로 584자의 짧은 글이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선의 근본이 모두 이 글 속에 담겨 있다. 즉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불법 도리와 선불교의 1700 공안의 격외도리가 모두 이 속에 포함됐다고 해서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로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라는 극찬을 받는다. 승찬 대사는 〈신심명〉의 짧은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와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한 마디로 끝나지 않고 74구절에 이르기까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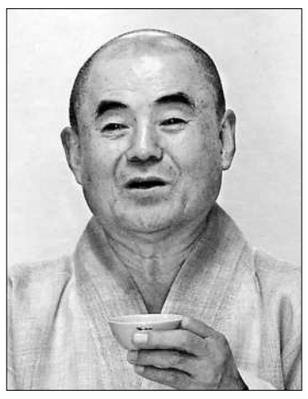
이런 중요성의 이유로 〈신심명〉을 강독하거나 해설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금아 혜국 선사는 누락된 한 구절까지 포함해 74구절 592자를 새롭게 강설해 〈신심명 · 몰록 깨달음의 노래〉를 내놓았다.

저자는 후학들을 위해 자신이 경험한 공부 과정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자세하고 쉽게 강설했다. 책 속에는 수십안거를 성만한 선승답게 잠시라도 한 눈 팔거나 글이나 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준엄함이 녹아있다.

그렇다면 혜국 스님〈사진〉이 〈신심명〉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제가 본 철학이나 습득 지식이 얼마되지 않지만, 모두 우리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체 우주 만물이 마음의 그림자일뿐 고정된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이건 더욱 어렵다는 생각에 〈신심명〉서 강조하는 중도 연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충주 석종사서 하안거 수행 중인 혜국 스님은 7월 2일 잠시 점심 공양 시간을 내서 〈신심명〉이 전하는 가르침을 들려줬다. 혜국 스님은 “〈신심명〉은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에 대해 아주 쉽고 간결하게 보여준다”며 “내용은 첫 구절인 ‘지도무난’(至道無難)에 모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말은 이어졌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말을 진정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기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대자연에서 에너지를 빌려서 그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질에서 보면 나와 네가 모두 하나이지요. 결국 우주 전체가 나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한 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갈등과 분쟁이 없으며 상생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신심명〉의 핵심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책 속에서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은 ‘내 몸이라고 하는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찌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적응해야지 환경이 나를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자신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남이 바로 되기만을 바랍니다”라고. 혜국 스님은 〈신심명〉에 살아 숨쉬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가 있기에 부처도 있고 신이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내가 신이 필요하다면 신은 내가 필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신은 받들어야 하는 내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신이니 부처니 하는 이름 지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살아 있는 부처가 되고 살아 있는 신이 됩니다.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승찬대사가 지은 73구절 짧은 선어록
중도와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일관
누락 한구절 포함 74구 새롭게 강설
첫 구절 ‘지도무난’에 모두 내포돼

또한 스님은 이 중도를 “벽을 허물어 버린 상태로 분별 속에서 분별을 떠난다”는 말로도 표현했다. 즉 “허공에 있는 인간도 허공이 보이면 살 수 없습니다. 허공 속에 있으면서 허공을 떠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슬픔의 본질을 보면 슬픔을 떠나게 되고, 화를 내면서도 화내는 본질을 보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신심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책 속에서 이렇게 전한다. “생각에서 놓아버리면 정신을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정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과거를 붙들면서 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붙들고 환영과 싸웁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둘이 아닌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백 번 알아봐도 중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심명〉을 바로 보려면 먼저 발심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심명〉은 발심의 언어이며 깨달은 이의 환희에서 나오는 순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자인 혜국 선사는 1962년 해인사로 출가해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경봉, 성철, 구산 스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하면서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이 시대의 선승이다. 그동안 〈신심명〉 강설은 원문에 충실해 그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면, 혜국 선사의 강설은 그것을 넘어 1400년 전의 언어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붓다는 바로 우리 내면에, 피안은 우리 삶 속에 있다”

붓다와 다시 시작하는 하루

불도징 지음 | 평단 펴냄 | 1만 4500원



2500년 전 인류는 위대한 성인을 만났다. 그는 바로 붓다, 부처이다. 그는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설득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붓다는 인간 각자의 존엄성을 긍정하면서 그 무엇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깨어나라”고 일깨웠다.

붓다의 지혜 속에는 충돌보다는 타협, 독선보다는 합의, 독점이 아닌 상생의 통찰력이 가득하다. 지금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붓다의 지혜일 것이다.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많은 병폐를 앓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그 병폐의 폐해가 사회를 곪게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나누고 베풀고 수도하는 삶을 강조했던 붓다의 가르침은 그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 경전에서 가르쳤던 위대한 붓다의 지혜를 1년 365일 공손히 듣고 들은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붓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내면에 이미 붓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일깨우는 자만이 붓다를 만나게 될 뿐이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붓다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내면의 붓다를 깨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구가한 붓다는 다른 모든 이가 자신처럼 완전한 자유인이 되길 바랐다. 제자들이 스승인 자신에게조차 의지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붓다 가르침의 핵심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는 밖이 아닌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지혜 1년 읽을 수 있게 구성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라”

이 책은 365일 매일 읽도록 구성되어 있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를 일깨우고 찾아가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정진할 때에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경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친 우리에게 각자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삶과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서로 경쟁하고 단절된 가운데 소외를 느끼고 적대시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삶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개인과 사회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무간지옥과 피안은 다음 생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말씀 … 방대한 분량 한 권으로 체계화

한 권으로 읽는 아함경

학담 스님 지음 | 한길사 펴냄 | 2만 2천원



이 책의 모태는 학담 스님의 전작 〈가려 뽑은 아함경〉과 〈학담평석 아함경〉이다. 어려운 한문투로 경을 해석한 〈가려 뽑은 아함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담평석 아함경〉의 방대한 분량을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 독자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입문서다.

이 책은 〈학담평석 아함경〉의 가장 큰 장점인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을 살펴본다’는 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네 아함, 다섯 니카야로 방대하게 전해지던 〈아함경〉 내용을, 삼보의 관점, 즉 불(佛), 법(法), 승(僧)으로 바라본다. 책 전체를 ‘귀명장’ ‘불보장’ ‘법보장’ ‘승보장’ 이라는 네 개의 체제로 나누고 대승불교의 관점서 ‘아함’을 완전히 해체해 재조합했다. 각 장의 도입에 ‘이끄는 글’을 붙이고, 절의 시작에 다시 소개글을 붙였다. 본문에서는 경의 제목을 로 표시하고, 스님의 해설을 통해 경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 1장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 해설서를 펴내며 (대의장)에서는 혼란의 시대 〈아함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짚어주고, 아함의 기본 사상과 삼보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소박하게 정의할 때에도 불교에는 ‘진리의 자각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붓다’와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아들여 함께 진리의 길 걸어가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곧 불교는 붓다 다르마 상가 이 세 가지 법의 보배를 기본 요건으로 해서 출발한 종교인 것이니, 붓다 다르마 상가 삼보야말로 불교의 역사적 현상형태인 것이다.”

제 3장 진리의 몸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신 붓다 (불보장)에서는 불보(佛寶)이자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붓다에 대해 말한다. 제 4장 세계의 실상과 여래의 가르침(법보장)에서는 붇다께서 가르친 진리, 다르마를 소개한다. 이른바 연기법(緣起法) 또는 연기론(緣起論)으로 정식화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실천을 통해 니르바나에 이르는 경을 보인다.

“갈대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여 비로소 설 수 있듯, 존재는 제 홀로 발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법(諸法)이 서로 어울려 존재의 자기 동일성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에도 그렇다 할 자기 실체가 없지만(我空) 서로 어울리는 여러 법들도 원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法空).

존재는 여러 가지 법이 어울려 일어나므로 실로 있음이 아니지만 존재는 여러 가지 법이 서로 어울려 일어나므로 아주 없음도 아니다. 이처럼 있음이 있음 아닌 있음이라면 없음은 없음 아닌 없음이니, 존재의 실상을 실답게 보아(如實知) 있음과 없음에 모두 머물지 않을 때 여덟 가지 바른 길 그 해탈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제 5장 평등과 해탈의 공동체 (승보장)에서는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상가, 즉 출가교단과 재가대중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상가는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만의 공동체를 넘어 바른 삶의 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이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자체임을 보인다. “상가는 출가대중인 비구 상가와 비구니 상가, 재가대중인 우파사카와 우파시카의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 상가는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고 서로 화합하며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세간 뭇 삶들의 복밭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 상가는 스스로 화합하며 늘 보디에 나아가고 중생 세간에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 살펴
각장 도입에 ‘이끄는 글’ 붙여

‘아함’은 붓다와 성문제자의 대화를 기록한 초기 경전으로, 모든 불교경전의 시작이자 가장 참뜻을 보이는 글이다. 대승의 교설에 비해 완숙하게 발전되지 못했다고 여겨 그동안 한국사회가 홀대했지만, 붓다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기에 가장 정확하고 큰 진의가 여기에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아함경이란 무엇인가

‘아함’(阿含)이란 산스크리트어 ‘아가마’의 소리 옮김으로, ‘전해온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아함경〉은 초기 불교의 경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붓다의 제자 가운데 많이 들음(多聞)으로 으뜸인 아난다가 기억한 붓다의 생생한 육성의 법문을 500장로가 합송(合誦)의 형식으로 공인하여 기록한 최초의 경전이다. 대장경(大藏經), 즉 학담 스님의 우리말 표현에 따르면 ‘많은 가르침의 곳간’에서 초기 불교 교설인 네 가지 아함을 아함경이라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남은 붓다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불교 교설은 남전과 북전의 두 행로가 있다. 북전은 산스크리트어 및 한자 문화권, 남전은 스리랑카 · 미얀마 · 타이 등의 당시 속어인 팔리어로 기록된 경전이다.



과학과 불교

유식사상(唯識思想)과 뇌과학

뇌와 마음은 연기의 관계 속에 상호 영향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불교문헌들 중에는 뇌(腦)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주로 인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관(根)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초기불전인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대승경전인 〈보살선계경〉에서 보시 중 무상시로서 머리 · 눈 · 골수 · 뼈 등과 함께 뇌 또한 버리라고 언급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腦膜)에 대해서는 초기불전의 5부 니까야 중 소부(小部, Khuddaka-Nikaya)에 수록되어 있는 〈수타니파타Suttanipata〉와 유식학파의 초기논서인 〈유가사지론Yohacarabhumi〉 등에서 언급하는데 모두 하나의 기관으로서만 말한다. 현재 자연과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과학적 실험에 의한 결과와 상응하는 내용은 찾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외 불교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인지 · 신경 · 뇌과학 등에 대한 대조 · 연구들이 대거 진척됐다. 이들 연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써 '심뇌동일설(心惱同一說) · 심뇌부동일설(心惱不同一說)', '뇌가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이다.



먼저 자연과학자들은 마음작용과 뇌의 활동이 같다는 '심뇌동일설' 과 '뇌가 먼저' 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불교학자들은 마음작용과 뇌의 활동이 같지만은 않다는 '심뇌부동일설' 과 '마음이 먼저' 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식사상에서의 '마음'

유식사상에서는 심체론의 구조를 8식설로서 표층심(表層心)으로서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의 5가지 감각기관, 분별 · 회상 · 추리 · 사고 등의 작용을 하는 제6의식(mano-vijnana), 심층심(深層心)으로서 제8식을 대상으로 심층영역에서 끊임없이 자아라고 사량(思量)하고, 제6식의 의근(意根=의지처)인 염오의(染汚意)의 제7말나식(manas)과 모든 종자를 보존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정신과 육체를 유지 · 상속시켜주는 제8식(alayavijnana)으로 구성한다. 객관계의 인식과정에 있어서도 제8식(alambaka, 能緣)에 있는 일체 종자가 제6의식에 소현(所現) 영상된 것을 인식주체인 제8식이 인식함으로서 이뤄진다. 제8식에 저장된 일체 종자식은 제7식에 의해 형성된 종자식들이다.

심체일설과 심체별설

마음에 대해 초기 · 부파불전들과 유식학파 문헌들은 '심체일설' 과 '심체별설' 로 각각 달리 언급한다.

초기 · 부파불전들에서는 하나의 기관인 제6식인 의식(vijnana)이 심의식(心意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심체일설' 을 언급한다. 초기 · 부파불전 중 〈아비달마품류족론〉 · 〈아비담심론〉 등에서는 심체일설로서 심의식(心意識)이 제6식의 역할임을 전한다.

심체일설에 대해 설일체유부 논사들은 의문을 가졌다. '심체일설' 의 제6식이 분별, 회상, 추리, 상상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유 · 본유 · 사유 · 중유 중신체의 유지 및 업의 보존과 번뇌의 근원 등을 모두 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유식학파가 형성되며 심의식(心意識)의 체성과 그 작용이 각기 다르다는 '심체별설' 이 제시됐다.

심의식의 체성이 동일하지 않고 체성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8식설을 설립해 心(alayavijnana) · 意(manas) · 識(vijnana)으로 분류한 것이다.

몸을 유지(atta)시켜주고, 종자(bija)를 보존해 주는 작용으로서 마음(=아뢰야식, alayanijnana),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나(我)와 내 것(我所)이라는 집착을 갖는 작용으로서 의(意, manas, 말나식), 그리고 의(말나식)에 의지(意根, manas-indriya)해서 모든 대상들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식(識)이란 구조가 나온 것이란 논지다.

유식학파의 초기문헌인 〈유가론〉 〈섭결택분〉에서는 그 각각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심체별설로서 심(心, 제8식) · 의(意, 제7식) · 식(識, 제6식)을 분류하고, 이들을 포함해 마음의 구조와 변화를 5위 100법으로 체계화했다.

그러나 심체별설의 심 · 의 · 식에 대해 〈성유식론〉은 속제(俗諦)에서는 양상의 분별이 필요하지만 진제(眞諦)에 들어서는 여덟 가지 양상의 분별이 필요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중생들에게는 분별하는 제6식, 사량하는 제7식, 일체 종자가 보존되어 있는 제8식이 실재하지만 오위(五位) 중의 구경위 단계에 까지 이르면 제6식은 맑아지고, 제7식은 소멸되며, 제8식은 번뇌가 없는 청정법신의 상태가 되므로 양상의 분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식사상의 태아 형성

유식사상은 우리 인체의 구성 또한 태아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설명한다. 〈대보적경〉과 〈불설포태경佛說胞胎經〉 등에서는 모태에서의 태아의 성장 과정을 38주로 나누어 언급한다. 생유의 과정은 윤회의 사유(四有) 과정 중 사유(死有)와 생유(生有)의 중간 과정인 중유(中有, antarabhava)가 중유 기간(7일, 49일, 기간부정, 數生數死)을 마치고 태어남의 조건인 삼처현전(三處現前)이 갖춰져 5~6세의 근기로 희취욕(希趣欲)에 의해 어머니의 근문(根門=生門)으로 입태하게 된다고 말한다.

태아 발생시 아뢰야식 개입해야 생유

불교서는 '마음 발생 후 뇌 발달' 설명

뇌과학은 뇌형성 후 마음작용 이론

불교의 특징은 마음 · 뇌의 관계 발달

생유가 이뤄지면 태아는 어머니가 섭취하는 음식의 진액에 의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갈라람위 등의 미세한 자리(位)는 미세한 진액에 의해 성장한다. 태아의 몸, 털, 피부색, 비부병, 장애 등은 어머니의 업, 그리고 임신과정에서의 위의(威儀)에 맞지 않는 행동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아가 모태 안에서 38주 동안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태장 8위를 주별로 구분해 갈라람위는 수태부터 제1주, 알부담위는 제2주, 폐시위는 제3주, 건남위는 제4주, 발라사거위는 제5주, 발모조위는 제6주, 근위는 제7주, 그리고 형위는 제8주부터 출생까지다.

이들 8위 중 두 번째인 알부담위부터 여덟 번째인 형위까지를 제외한 제1주째인 갈라람위를 중심으로 유식은 마음과 육신의 성장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삼처현전이 갖추어지면 정자와 난자인 정혈이 모태 안에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수정된 수정란에 일체 종자식인 아뢰야식이 화합해 의탁하게 된다. 이 상태를 생유라고 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수정란이 엉겨 맺혀진 상태로서 마치 묽은 죽과 같다. 이 단계는 일체 종자식(아뢰야식)의 공능(功能)의 힘으로 미세한 감각기관이 형성된다.

유식에서의 마음작용의 시작

이 태아의 첫 주에 대해서 유식사상과 뇌과학에 있어서 일부 상이점이 발생한다. 유식사상은 윤회사상에 입각해 수정된 이후에 허공에서 중유인 아뢰야식이 내려와 화합 의탁하여 의식의 움직임이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간이라는 한 개체를 구성하는 범주의 요소인 오온 중 식을 정신적인 요소로, 그리고 색수상행은 물질적인 요소로 언급하고, 이것을 명 · 색의 이원구조로 설명한다. 오온 중 식(vijnana)은 유식사상에서 인식의 주체인 마음, 즉 아뢰야식이다. 생유의 태아는 아뢰야식이 화합 의탁한 후 피부가 형성되고, 의식의 작용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유의 과정에 의하면 마음과 뇌의 형성과정 순서는 뇌의 형성 이전에 마음이 먼저 모태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뇌는 물질적인 것이며 마음은 정신적인 것이므로 물질에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물질적인 것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중유(중음신)에서 생유로 이어지는 과정 중 주체인 마음(아뢰야식)은 인(因)이며, 물질적인 요소인 뇌는 연(緣)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유(생애)의 과정 중에서는 이와 같은 인과 연, 즉 마음과 뇌는 서로 관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른바 마음과 뇌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음의 상태에 의해 뇌에 변화를 주게 되고, 혹은 뇌의 상태에 의해 마음에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선 · 악 · 지혜의 행위 및 수행의 계위 등에 의해 서로 관계적으로 인과 연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식사상에 있어서 마음과 뇌는 심뇌부동일설로서 물질적인 뇌의 작용이 곧 마음의 작용이 아니며 관계적으로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뇌과학의 마음작용의 시작

하지만 뇌과학은 물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의식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한다. 뇌과학에서는 수정 직후 의식이 형성되며, 그리고 수정 직후부터 뇌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태는 종이와 같이 얇으며, 1주일 내에 수정란이 분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발생한다. 이 중의 외배엽으로부터 인간의 뇌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심뇌동일설의 경우는 모두 뇌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므로 마음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있게 된다. 그리고 심처에 머무르고 있는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성(sunyata)의 실재로서 존재하므로 마음과 뇌는 각각 별도의 존재, 혹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면 유식과 뇌과학이 수정란의 형태(묽은 죽=종이와 같은 얇은 형태)와 뇌의 형성과정(미세한 감각기관이 형성=뇌의 발달 시작)을 설명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대뇌피질 · DNA가 아뢰야식으로 볼수 있어

그렇다면 굳이 뇌과학의 관점에서 식의 작용을 해석하자면 식은 뇌의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 뇌과학에서는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곳이며, 이성적 사고 · 의지 · 창조 · 의욕 등의 기능을,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정신작용을 담당하는 곳을 전두엽(frontal lobe)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전두엽으로 보고 있다. 이 역할이 유식사상에서 분별 · 회상 · 추리 · 사고 등의 심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제6식의 역할과 상응한다.

이와 함께 뇌의 기능 중에서 자아의 구체적 감각, 즉 주인의식을 담당하는 부위인 좌뇌의 상후두정엽(Parietal lob)의 기능은 탐 · 진 · 치에 의해 형성돼 제8식에 저장돼 있는 일체 종자를 자아라고 집착(執藏)하고, 의식의 저변에 항상 함께 하는 자아집착식의 제7식과 상응한다.

정보와 지식을 통괄하면서 장기 보존하는 장소인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은 반열반에 이르기까지 일체 종자를 보존하고, 모든 것을 기억 · 최종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제8식과 상응한다. 하지만 제8식이 갖는 윤회의 요소, 즉 정신과 육체를 이어가며 유지 · 상속시켜주는 기능은 대뇌피질에 없다. 이는 DNA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뇌과학에서 기억과 연관된 기능으로서 해마(Hippocampus)가 있다. 해마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인지하는, 즉 기억을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대뇌피질과 같이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기능은 없다. 따라서 제8식의 저장기능을 갖는 것은 대뇌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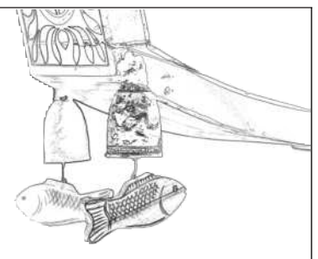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색함을 정복하는 것은 관용과 베풂이며 거짓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라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 배우시면서 행사 함께 하실 분 모집
010-3172-1145

미륵불(대형)
알 림
010-4630-8005

불자여성입니다. 스님께서 나홀로 계시는 외로운 분, 건강이 안좋으신분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 케어할 수 있는 간병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습니다. **음식**도 잘합니다.
010-5276-5982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정확한 방편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편술을 숙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불교대장경 및 고려대장경
구입, 소장 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383-5077

사찰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하,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373-112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산중 조용한 암자)
010-4484-575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구성학+현공풍수양택 7월 지역별 강의일정
■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5일 수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2일 수요일 오후1시-5시(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7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강일 : 7월 23일 목요일 오후1시-5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 현공풍수양택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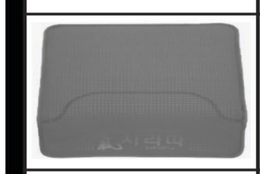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국도변
- 2층 건물 2층 전체 70평
- 법당 35평(개금, 삼존불) 요사 35평
- 방2개, 사무실1개, 공양간, 주차장
-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시설완벽, 법회즉시 가능
- 가액 : 전세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574-3885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 슬래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
- 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 단청 602호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3억

010-4548-7662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남부시장옆
- 2층 80평, 법당내 삼존불, 본존탱화, 신중탱화
- 방3개, 공양실 1,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용
- 가액 : 보증금 5백만, 월45만 시설비 절반가 6백 5십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7283-008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부지:60평 ◎ 대지:170평
◎ 법당:40평,교통편리 ◎ 법당:30평
◎ 요사:60평 ◎ 요사:60평
◎ 양도:9억7천 ◎ 양도: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사찰 급 양도
* 법당 69㎡, 요사채 73㎡, 토지 850㎡
* 논산훈련소부근 사찰. 주차장 있음
* 인수가 7천만원(융자5천만원 별도)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방 2개, 화장실겸 욕실 2
- 가액 : 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작은암자(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서면
- 대지 100평, 건평25평, 실평수 35평정도
- 신축 목조주택 임법당, 몸만오시면 됨
  불사 완벽하게 했습니다
- 동네끝집 절옆으로 조용한 차도로 있음
- 가격은 1억 9천 정도이나 직접와 보시고 형편대로 절충하셔서 상의하십시다
  대출 6천정도 됩니다
- 꼭필요하신 분께서만 전화주십시요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전원주택-사찰 양도,차판판매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 대지 약 600평 주거건물 및 창고 포함
- 입주 후 바로 생활 가능
- 별장으로 최상. 가야산 정상 조망 수도자분께도 최적의 장소
  텃세없고 조용한 마을
- 개인소장 차판 판매(번개맞은 나무. 기목. 괴목. 대추나무 등) 기암괴석
- 고가구 판매 - 가액 : 3억5천

010-8880-891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산세좋고 물 맑은 곳 기도하기 좋은 사찰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3억 2천

011-9571-6559

좋은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종교부지 160평, 대웅전 25평, 전110평
- 스님방, 공양주방, 삼존불, 각단탱화(소불)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4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용흥동
  구포항역 도보5분
- 평수 25평, 법당, 방한칸, 주방
- 집기류 일체 두고감
- 가액 : 보증금 5백 월 20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0-7788-3320
010-3290-6699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교당 35평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격 : 보증금 300백, 월50만 보증금 포함 1천 5백만원
  방문 후 가격절충
- 은사스님노환으로 인해 급 안내
-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9071-60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 5분거리 소사역 6분거리
- 5층 건물에 5층 100평 (엘리베이터)
- 법당, 공양실, 종무실, 접견실, 방4개,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스님 건강 관계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4413-42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토굴(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액 : 1억 1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땅(전) 721평, 평당 45만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땅(답)1070평, 평당 50만원
  춘천시내에서 20분거리
- 최고의 명당터임

011-823-35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 상담 방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주 인근, 옥과면
- 사자봉 적송림 7부능선
- 산 : 1만2천평, 종교부지 650평 노천 약사석불12자,
- 건물 : 조립주택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인근, 초중고,대학교있음
- 가액 : 3억 7천만원, 조건부협의가능

010-8224-1688

속가를 떠난집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2-1
- 다용도 건물 21평
- 대지 122평
- 식수, 전기, 도로, 전경 최상급
- 내부 통간 매입 희망시 최선보시

010-8899-8899
010-762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관음전,종각, 요사채
- 방총13칸,공양간,창고,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건물 총13동
- 대형버스 5대주차장, 소형차주차장 20대 등
- 가액 : 3억 9천만원(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 전답 3000여평
- 가옥 60여평 한채 토지조성 완비 대형차 진입가능
- 사계절 물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곳 주변 경관 좋음
- 가액 : 4억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매매금액 3억)

010-5019-5385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502번지
- 토굴터 396평
- 가액 : 25,000,000 원정

010-8852-1479

마산 암자 안내

- 위치 :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삼존불,용왕당,에어컨 등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800만원,월세15만원 (주변임야 활용가능)

010-7169-9878

포교원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 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과 교통요충지
- 평수 35평 3층 건물, 방1, 주방1, 옥상 30평 이용가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탱화 영가단 및 앰프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주방, 집기일체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몸만오시면 됨
- 소임 관계로 부득이 양도코저 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 시설비 2,200만원 보시면 깜놀

010-3813-617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토 굴 안 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철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주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4〉 지금 상태 그대로의 인생 바라보기 ㊦

해답 없는 질문에 답하지 말라



많음과 적음 사이

고통을 줄이는 법이나 마음속 고통을 끝내는 법을 가르치면서 붓다는 여덟 가지 바른길을 제시했다. 이것은 앞에서 내가 간단히 설명한 내용이다. 무신경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다루는 법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대화법(바른 말)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다른 수행법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명한 행동(바른 행동)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에 대해 만성병 환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을 고통의 끝으로 이끄는 행동은 발달시킬 필요가 있고 고통을 증가하거나 커지게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비활동' 이란 우리 상태를 더 악화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현명한 비활동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증상을 악화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다. 증상 악화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확실히 집 안에 묶여있는 환자들은 거주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육체적으로 내가 외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증상의 악화는 그 외출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집과 마당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무리한 행동을 피하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도 나는 일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최상의 상태로 보이도록 만들어야만 가족들의 생활의 질이 유지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가구 표현의 먼지를 닦는 것은 고통을 키우는 행동이 되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는 지혜롭지 않은 행동 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고바야시 잇사(1763~1827)의 하이쿠(전체 17음 구성 일본 고유시)를 침대 가까이에 걸어 두었다. 그 하이쿠는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지 말자는 내용이지만, 나는 내려놓기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그것을 이용한다.

'걱정마라 거미야/ 나는 집을/ 가끔씩만 치우니까'

행동이 이토록 심하게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현명한 행동은 예전에 할 수 있던 일과 그것 대신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사이에서 중도를 찾는 데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는 증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우리가 인식하는 불행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중도' 를 찾는 것이다. 너무 많음과 너무 적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성병 환자에게 있어 현명한 행동의 핵심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너무 멀리 벗어나서 예전과 같은 힘과 육체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며칠 동안 우리를 침대에 누워 있게 만들 무리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반대쪽 방향으로 너무 멀리 벗어나서, 예를 들어 처음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일곱 달 동안 그랬듯이 배 속 아기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절망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또 다른 극단인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든 우리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는 사람의 고통까지 크게 만든다. 따라서 이것은 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도전 과제는 이 두 극단에서 중도를 찾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현명한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지침은 한국 선불교의 숭산(1927~2004,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승려)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내가 침대 위에서 현명한 행동을 해 보려고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읽어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생각을 할 때는 생각만 해라."

즉 '여러 가지 동시에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감각 기관을 통한 입력이 너무 많아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만성병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조언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습관을 깨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때 마음챙김 수행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성병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의 변화에 의해 '행동' 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에 서조차, 사랑하는 사람의 병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심하게 제한될 수 있다.

"만성병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병에 걸리고 난 얼마 뒤 나는 매일 저녁 토니가 침대로 가져오는 식사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나는 미식가를 위한 요리를 제공받고 있었다. 음식 맛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눈에 보기에도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다양한 질감과 색깔로 된 음식을 넣으려고 토니는 무척이나 신경을 쓴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무력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 다정하고 너그러운 행동은 존재한다. 요리를 하거나 마사지를 해 주거나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러하다. 나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만성병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마음

나는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선사들의 가르침과 그 풀이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내 병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선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내게 도움을 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내 수행의 일부가 되었다.

첫째, 선은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일깨운다. 나 자신의 생각에 참신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생각 너머로 완전히 인도하기 위해 나는 선에 의지할 수 있다. 둘째, 선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가정해 온 것들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과 내 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려는 부질없는 짓을 그만두라고 일깨우는 역할도 한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선사들은 종종 시의 형태로 가르침을 전한다. 소엔 나카가와(1907~1984, 일본의 승려)의 이 시가 말해주듯, 선시는 새로운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도록 영감을 준다.

'모든 존재는/ 꽃 피우는 우주에서/ 피어나는 꽃'

선에서는 많은 화두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개에게도 참본성이 있는가?"

"자아란 무엇인가?"

이 화두들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이것들을 해답이 없는 질문으로 대한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를 다른 식으로 바꿔서 '해답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로 이 화두들에 답한다. 이 정체 모를 병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분노하며 세상에 반응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화두처럼 대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회복하게 될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나 해답은 없는 세 마디 말과 물음표이다. 이것을 화두처럼 대하자 그 질문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기적으로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좀 더 가볍게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 있다.

'이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병이 나을까?'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면, 깜짝 등장한 새로운 알약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바로 나타났다. 이제 나는 '이 치료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 혹은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질문을 화두로, 즉 해답이 없는 질문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한국 선불교의 승려 숭산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마음' 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알지 못하는 마음' 은 나에게 중요한 생존 도구였다. 며칠씩 잠들지 못했던 그 시기 동안 다시는 살면서 잠을 잘 수 없게 될까봐 스트레스성 이야기를 꾸며 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추고 숭산의 '알지 못하는 마음' 을 기억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자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지 못해.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추측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으로 인해 나는 차분해졌고 그 수행을 시작한 직후 다시 잠들기 시작했다.

틱낫한은 인생을 바라보는 선의 이런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라고 명상함으로써 모든 생각을 점검해야 하고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것은 효과적인 가르침이다. 관점과 의견에 집착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나는 틱낫한의 가르침이 가진 가치를 병이 나기 몇 년 전에 발견했다. 백화점에서 바지 한 벌을 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산대 앞에 줄 서 있을 때였다. 점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다음 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내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정중한 태도로 내가 먼저 왔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 때 틱낫한의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가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 하여금 먼저 계산하게 했다. 내가 먼저 왔다는 것은 99퍼센트 확실했다. 그러나 그 여성으로 하여금 나보다 먼저 계산하게 한 것은 무척이나 경이로운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그 여성에 대한 나의 너그러운 행동이 되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백화점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계산할 차례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당황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내가 그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도 분명히 내 차례가 먼저였다고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나는 단지 99퍼센트만 확신한다.

이 일상적인 장소에서 만성병 환자인 내 삶에 핵심이 된 이 수행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나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나는 더 이상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추측과 의견,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이 제멋대로 펼쳐지게 만드는 행동을 내려놓기 위해 나는 틱낫한의 짧은 세 마디 말을 수백 번 이용했다.

> 상황 따라 '현명한 행동' 취하라
> "해답 없으면 문제도 없다"
> 답 없는 문제로 고통 받지 말 것
> 불확실이 낳는 세계 내려놔야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21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7월 25일(토) 오후 2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goodname114.com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지관 스님

눈빛에 투영된 '영원'을 그릴 수 있다면

스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 중 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스님은 한국불교사에 불교대사전 편찬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일은 스님이 입적한 지금에도 후학들에 의해 올곧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스님이 펼친 대역사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 한국 불교의 힘이며 가능성이다.

지관 큰스님.

나는 스님을 네 번 뵈었다. 한 번은 총무원 집무실에서 또 한 번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뵈었고 긴 시간 동안 경국사에서 뵈었으며 소공동에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뵈었다. 모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의 자리였다. 두 번은 스님을 느끼고자 스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두 번은 스님을 모델로 스케치를 하였고 스냅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시간은 스님의 음성과 눈빛 그리고 작은 떨림과 섬려한 느낌까지 살필 수 있어 스님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의 메모장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스님에 대한 첫 느낌은 건장함과 단단함이었다. 골격은 크고 굵었으며 움직임에 여유를 더하여 기품이 있었다. 얼굴은 수려했고 얼굴빛은 밝았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 몸으로 체득한 온화함이 있었다. 그러면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동공의 뽓뽓함 속에서 고집과 집념 그리고 의지와 끈기 등이 내밀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콧날과 귀가 컸다."

이 기억을 토대로 스님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을 정리하였다.

스님은 두상이 크고 완만하다. 그러면서 이마 선은 분명했다. 머리털도 질서 정연하게 골고루 산포되어 있다. 이마에 몇 줄기의 주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잔주름이 없다. 때문에 좋은 상으로 보이게 한다. 미간은 넓다. 그래서 성품이 넉넉하게 보인다. 눈썹은 아래로 타원형을 그리고 있다. 이런 형상은 자비로운 모습을 부각시킨다. 눈 형상은 눈꼬리가 내려와 있어 순한 인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눈빛은 세고 예리하다. 눈가에는 많은 주름이 집중되어 있다. 이 주름은 분명 미소 주름이지만 이 주름 속에는 한줄기 설핏 해석하기 힘든 외로움도 읽혀진다. 코는 넓고 크다 그러면서 콧등은 굴곡 없는 직선으로 안정감이 있다. 고집이 느껴지지만 귀족형이다. 인중은 길다. 분명 장수형이다. 이런 사실은 스님의 유전학적 내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유추하게 만든다.

스님의 입은 가늘지만 반듯하다. 그러나 미소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미소 속에 드러나는 가지런한 이는 단아함과 맑고 깨끗함을 선사한다. 스님은 손이 컸고 가슴이 넓었다. 입고 계시는 가사와 장삼은 여느 승복과 달리 한껏 가늘고 풍부한 곡선의 멋이 느껴졌다. 그것이 스님의 체구에서 만들어 내는 투명함인지 아니면 특수하게 제작된 옷감에서 오는 하늘거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의 옷감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렇듯 생각이 정리될 즈음 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초상화 작업은 1년 반 동안 계속했고 오전에만 집중했다. 나는 스님 진영 작업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일을 작파할 정도로 매달렸다. 그만큼 스님 작업은 의미가 있다 생각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학승을 기록

> **지관 스님의 눈빛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고 진영을 부탁한 분들과의 신뢰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지관 스님을 그리면서 그림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내 능력의 한계로 여기며 입을 다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보고 화가의 정신이나 인격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자만함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자존심이다. 단언컨데 나는 지관 스님을 그리면서 작업 과정에 부끄럼 없도록 진정성을 담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나는 모두 4점의 그림을 그렸다. 처음엔 얼굴이 닮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얼굴은 흡사한데 의자에 앉는 모습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았다. 세 번째는 스님의 가사의 조가 새의 날개처럼 나풀거리지 않는다고 했다. 네 번째는 아무 말 없이 가져갔다. 나의 작업실에는 거절당한 지관 스님 그림 3점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을 표현한 작품 모두가 나의 소장품 목록에 있어 다행이지만 화가로서는 잊기 어려운 아픔이다. 스님과 스님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고 그림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그리고 나는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작품들은 기회가 된다면 전람회장으로 불러내어 볼 생각이다.

스님을 그리면서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을 할 때 나타났고 작업 내내 짐이었다. 스님은 탁월한 학승이었다. 또한 스님은 해인사라고 하는 당시 유일한 총림에서 기라성 같은 고승들을 뒷배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고승들이 살아온 삶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꽃 피워지기를 기대했던 "우리 지관 스님"이었다. 그 배경과 바람으로 일생을 꽃피웠어도 충분히 훌륭하였을 텐데 왜 총무원장을 하였을까? 총무원장은 사판의 꽃이다.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에 성철, 자운 스님으로 대표하는 해인사의 가풍을 지관 스님이라는 학승이 풀어내었다고 세상사로 펼쳐졌을 텐데 총무원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 내심 안타까웠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관 스님을 학승으로 그려야 할지 행정승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스님의 눈빛을 처리하는데 있어 머뭇거렸다. 한국 불교의 미래와 장구한 세월을 눈에 품고 있는 눈빛을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에서 세상을 고민하는 행정승으로 표현해야 할지 붓 속에 마음을 담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느 곳에도 방점을 찍지 못했다. 나는 지관 스님의 눈빛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2%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내 작업실에 모셔 놓은 지관 스님 영정을 보면서 가끔 자문자답한다.

"스님, 스님께서 나서야 할 만큼 그때 한국 불교가 위급했는지요, 스님께서 순수한 학승의 이미지로만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지관 스님'의 눈빛이 진리를 향한 눈빛으로 투영되고 있는 영원을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님, 저는 스님의 눈끝에 매달린 주름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 속에 왠지 모를 그늘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스님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뇌인가요?"



작가는 지관 스님의 눈빛을 처리하는데 있어 머뭇거렸다. 한국 불교의 미래와 장구한 세월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고민하는 눈빛으로 표현해야 할지 붓 속에 마음을 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님의 고뇌를 읽었다.

거제멸치,미더덕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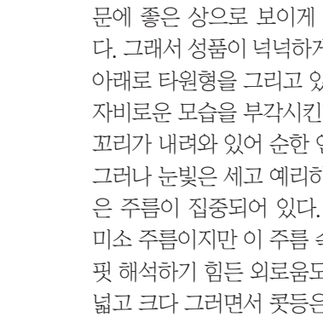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실치 등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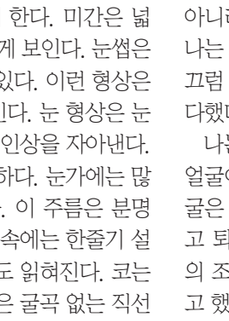
미더덕 2kg (가격 13,000원) 아이스박스 택배

택배는 멸치 5박스, 미더덕 10kg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쫀득쫀득 멸치



그윽한 향 미더덕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건 물 안 내

■위 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2층건물 한채, 한옥기와집 한채
■대지 400평, 전 400평
■용 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가 액 : ① 4억 5천만원(조정가능 합니다.) (1억 5천대출안고 2층 건물 및 토지 상가하고도 나머지 교환 가능함)
②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상담전화 : 010-8666-6210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전쟁 역사를 경제 역사로 미화하다니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일본정부가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시설 23개소를 하나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켰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는 지난 7월 5일 독일 본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군함과 대포를 만드는 조선소나 군수공장, 석탄과 광물을 캐내는 탄광 등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으나,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이러한 산업시설들을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본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 규수(九州)와 야마구지(山口)중심의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신청한 영문 명칭은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이다.

즉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적: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 인 것이다. 23곳이라 하지만 업종은 철강 조선 탄광산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메이지 산업혁명' 이라 칭하고 있다. 무엇이 산업혁명이란 말인가. 단순한 몇종의 중공업을 산업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데는 일본 나름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우리들 나름으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일본인들이 자신들 근현대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만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전쟁범죄, 침략의 역사를 경제적 성과로 미화하려는 의도다. 앞의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들은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일으키게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침략전쟁의 무기창이었던 것이다.

이 침략전쟁의 무기창을 '산업혁명' 이란 이름으로 호도하여 일본 근대화의 발원지로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23개 산업시설 중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해저탄광 등 7곳은 조선인 5만 7900명이 강제징용돼 '강제노동' 을 한 곳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등재기에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명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이를 성사 시켰으나 일본은 영문 원문의 해석을 희석하여 '강제노동' 은 아니라고 사후에 말장난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강제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중대 범죄임에도 일본은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주요 일간지를 보면 지난 5일 일본대표단은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에서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는 점을 알리겠다"고 하여 이에 한국 대표단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화답했다.

일본이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느니 만큼 전날까지 우리 연설에 포함시키려 했던 '강제노동(forced labor)' 이란 표현을 빼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forced labor 나 forced to work이 다같이 '강제노동' 임을 확인 한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와같은 결정문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임의적인 번역을 통해 "강제로 노역을 했지만 '강제노동' 은 아니다"라고 희석화 작업을 하고 나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등재 결정이 지난 5일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 노역자들이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일본 대표의 말은 '강제노동'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일본정부의 번역문에서도 forced to work을 "일하게 됐다"라고 하여 강제성을 피하려 했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강제성에 대한 영문해석을 강제가 아닌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징용이 당시로선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정부는 세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진정한 이웃으로 먼 미래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면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대화를 터야하고, 소인배적 말장난은 집어 치워야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는 결단도 보여야 할 것이다.

발언대

94년 개혁정신을 기리며

다시 귓전 때리는 '조계종 개혁 선언문'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21년 전 천지를 깨우듯 커다란 외침이 있었으니, 그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가 '종단개혁' 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불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은둔의 관행과 병폐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한다. 어용불교를 청산하고, 종권 다툼과 주지자리 다툼의 현장을 치워야 한다. 불교개혁은 시대적 당위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새로움을 위해 몸부림치자. 혹한과 한풍을 이겨내고 승가 본연의 청정 가풍을 일으켜 세우자. 반야의 검을 치켜들고 장엄하게 불교개혁의 대열로 나서자. 금강역사의 힘으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당시의 선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오늘의 종단은 그날의 외침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개혁정신은 희석되고 망각되었다. 개혁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끝내 보수화되고 기득권화한다는 세간의 논리가 절집가풍에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해 왔다. 그렇게 외쳤건만 새로움은 한사코 거부되었다. 시대적 요청은 때마다 관습적으로 호명될 뿐 실천되지 않았다. 청정 가풍은 이미 오래 전에 오염되었으며 어용불교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종단에 원칙과 기준이 사라졌다. 이렇듯 혼탁하고 유신을 거부하며, 잘못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필경 멸불(滅佛)과 멸종(滅宗)에 이르고 말 것이다. 조계종 운영과 관리 질서가 붕괴되고, 훼불과 해종의 먹이사슬 양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조속히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교장사를 해서 사익이나 추구하는 범죄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고위직 승려들에 의한 대소 비리는 승가정신을 잃고 종헌종법을 가벼이 여기며 다투어 사익을 추구함에 기인한다. 종단이 몇몇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그래서는 안 되는 어른들마저 여기에 부화뇌동하여서 종헌종법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찌 승가라 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해도 호통을 치고 바로잡으려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이 계시면서도 제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그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힘없고 답답한 대중은 선지식의 추상같은 호령을 갈구하건만 헛기침 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다.

사바의 고통에 눈감고 귀 닫은 채 은둔의 관행 또한 여전하였고 그토록 끊어내고자 했던 병폐의 굴레는 세월을 먹은 콘크리트처럼 도리어 더욱 단단해지고 말았다.

문수의 지혜검은 녹이 슬고 보현의 행원은 멈추었으며, 관음의 자비는 자취를 감추었다. 어찌해야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과 분노, 자괴감에 빠져 허덕이는 때 다시 그날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자고,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고, 간절했던 그날의 정신을 새로이 다듬어 기쁘게 실천해가자고,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자고 분연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이다. 혁신과 불교중흥의 시대적 소명을 완성해 나가고자, 대중의 의지를 모아 금강역사의 힘으로 모였다. 모두는 이들을 위해 서원의 향을 사루고, 동참의 촛불을 켜고, 성취의 절을 올리자. 그리하여 온 세상에 문수보살의 지혜가, 보현보살의 행원이, 관음보살의 지혜가 넘쳐흐르며, 천백억화신 부처님께서 나투시도록 하자.

종단이 94년도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시에는 새로운 불교사를 창달하는 역사적 차원에서 여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는 종도의 공의에 의해 이뤄지는 준엄한 과정이어야 한다. 사면이 종단발전과 화합의 길일 때만이 명분이 서는 것이다. 21년 전 4월 10일에 온 세상을 향해 선언한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선언문' 이 다시 귓전을 때리고 가슴이 뛰도록 하자. 파사현정! 우리 불교와 조계종을 멋있고 아름답게 장엄해 나가자!

社說

백제 불교 문화 부흥의 계기삼자

'백제역사유적지구' 가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등재지역은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총 8곳이다.

이번 등재로 평화적이고 창조적이며, 우호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파해 온 백제가 안팎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교 국가였던 백제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이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다. 익산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이번 등재과정에서 평가받았다.

등재지인 부여 정림사지도 사비도성 내 유일하게 석탑이 남아있는 사찰터라는 점과 당시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일본의 고대 사찰인 시텐노지(四天王寺)와 같은 양식으로 백제의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단초다.

사실 백제 문화는 그 위상에는 걸맞지 못하게 인지도가 떨어졌다. 특히 백제의 불교는 일본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일본 정치와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현재에도 추앙을 받고 있는 쇼토쿠(聖德) 태자는 고구려 승려인 혜자와 백제 승려인 혜총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5계를 수지했다. 또한 일본 대표 사찰 중 하나인 도다이지(東大寺)는 백제 도래인의 후손 행기 스님의 화주로 건립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백제 불교에 대한 연구와 문화 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은 국가적으로 반성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하고, 관광객 방문에 대한 대비와 함께 백제의 훌륭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

세계화 시대, 디지털 해외 신도교육 절실

조계종 포교원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미국 · 캐나다 지역 전법순례를 다녀왔다. 종단 차원에서 포교종책 관련분야 스님들이 미동부 전법순례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주목을 끌었다. 보름 남짓 다녀온 이번 순례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 순례단은 신도층 고령화, 어린이 포교 침체 등 해외지역 포교 현황 문제를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전법네트워크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내 사찰 간 자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미동부교구어린이불교캠프 개최도 구상 중이라 밝혔다. 또한 해외 포교사 역량 증대와 디지털대학 교육 서버 개설을 핵심적으로 진행한다.

미국에는 한국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포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해외 포교사 활동이 활발했지만 현재는 미비한 상태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포교사 양성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도입해 역량 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디지털대학교육도 절실하다. 서버 개설을 통해 해외 신도들도 종단 포교 ·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에 발맞춘 디지털 신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해외 신도들에게도 국내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미국은 사찰이 종교법인법을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사찰별 연계가 쉽지 않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라도 교구 사찰 스님들이 포교 방안을 의논 및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며 스님들 간 유대감을 조성해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처럼 마음먹은 해외포교가 1회성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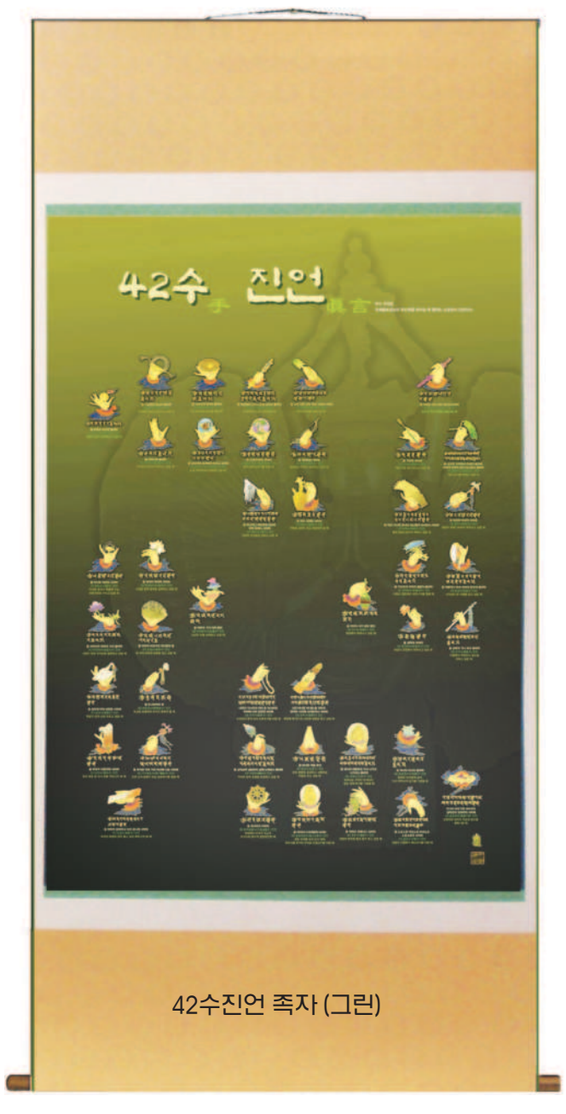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 여행 문의 상품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인도 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10월/11월 상품 -8월까지 조기예약 한정

※10회 출발 한정※ 미얀마순례 출발 가능한날짜 : 8월~~4~~(마감),29 / 9월~~5~~(마감),19 / 10월7,17,28 / 11월~~1~~(마감),14,~~28~~(마감)

특전 1. 특급호텔(양곤-세도나호텔,바간-뜨레져호텔,만달레이-세도나호텔,헤호-후핀호텔 등 동급진행
2. 추가경비 일체 없음 3. 미얀마 전문 가이드 동행 및 미얀마 현지 불교전문 가이드 진행
4. 일정 및 식사 타사비교 필수 5. 미얀마 현지 불교 행사 진행 가능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정상가 ~~2,090,000~~ → 조기예약 할인가 1,890,000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몽유와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요금문의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여행사만의 알찬 일정 】



대행 스님

바로 찰나의 생활이 여여하고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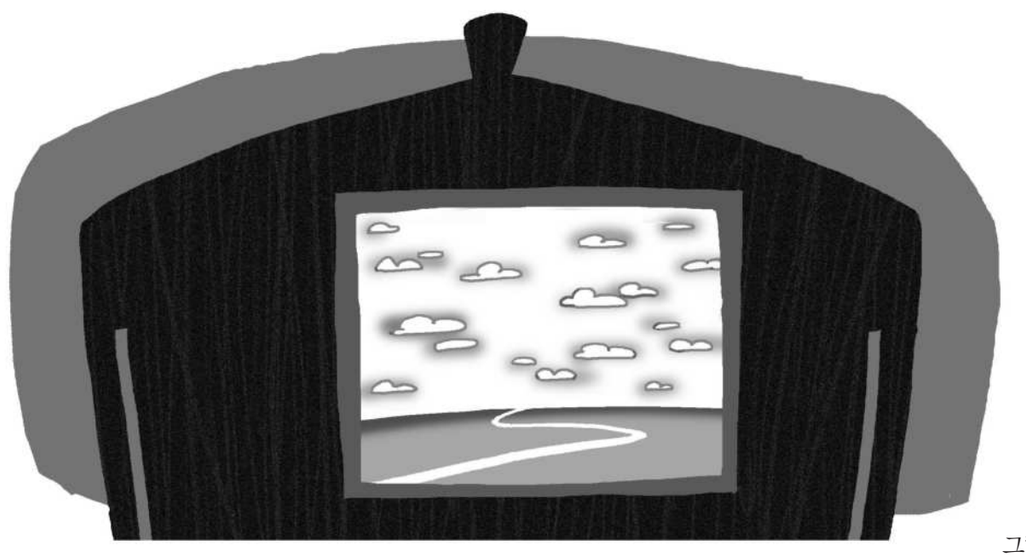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분명히 너 나는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진리의 길을 탐구하고 함께 가는 도반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고 앉았을 때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일체가 다 도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하신 그 뜻을, 또 사방을 둘러보시고 일곱 걸음을 뗀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때서부터 불교가 이루어졌고,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 받고 공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삼라대천세계(森羅大千世界)가, 아니 지금 말로 우주 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는 거요. 우주 천지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의 살림살이의 근본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 그러면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다든가 그런 것을 읽어 봤다든가 한 예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부터 직결돼 있는 그 자체의 근본, 즉 우주 천지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니 그 근본을 깨쳤을 때는, 내 육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마쳤다면 그것과 직결돼 있는 외부의 모든 중생들도 더불어 같이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신 뜻은 '무공무색(無空無色)'이니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뜻을 비유해서 사방을 둘러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발자국을 떼었을 때는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바로 찰나의 생활이 여여하고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하는 그 뜻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은 말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학식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름으로써, 이론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역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어디를 향해 지금 그대로 여여하게 걷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화풍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일체 생명이 다 지수화풍에서 생겼고, 그 생명으로 인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무정물이나 또, 일체 생물이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사라졌다가 다시 뜨고 하는 이 진리, 허공에 뜬 꽃잎 한 잎이 바람이 너무 세면 이지러지고, 또 어떠한 개체가 바람을 막아 주면은 이지러지지 않고 이러다가 떨어지곤 하죠.

이 모두가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풀포기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또는 축생 하나 버리지 않고 무정물이나 식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세계의 한마음 속에 같이, 항상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함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으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특출하게 꼭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같이 서로 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느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마디는 언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니, 앞으로는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는 질문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이 꿇어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은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空)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한다 하는 이유는 무조건 첫 번에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견을 해 가지고 '내가 나' 라는 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꿈에 부처님이 보이면 좋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한 귀신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바깥으로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온다는 발설을 하질 않나, 보면 보는 것대로 들으면 듣는 것대로, 그것들이 변해서 돌아가서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논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로 놓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비밀을 비밀로 둬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든 들리든, 내가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굴릴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고 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첫째, 불법에 누(累)가 되게 하고 둘째, 선원에 누가 되게 하고,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셋째, 자기한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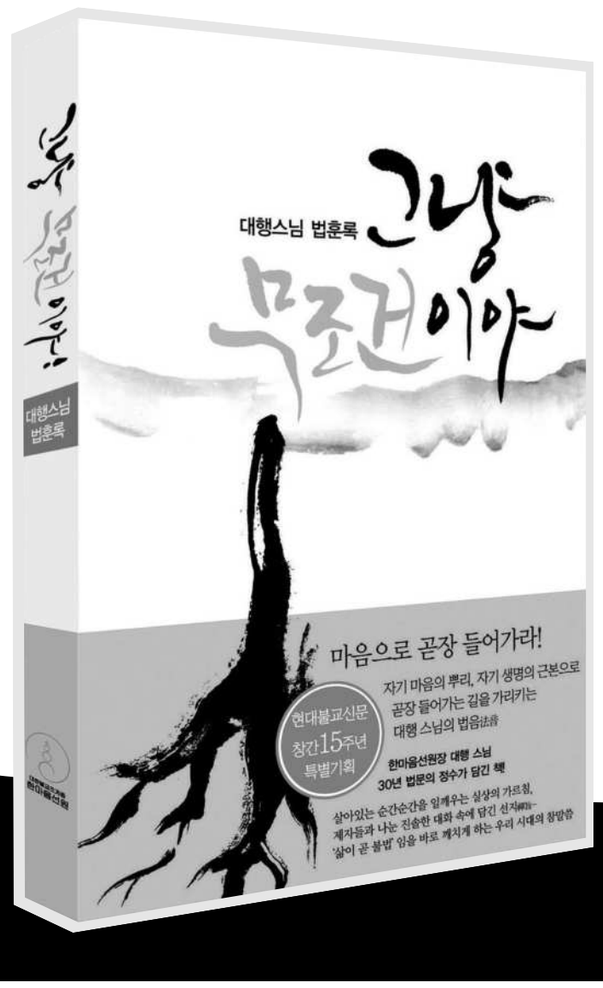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두 번째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꿈에 가르치는 것도 생시에 가르치는 것도 둘이 아니게 항상 자기가 비밀로 두고 지키면서, 봐도 본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알아도 안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행을 해 보는 그러한 막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타심통이나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오신통에서 딱 벗어나면, 바깥의 이 다섯 가지 통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이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을 코치를 못해요. 내 몸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보이더라도 놔라, 들리더라도 놔라, 남의 마음을 알더라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 29면에서 계속

놔라, 과거를 알더라도 놔라, 내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놔라.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물리가 터져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다. 비밀 문이 나한테 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으니 내 문을, 없는 문 있는 문 다 놓고 그 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죽어야 하며 또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오신통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는 너 나가 없이, 너 나는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툼에 의해서 응신(應身)으로서도 막강하며 나툼의 화(化)함도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어서 수만 명의 모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응(應)하는 대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게, 산신을 원했으면 산신으로 보여 주고, 관세음보살을 청했으면 관세음보살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나 보여 준 것만이 아닙니다. 모습도 응해 주셨지마는 마음의 그 자비도 응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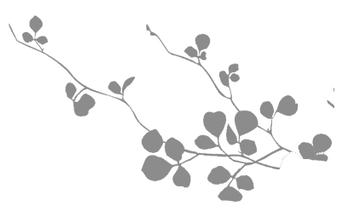
그러니 그 나툼은 하다못해 곤충에서부터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디딘 보살행이니 보현등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화불(蓮華佛)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래불(如來佛)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목신에도 응해 주시고, 지신(地神)에도 응해 주시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투철하든 말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어떠한 문제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완성이며, 같이 돌아가는 완성이며,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응(應)해 주시며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레가 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로서 여러분 앞에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축생으로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며, 개 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길이며 진리다. 한 가지 얻은 것은 진리를 얻었노라. 그 진리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없는 이름이 바로 길이며 진리이니라.' 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게 자력신앙으로서 우리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가?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장 선사(百丈禪師)가 "너희들이 땅을 파도 아니 되고, 땅을 아니 파도 아니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도리를 앎으로써 농사를 지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한 그릇을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있고 그 한 그릇이 되남을 수가 있느니라.' 하신 것은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나오셔서 여러분한테 보여 주셨다 이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이다.



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섭존자(迦葉尊者)는 얼굴의 미소로써 마음이 계합이 됐어. '나는 이 깨치지 않은 깨침, 이 법을 너한테 전달하노라.' 쉽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꼭 말을 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한 말을 했을 때 봇장이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기' 하면은 저 전구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력을 보신다면 아마 밝음을 만들어 놓은 저 전구와 갓을 똑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 전구라는 물질만 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저 밝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아시지, 전력이 오고 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력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전력이나 광력이나 또는 자력이나 통신력이 다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놔서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며 일체를 놓고 비밀을 지켜야 하며, 셋째도 죽어야 하며 그 비밀로서 나투는, 응신(應身)으로서 나투는 법을 증득(證得)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리가 터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학식으로만 배운다면, 유치원에서부터 주욱 배워 나가면서 박사 학위를 따서 거기서부터 또 자기의 소임을 맡아서 해 나가는 데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지금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남의 지식과 남의 학식과 남이 만든 모든 방편을 머리에 넣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증득한 뒤에 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먼저냐. 여러분 마음이, 마음 내기 이전이 마음이죠?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오장 육부 안에 악업 선업이 뭉쳐서 중생들이 돼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니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그 참나라는 중심의 참자기는 더하고 덜함도 없으며 당당하며 꿋꿋한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업 선업이 자꾸 농락을 해서 그것을 뒤집어쓰고 맞고 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저 꿈을 조금만 잘못 꿔도 '아이고, 오늘 뭐가 잘못되려나 보다.'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도 '아이고!' 하고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의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아, 그걸 조금만 돌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지.' 아, 이러면 금방 돌아갈 거를, 그거를 노상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날더러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말하기도 싫고 이러한 병고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왜 그걸 내게 말을 합니까, 예? 일체의 운전수는 당신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서 당신 앞에 닥치는 대로 운전을 잘 하고 가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스님께서 다 놓으라고 그랬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라 하십니까?" 이러신다면 내 한마디 해 드리죠. 도반들끼리 모이면은 신랄하게, 문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리만큼 신랄하게, 법을 구하는 데는 서로 문답을 청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데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데서 바로 체로 걸러서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가 터지는 수가 많고 지혜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런 건 저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스님은 다 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라 하십니까?" 이런다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음파를 나는 집어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내 말의 음파를 듣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쪽에서 말을 했으면 그쪽에서 먹고, 그쪽에서 말을 했으면 이쪽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도 없이 통신이 됩니다. 무전통신이 왔다 갔다 하죠? 물이 없으면 전력이 없죠? 이 모두가 묘법입니다. 이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거를 먹어 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먹어 버렸다면 그냥 무(無)죠?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끄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이 말을 하지 말랬는데, 그냥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일러 주신 거와 같이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이 진리니라. 그러면서도 너 나가 한 사이 없고, 뜬구름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금방 말했으면서도 금방 먹어치워 없애 버리고, 물질은 변질돼 가도 뿌리는 영원하듯이 우리는 이 뿌리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는 요거 한마디라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거기에 종합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이런 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모든 살아나가는 생활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으니….' 하는 것도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듯이, 다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끼리끼리 장단 맞춰서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흥겹게 말입니다. 그러나 흥겹지만은 않습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이상 끼리끼리 싸우고 뜯고, 쫓고 쫓기고, 이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기독교인과 가톨릭교인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거는 어떤 종교의 이름도 포함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전체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불(佛)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불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으니 모두가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말씀이 즉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지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알라신교니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이름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타력신앙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 봐도 그렇고 저기 가 봐도 그렇고 전부 맹종하고 있어요. 그림에 맹종하고 있고, 이름에 맹종하고 있고, 사람에 맹종하고 있고.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재료를 마음대로 들이고 내면서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에 끄달리지 말고, 이 우주의 진리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89년 7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 1,200×600×1,300 (가로×세로×높이)㎜
【중】 1,600×700×1,700 (가로×세로×높이)㎜
【대】 1,700×800×1,800 (가로×세로×높이)㎜
〈대(大)에는 반야용선조각이 추가됩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